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2009. 4

기 획 조 정 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제목 차례>

| | |
|------------------------------------|----|
| 1. 개 요 | 1 |
| 가. 회 의 명 | 1 |
| 나. 참가목적 | 1 |
| 다. 출장기간 | 1 |
| 라. 출장지역 | 1 |
| 마. 대표단 구성내역 | 1 |
| 2. 주요의제 | 2 |
| 가. 토론 및 의사결정 의제 | 2 |
| 나. 정보제공의제 | 2 |
| 다. UNSD프로그램 질의 | 2 |
| 라. 41차 위원회 잠정의제 및 일정 | 2 |
| 마. 40차 위원회 보고 | 2 |
| 3. UN통계위원회 및 주요회의 일정 | 3 |
| 4. 주요활동 | 4 |
| 가. 국제 통계협력 활동사항 | 4 |
| 나. 주요 회의참석 | 6 |
| 5. 주요의제요약 및 코멘트 | 9 |
| 가. 금융위기 영향 및 공식통계 요약 및 코멘트 | 9 |
| 1) SNA 장기 발전을 위한 고위급 포럼 | 10 |
| 2) UN경제사회정무국 정책 브리프 | 11 |
| 3) 월간Briefing : 세계경제상황과 전망 | 14 |
| 4) 글로벌 위기와 사회발전에의 영향 | 21 |
| 5) 국제 금융 협치(Governance) | 27 |
| 6) 매일 캐나다 통계 | 30 |
| 7) 네덜란드 가구의 금융자산 손실 | 31 |
| 8) 호주국민계정: 금융계정(2008년 3/4분기) | 31 |
| 9) 금융 거시건전성 분석 지표 | 34 |
| 10) 스티글리츠 보고서 | 42 |
| 11) 유로지역 국제수지와 국제투자 대조표 | 45 |
| 12) ECB(유럽중앙은행) 금융재정통계생산계획 | 46 |

| | |
|--|-----|
| 나.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의제 요약 및 코멘트 | 54 |
| 1) 기후변화와 공식 통계 | 55 |
| 2) 농업통계 | 64 |
| 3) 에너지 통계 | 74 |
| 4) 에너지통계 | 79 |
| 5) 에너지통계 | 81 |
| 6) 환경경제계정 | 82 |
| 7) 국민계정 | 88 |
| 8) 사회통계 | 95 |
| 9) 보건통계 | 100 |
| 10) 교육통계 | 107 |
| 11) 고용통계 | 111 |
| 12) 성인지 통계 | 115 |
| 13) ICP(국제비교 프로그램) | 121 |
| 14) 아·태지역 통계발전 | 125 |
| 15) 개발지표 | 131 |
| 16) 인구주택총조사 | 134 |
| 17) 사업체등록부 | 137 |
| 18) 정보통신기술(ICT)통계 | 138 |
| 19) 물가통계 | 150 |
| 20) 통계활동 조율 | 151 |
| 21) 통계역량구축 | 152 |
| 22) 통계역량구축(PARIS21) | 154 |
| 23) SDMX | 156 |
| 24) 인간주거통계 | 157 |
| 다.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의제 요약 및 코멘트 | 158 |
| 1) 정규 옴저버의 갱신과 임시 옴저버의 초청에 관한 절차 | 159 |
| 2) 공식통계의 신뢰성 측정 : 전자 작업반 창설 제안 | 161 |
| 3) 어떻게 세계적인 위기에 처한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 | 163 |
| 4) 한눈에 본 정부 | 164 |
| 5)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 Stiglitz 위원회의 권고안 | 165 |
| 6) 환경통계(OECD 안건) | 166 |
| 7)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 | 167 |
| 8) 인적자원 측정 | 168 |
| 9) 통합세계 통계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OECD의 역할 | 169 |
| 10) 아동 복지 측정 : OECD 보고서 교훈 | 170 |
| 6. 기타 | 171 |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1. 개요

가. 회의명 :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
(4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나. 참가목적

- 국제통계사회 주요현안 공동논의 및 동향파악
- 각국 통계청장 및 국제기구 수장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금년 10월 개최되는 제3차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 적극적인 국제 활동 참여를 통한 우리 청 위상제고

다. 출장기간 : 2009.2.21(토) ~ 2.28(토)(6박8일)

라. 출장지역 : 미국 뉴욕 유엔본부

마. 대표단 구성내역

- 대표단장 : 김대기 통계청장
- 대표단원 : 박경애 국제협력담당관, 최정수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총괄기획과장, 김은정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윤중호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김지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부국장

2. 주요의제

가. 토론 및 의사결정 의제

- ①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② 농업통계, ③ 에너지 통계, ④ 환경경제 계정, ⑤ 국민계정, ⑥ 사회통계, ⑦ 보건통계, ⑧ 교육통계, ⑨ 고용통계, ⑩ 성인지 통계, ⑪ ICP(국제비교프로그램), ⑫ 아·태지역 통계발전, ⑬ 개발지표

나. 정보제공의제

- ① 인구 및 주택센서스, ② 사업체등록부, ③ ICT통계, ④ 물가통계, ⑤ 통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 ⑥ 통계역량구축, ⑦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공유와 교환을 위한 기준, ⑧ 주거통계, ⑨ 경제사회 이사회 정책결정 후속조치

다. UNSD프로그램 질의

라. 41차 위원회 잠정의제 및 일정

마. 40차 위원회 보고

3. UN통계위원회 및 주요 회의일정

| 2.20.(금) | 2.21.(토) | 2.22.(일) | 2.23.(월) | 2.24.(화) |
|--|--|---|--|---|
| 9:30am - 1:00pm 공식통계 혁신에 관한 세미나 | 10:00am - 1:00pm 전략적 통계기획에 관한 회의(PARIS21) | 2:00pm - 5:00pm MDG과일럿프로젝트 실무협의(비공개협의) | 12:00am - 1:00pm 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 | 10:30am 40차 통계위원회 개회 |
| 2:00pm - 5:30pm 공식통계 혁신에 관한 세미나 | | 2:00pm - 4:00pm ISWG국민계정회의 (비공개협의) | 1:45 - 2:45pm 통계활동조정위원회 (CCSA) 미팅 | 10:30am - 1:00pm 임원단 선출, 의제채택,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농업통계관련 협의 |
| | | 4:00pm - 7:00pm 금융위기의 영향 및 공식통계 (비공개회의) | 3:00 - 6:00pm 고위급포럼 "Globalization & Global crisis" | 1:45 - 2:45pm lunchtime seminar (환경통계에서의 진전) |
| | | | | 3:00 - 6:00pm 에너지통계, 환경경제계정, 국민계정관련 토의 |
| 2.25.(수) | 2.26.(목) | 2.27.(금) | | |
| 9:00am - 10:00am UNICEF PT (아동사망추정DB) | 10:00am - 1:00pm 개발지표관련 토의, 정보제공의제협의 (인구주택총조사 외 8건) | 10:00am - 1:00pm 프로그램 질의, UNSD '10-'11 사업계획 보고, 41차 통계위 임시의제 일정협의, | | |
| 10:00am - 1:00pm 사회, 보건, 교육, 고용통계관련 토의 | 1:45 - 2:45pm lunchtime seminar (인구센서스 자료 수집과 보존) | 40차 통계위원회 보고서 채택 | | |
| 1:45 - 2:45pm lunchtime seminar (글로벌 공간데이터 인프라의 전망) | 3:00 - 5:00pm 국제기구와 통계발전관련 협의 | 3:00 - 4:00pm UN통계시스템에 관한 협의 | | |
| 3:00pm - 6:00pm 성인지, ICP, 아태지역통계발전 관련 토의 | 2:30 - 6:00pm OECD의장단 미팅 | | | |
| | 1:30 - 4:00pm OIC, SESRIC 회원국 통계청 미팅 | | | |

4. 주요활동

가. 국제 통계협력 활동사항

□ 유엔통계처장과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및 직원파견 협의

-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 경제센서스 관련 국제회의 공동개최 협의 및 관련업무 협의

- 개최시기 및 장소 : 2009년 7월 중순, 서울

- 참가국 : 약25개국(UNSD의 경제센서스 전문가 참석)

- 직원파견 : 우리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유엔통계처장은 우리 청 직원(1명)의 유엔 통계처 단기파견에 합의 (유엔통계처 비용부담). 데이터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기술(IT) 등과 관련된 영역에 과장급이하 우수 직원을 파견기로 합의

□ OECD 통계국장(Enrico Giovanini) 면담

- OECD는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World Bank**의 재정 지원(40만 불)하에 한국 통계청에 다음과 같은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간곡히 요청, 김 대기 통계청장은 이에 대해 협의

- 금년 3차 OECD세계포럼에 저개발국 인사 초청경비 지원

- 2010년 이후 저개발국 인사의 연구 및 교육지원

※ 한국 통계청은 동 프로젝트를 OECD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한국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 교육실시

□ 호주 통계청장(Brian Pink)과 통계협력 방안 협의

- 우리 청 직원파견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 공감
 - 우리청의 인구센서스 조사방법 혁신계획 설명(2010년 인터넷 조사 활성화, 2015년 등록기반 조사 추진)
 - 우리 청의 인터넷조사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계획 및 조사계획에 호주 통계청장은 지대한 관심 표명
 - 농업통계 원격탐사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 공유 필요성 논의
 - 호주의 사업체조사체계(중소기업은 국세청 과세자료 이용, 대기업은 조사)를 지지하고 공감 표명
- ※ 호주 통계청은 통계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국세청이 조사하는 등 국세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운용 현황 등에 관한 심층토의를 위해 우리 청장님의 호주 통계청 방문을 적극 희망

□ 중국 통계청장(Ma Jiantang)과 통계협력 방안 협의

- 1993년부터 개최해 온 양자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
- 중국은 경제센서스를 10년 주기로 실시 예정이며, 농업센서스는 인구센서스 및 경제센서스에 통합할 계획
- 또한 양국의 원격탐사기법의 각종 센서스 활용 및 활용범위 확대 계획에 관한 토의

□ 유엔사무총장 비서실장(김원수 대사) 면담

- 제3차 OECD세계포럼에 유엔사무총장 참석관련 논의
- ※ 10월에는 유엔의 주요회의가 많아 사무총장의 참석이 쉽지 않아 보이나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엔 사무국의 고위급이 대신 참석토록 추진

□ 주유엔대표부대사(박인국 대사) 면담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통계기반 경제정책이 절실한 점 등 통계 및 통계청의 역할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
- 한국의 인구고령화 영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
- 대사는 UNFPA(유엔인구기금) 등 국제기구와 통계청이 협력하여 북한통계 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

나. 주요 회의참석

□ 특별세션 : “금융위기 영향 및 공식통계”회의 참석

- 회의개요
 - UNSD, World Bank, IMF 공동주관 및 유엔통계처장의 주재 하에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
 - IMF(국제통화기금)는 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지표 보완, 통계의 현실적합성 제고, 신속한 자료갱신, SDDS(특별자료제공기준)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가별 금융 부문 지표 연계방안(IMF Intranet), 의사소통 제고 등 제시
 - World Bank는 적기 자료제공 및 가구의 소비지출, 주택시장, 빈곤 등의 사회통계 생산 필요성을 강조
 - UNSD(유엔통계처)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2008)이 국제적으로 연동된 경제상황을 기술하는 거시경제계정으로서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 대차대조표 및 금융계정 보완을 평가하는 개념적 준거 틀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
 -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측정위원회(CMEPSP)’는 사회, 환경, 경제 등을 고려한 삶의 질 측정방법 논의

○ 청장님 발언요지

- 세계적 시각에서 현 금융위기를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 및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신흥개도국의 자금흐름에 관한 지표를 개발, 보완함으로써 위기를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역할의 중요성 강조

□ 주요의제 회의참여

○ 의장단 선출

- 의 장 : Mr. Pali Lehohla(남아공)
- 부의장 : Mr. Jean Philippe(프랑스), Mr. Iwan Sno(수리남),
Mr. Igor Uliyanov(러시아)
- 서 기 : Mr. Ali Bin Hassan(오만)

○ 기후변화통계, 에너지, 환경통계 등 최근 이슈관련 의제

- 동 의제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통계청의 관련통계(온실가스, 에너지, 환경 등) 작성 방향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

※ 청장님 발언요지

- 기후변화를 공식통계에 편입시키자는 권고안 등을 담고 있는 호주통계청 보고서의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 또한 우리정부의 주요 어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소개, 개도국의 관련 통계 작성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

□ OECD의장단 비공개회의 참석

○ (안건1) “2009년 OECD업무실행계획”

- 우리 청은 동 안건에 대해 동의 및 승인입장 표명

○ (안건2) “공식통계측정 신뢰도를 위한 전자작업반 창설제안”

- 우리 청은 동 안건지지

○ (안건3) “세계적 위기에 처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의 역할”

- 청장님 발언요지

급변한 경제상황에서 단기 경제지표의 활용도는 적다고 주장. 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지표(가구실태, 주택, 빈곤 등)의 중요성 강조

○ (안건4) “한눈에 본 정부”

- 청장님 발언요지

OECD의 정부지표 개발 목적의 불분명성 지적. 또한 각국의 처한 상황이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를 비교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

○ (안건5)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세계 프로젝트”

- 청장님 발언요지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3차 OECD 세계포럼('09.10월, 부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는 현재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 주요 인사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

5. 주요 의제요약 및 코멘트

가. 금융위기 영향 및 공식통계 요약 및 코멘트

| No. | 제목 |
|-----|-------------------------|
| 1 | SNA 고위급 포럼 |
| 2 | UN_DESA policybrief 1월호 |
| 3 | SG-Briefing 세계경제상황및전망 |
| 4 | UN사회발전위원회 |
| 5 | 국제금융협치-G20정상회담- |
| 6 | 매일 캐나다 통계 |
| 7 | 네덜란드 가구의 금융자산 손실 |
| 8 | 호주국민계정 |
| 9 | 금융 거시건전성 분석 지표 |
| 10 | 스티글리츠 보고서 |
| 11 | 유로지역 국제수지와 국제투자 대조표 |
| 12 | ECB(유럽중앙은행)계획 |
| 13 | 2008년 3분기 유럽 금융 발전 보도자료 |

(세부자료는

http://unstats.un.org/unsd/statcom/statcom_09/seminars/global_financial_seminar/Global_financial_seminar.htm 참조)

1) SNA 장기 발전을 위한 고위급 포럼

□ 개요

- 2008.11.17-18 미국, 워싱턴 (World Bank 주관)
- 배경 : 2008 UNSC에서 SNA 장기 발전을 위한 고위급 포럼 조직을 요청
- 구성 : ISWGNA(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Eurostat, IMF, OECD, UN, World Bank
- 목적 : 각 국의 주요 자료 수집 능력과 SNA 관리 능력을 고려한
SNA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주요 성과 요약

- 동시에 G20 정상회담이 열려 국민계정과 현재 세계 경제 위기와의 관계
토론 기회 제공
- 거시경제계정은 경제통계정보시스템의 중심임과 명확한 대차대조표의
중요성 확인
- 향후 수행과제 - 금융자산분류/ 금융성과구조, 유동성 관리 등의 제도적 혁신
- 핵심 계정의 안정적 셋 마련과 동시에 현재의 경제 단면을 보여주는
국민계정 통계 생산에 있어서의 유동성 확보 강조
- 국민계정 지식자산 확충을 위한 연구 확대
- 국민계정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함을 물론, GDP와 가구부문을
연계하여 웰빙과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지표 개발 필요
- 공식통계 연구개발을 위해 학계/규제기관/기업부문간 의사전달 전략 개발
- ISWGNA, SNA 사업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제안

2) UN경제사회정무국 정책 브리프

※ 요청되는 대량적, 세계적 금융정책(계획단계에서 행동전환까지)

- 미국에서의 2007년 중반의 서브프라임 주택 붕괴는 세계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세계경제를 침체기로 유인
- 미국에서의 대담한 자본정책과 대량의 기업구제정책도 현행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음
 - 산업생산이 가파르게 침체됨으로서, 신용시장, 자산 및 소비재가격이 수축
- 실업률은 선진국에서 증가되고 개도국에서의 전망은 어두웠음
- 2009년 세계경제상황과 전망의 염세적 시나리오인 금융소동과 강한 재정정책의 부재는 세계적 생산을 0.4%를 떨어뜨렸으며, 경제회복은 2010 또는 이후로 연기됨.
- 선진국에서 완만한 하강세일지라도 2008년 3분기 이래로 사적자본 유입의 가파른 추락, 고환율, 수출수요와 소비가격의 하락 등 가파른 하강세는 개도국에서 보여짐

□ 통제의 개시

- 2007년 위기 초에, 초기 정책은 주요 발전된 경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소량이며 범위나 규모면에서 한정됨
 - 유럽과 미국에서 금융시장에 부가유동성을 제공함에 초점을 맞춤.
- 금융위기가 깊어짐에 따라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에 보다 공격적인 금융정책으로 전환
-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금융지원으로 약 4조원을 산정하였고, 병든 금융제도를 재구성하고 신용과 자본시장의 회복을 목적함
- 2008년 11월 이래로 미국에서는 은행간 대출율과 기금청구에 대한 회수의 폭이 좁아졌음

- 실물생산에서의 가파른 수축은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자율로서 효과가 없는 통화정책으로 정책입안자가 통제력을 갖기를 반증
- 이것은 일본의 1990년대 재정거품의 붕괴와 유사함. 이 경험은 은행대출의 자제,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는 중앙은행의 낮은 이자율로 소비자 및 사업 신용은 몇 년 동안 심각하게 침체될 수 있음
- 통화자극을 위한 한정된 규모로, 세계적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응답은 규모와, 전략, 지속적이어야 함 또한, 국제적으로 잘 조정되어야 함

□ 세계적인 통제 : 세계경제를 위한 새로운 “뉴딜”

- 보수적인 평가에 따르면, 재정자극의 규모는 세계산출의 1~3% 규율되어야 함.
- 심각한 소비자와 사업자 신용의 심각한 저수준으로 침체된 경제에서 자극 효과는 정부지출의 형태로 수행
- 부가재원이 장기 지속발전목표라면 자극은 경제적 수축과 정치적 지원을 획득할 수 있음
- 이것은 자극이 기간산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재생에너지 및 엔진 효율성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수행되는 선진국에 적용할 수 있음
 -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장기발전목표로 새로운 재정 자극을 수행할 수 있음
- 기간산업, 클린테크놀로지, 농업발전에서 교육과 건강은 경제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약간의 소비재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임
- 그러나, 충분한 정책규모로 어떤 나라들은 세계수요를 소생함에 기여하는 거대규모 계획을 제안
- 중국의 5,860억달러의 재정자극은 공중의 기간산업과 사회적 전환에서 투자를 통한 국내 수요를 강화함을 목적함

- 이는 적은 외환비축 국가, 무역에서 가파른 쇠퇴, 수출소득에서의 쇠퇴를 포함하는 한정된 재정규모의 나라들에게 적용
- 세계적 재정자극 전략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님
 - 첫째, 지속적인 재정결핍의 전망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신용을 쇠퇴시킬 수 있음.
 - 둘째, 달러붕괴의 위험이 있음. 달러가 안전하다고 신뢰되어 왔으나, 미국의 재정 및 교역 결손이 보다 침체되어 계속되어 진다면,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퇴색
- 이 해결책에 대한 장애물은 국제금융구조의 보다 기본적인 개혁을 요청
 - 포괄적인 의제가 2009 경제상황과 전망에 제시됨
 - 국제 금융규제와 감독을 위한 현재의 메카니즘의 조사와 국제적 정책 조정을 위한 신뢰할 만한 메카니즘의 설립대신에 US 달러화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국제비축시스템의 개혁을 포함

3) 월간Briefing : 세계경제상황과 전망

“UN DESA(경제사회국)”

□ 요약

-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위기의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산업생산과 국제무역 활동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실업율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 각국은 금융위기가 대규모 경제·사회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정책액션을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이슈

- 세계적인 경기침체국면 타파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상당 규모의 재정지출이 긴급히 필요함.
- 주요 선진국은 이미 깊은 경기침체 국면에, 개도국은 급격한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수십조달러의 금융재산 손실, 실업율 급증, 수요긴축, 빈곤율 증가 등)
 - 주요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는 악화일로이며 신용시장은 경색되어있음
 - 많은 국가가 세계총생산의 3%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하였으나 현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한국은 GDP의 1%수준인 97억불의 재정지출을 발표)
 - 국제적 조정역할도 없는 상황이므로 정책의 효과성도 의문시됨.
 - IMF는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1.7%로 낮추는 등 많은 기관들이 2009년 전망치를 낮추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 증가 및 국제교역의 위축

- '08년 11월 세계총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14%감소
- 최근 20개이상의 선진국·개도국에서 보호무역정책도입(수출보조금, 수입제한, 관세장벽 등)

□ 유가상황

- 비관적인 경기전망으로 인해 유가는 OPEC산유국의 감산(4.2백만 배럴/일)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40~45의 안정적인 수준유지.

□ 선진국의 상황

○ 미국 : 성장 붕괴, 실업 및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책 추진

- 급격한 개인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해 '08년 4분기 성장율 -3.8% 기록 (대규모 재정지출이 민간투자감소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
- 2008년 한해 3백만명이 실직하고 현재 더 악화추세. 실업율은 7.2%
- 주택시장은 더 안 좋음. 신규주택판매는 14.7%감소하고 평균주택가격은 전년동기대비 9%하락. 신규주택건설계획은 70%감소.
- 미 의회는 7,870억불의 미국경기부양법안을 의결함('09.2.14.)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녹색에너지와 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등)

○ 캐나다 :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병행추진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5% 인하하여 1.0%로 함.
- 사회간접자본 및 세금감면 등 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이를 통해 금년 1.4%의 성장률과 2011년까지 19만 일자리 창출계획(두 달간 일자리 10만개 감소)

○ 서유럽 및 EU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기부양책 마련

- 불확실한 경제상황임. 영국의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5%하락
- 유럽지역 실업율은 7.8%로서 점차 증가추세. 특히 스페인은 공식적인 경기하강에 진입하였고 실업율은 13.4%에 달함
- ECB(유럽중앙은행)는 정책금리를 0.5%인하하여 2.0%로 하였고, 영국 중앙은행도 0.5%인하하여 정책금리를 1.5%로 함
- 독일정부는 320억유로의 제1차 경기부양책에 이어 2009년~2010년간 500억유로의 제2차 경기부양책도 발표. 이는 총 GDP의 3%수준
- 경기부양책(GDP대비) : 프랑스 1.5%, 이태리 4.3%, 영국 1.1%, 미국 5.8%

○ 신 EU멤버국가

- 경제상황이 악화(중앙유럽은 성장둔화, 발틱국가는 마이너스 성장률)
- 헝가리 및 폴란드 중앙은행은 1월중 금리를 인하
-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가스분쟁으로 중공업설비의 산업생산 차질초래

○ 일본 : 경기지표 악화 및 디플레이션 우려

- 지난 3분기 경기침체에 진입하였으며 경기지표는 예상보다 더 악화됨
- 엔고 및 수요감소로 자동차, 전자 등 수출부진
-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9.6%감소, 민간소비는 4.6%감소, 실업율은 4.4%로 증가(3월에는 5.5%예상)
- 경제성장률 전망 : -1.8%('08~'09년), -2.0%('09~'10년)
- 일본의회는 경기부양을 위해 4조 7,900억엔규모의 추경예산을 의결
- 재정지출집행 부진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불황이 지속될 전망

○ 호주 · 뉴질랜드

- 정책금리인하 : 호주(1.0%인하하여 3.25%), 뉴질랜드(1.5%인하하여 3.5%)

□ 신흥개도국

○ 러시아

-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으로 인해 실업증가, 임금정체, 사업투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다만, 소비수준은 아직 양호)
- 실업수당 인상,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악화에 대응
- 루블화의 평가절하(depreciation) : 달러대비 19%, 유로대비 22%
- 벨라루스 : IMF로부터 25억불의 구제금융지원 받음

○ 남동유럽

-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감소추세
- 러시아의 가스중단으로 세르비아 많은 회사가 생산에 차질

□ 개도국

○ 아프리카 : 광산업 및 관광업 부진으로 어려움

- 세계적 경기침체로 아프리카 경제성장 둔화
- 수요감소로 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가격도 급락
- 3분기 성장률은 0.2%, 실업율은 23.2%로 4분기부터 경기침체에 진입
- 콩고 및 잠비아는 광산업 침체로 세수 급락과 무수한 일자리 상실
- 콩고는 IMF에게 2억불의 긴급자금을 요청중
- 관광업 또한 심각한 침체.(탄자니아 관광수입 18%감소)
- 이집트는 성장전망을 5.2%로 하향하고 24억불의 부양책 발표

○ 동아시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전

- 급격하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
- 수출중심국가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 특히 어려움
- 중국 : 경제성장률이 '08년 6.8%로 감소('07년 13%)되었으며 외국수요 감소가 가장 큰 요인. 부동산시장의 안정, 적극적인 통화정책, 적정규모의 경기부양으로 국내시장은 안정을 찾고있음
2천만명의 농민노동자가 실직.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 이자율을 내림
-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 중국 : 11월 5,860억의 경기부양책을 발표(감세, 교통망건설 등)
 - 싱가포르 : 136억불 경기부양책(GDP의 8%)

○ 남아시아

- 경기침체가 타 개도국에 비해 덜 심각(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인도는 수출 및 산업생산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함
- 파키스탄은 11월 IMF의 76억불 긴급금융지원을 받음

○ 서아시아

- 걸프지역정상회담에서 2010년초 중앙은행 창설에 합의함
- 무디스는 바레인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향함.
- 터키 : 수출감소 및 국내소비감소로 산업생산이 13.9%감소. 이자율은 2%하락하여 13.0%
- 이스라엘 : 정책이자율을 0.75%하락하여 1.0%. 작년 9월에 비해 3.25% 하락한 수준임.

○ 남미

- 예상보다 경제활동이 침체됨.
- 산업생산량 감소 : 브라질(6.2% ↓), 멕시코(5.4% ↓), 콜롬비아(13.3% ↓)
- 특히 생산부문에서 일자리 손실이 심각(브라질 65만개 일자리 감소)
- 브라질과 칠레는 기준금리를 1%인하하여 각각 12.75%, 7.25%.
- 멕시코는 기준금리를 0.5%인하하여 7.75%.
-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베네수엘라(31%), 볼리비아(31%), 콰데말라(9.4%), 우루과이(9.2%)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2.25%인하하여 10.0%로 함.
- 세계은행은 엘살바도르(4억5천만불)와 자메이카(1억불)에 대한 차관을 승인함.

세계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

-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여파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작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5.6% 감소하는 등 실물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금년에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임
(※ -2% 내외 성장을 하고 취업자도 20만명 감소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조속한 추경예산의 편성, 신용보증 공급확대 같은 신용경색 해소노력, 일자리 및 민생대책 확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Comments

-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S., the world is now experiencing significant economic recessions and in the aftermath of it, Korea has been undergoing big difficulties on economic activities, which highly depend on foreign trade.
- The object-economy of Korea has rapidly shrunk on account of simultaneous depression of domestic markets and exports, as an example, the GDP contracted by -5.6% in the 4th quarter of 2008 compared to previous quarter.
- The prospects of this year's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re rather negative. (※-2.0% of economic growth and 200,000 jobs reduction)
- Therefor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and implemented combating economic crisis policies such as an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he tight-money situation resolving policy like expanding of the trust guarantee funds, job-creating etc.

4) 글로벌 위기와 사회발전에서의 영향

“제47차 유엔사회발전위원회 (2009.2.4.-13.) 의제”

□ 배경

- 결의안 2006/18(2006.7.26.)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현안이슈’(Emerging issues)를 사회발전위원회 아젠다로 다룰 것을 결정. 의장단은 금융위기, 식량 및 에너지 가격급등, 기후변화를 글로벌 현안 이슈로 규명

□ 기후변화

-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된 위기로 20세기에 들어 지구의 온도 0.7도 상승. 인류활동의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여 현재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온난화 완화와 그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
- 곡물가격급등이나 금융위기와 같이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진 않지만 기후변화는 우리시대를 규명하는 도전과제로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위기요소와 맞물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글로벌 위기

- 2008년 상반기 곡물 및 에너지(특히 원유)가격 급등
- 2008년 하반기는 금융위기의 혼란을 기록
 -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촉발된 위기는 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 동 위기는 타국으로 재빨리 확산되어 미국, 유럽의 몇몇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상황 발생. 또한 글로벌 수요 감소는 상품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 각국에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정책수단의 효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 경기침체는 불가피

□ 사회발전에 관한 영향 평가

○ 성장 및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개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곡물 및 에너지 등의 수입가격 급등
- GDP성장률 예측(IMF 2.2%, 세계은행 0.9~1.0%)
- 높은 곡물가격과 원유가격은 상당수 국가의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
- 신용경색은 선진국의 생산감소 뿐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악영향(개도국으로의 자금이동 감소)
- 국제상품가격 하락은 수출액의 감소로 상품수출국에 위협으로 작용
- 극빈개발국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가 공여국의 대외원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음.(실제 ODA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기침체는 상당수준의 실업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수출주도형 개도국의 경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실업증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08 미국의 사라진 일자리수 : 2백6십만개, 실업율 7.2%)
- 경기침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삭감압력으로 작용
-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한 양상. 경기침체 시 청년은 고용주와 확고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 해고대상
- 고령자의 노동시장 존속 및 재취업도 어려움이 가중
-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기침체는 여성에게 더욱 큰 곤경으로 작용
(여성이 실업이나 사회보장혜택에서 남성에 비해 일정정도 소외)

○ 빈곤에 대한 영향

-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따라 빈곤수준의 상승예상 (곡물가격 50% 상승 시 1억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
- 성장이 둔화될 경우 빈곤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6천만의 신 빈곤층 형성)
- 가난한 계층의 경우 수입의 상당부분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므로 물가 상승은 구매력을 약화

○ 사회지출 및 불평등에 대한 영향

- 현 상황 하에서 공공지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증가
- 반면,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정부세수의 감소는 공공지출 예산 감축을 의미
- 대부분 국가예산이 금융시스템 붕괴예방에 투입되어 사회발전부문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고통의 가중
- 위기의 영향에 따른 공공지출 감소가 저소득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것
- 낮은 경제성장, 신용경색, ODA감소 등은 개도국 정부의 정책집행을 제한

○ 신용경색, 중소기업 및 빈곤에 대한 영향

- 금융위기는 신용공급 감소와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중소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음
- 또한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며 수요 비탄력적인 저급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고급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보다 유리
- 선진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자본감소 예상
- 자본 확충에 어려움과 위험회피 분위기로 인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도 줄어들 것
- 이주 노동자로부터의 송금감소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저축률 감소로 나타남

○ 사회발전에 관한 영향 및 정책방향

- 경제위기시 사회적 긴장증가와 폭력과의 연계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위협을 받고 있음. 또한 불안의식은 경쟁의식을 심화시켜고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정폭력도 증가
- 금융위기와 곡물·에너지위기의 영향이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 층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빈곤과 사회취약계층의 이슈를 더욱 심화시킴
- 현 위기대응은 국제기구 주도의 강한 의지와 조율되고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 빈곤계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부분 빈곤계층이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현실을 감안 빈곤계층을 위한 농업 및 농촌발전전략 필요

□ 정책제안

○ (단기대책)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으로 공조된 대규모 재정 지원패키지의 실행
- 빈곤, 소외계층을 보호하기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합된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강화된 정치적 공약(political commitment)

○ (중·장기대책)

- 발전정책의 변경(빈곤퇴치 → 빈곤예방)
-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사회적 보호구조 강화. 사회적 보호를 국가 또는 국제 빈곤경감전략에 포함. 저개발국의 사회보호시스템 지원
- 남-남 교역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키 위한 지역 내 신용완화 이니셔티브지지
- 공공지출의 보건, 교육, 농촌발전, 식량확보, 생산 및 소비에서 에너지 효율강화 부문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녹색사회협약'의 주창 및 채택 가능여부 검토

UN사회발전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의견

- 한국정부는 단기적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 이를 위해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녹색과 뉴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계획
- 동 정책의 수행으로 2012년까지 총 50조원의 재정투입과 약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또한 경기침체국면에 임하면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아우르는 G-20중심의 국제공조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
-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 미래 준비측면에서 구조조정 가속화, 미래인력양성, 노사관계혁신, 한국형 녹색뉴딜정책 추진, 공공기관선진화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
-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신기술 산업확대, 신성장산업 확대, 녹색산업 성장,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역량 극대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해 2009년 과제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노사관계 혁신, 일자리 지키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대를 선정 추진

□ Comments

-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its policy initiatives to cope with the short-term economic recession and create new jobs by securing mid and long-term growth engines for the Korean economy. For this, it will select & implement 9 core tasks through which it will pursue "green and new deal" to gain potential growth engines and create new jobs at the same time.
-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vest 50 trillion won by 2012 to create 960,000 jobs.
- Facing on economic rece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its stance involving the need for preemptive, decisive and sufficient policy responses and the need to preserve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communities G-20.
- According to its risk management perspective, the Korean government will expand liquidity supply to the market, implement early fiscal spending, maintain current jobs while creating new jobs, expand the economic and social safety net and continue its reform regulations.
- Preparing for its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will push forward with its initiatives on restructuring, nurturing future talents, innovations on labor -management relations, implementing "green new deal policy", advancing public institution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 order to revitalize its sluggish economy,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new technology industry, new growth industry, green industry, overseas markets and enhance its competencies in overseas businesses.
- To achieve its policy goal, it will push its core tasks such as keep a surplus of current accounts, innovate labor-management relations, secure current jobs, implement early fiscal spending to recover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expand the economic and social safety net for the disadvantaged groups in our society.

5) 국제 금융 협치(Governance)

-런던 G20 정상회담-

□ 아젠다

- 본 이벤트의 목적은 4월2일열릴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영국의 고위공무원과 미국, 캐나다, 영국의 전문가들이 의견교환임
- 이 이벤트는 Chatham House Rule(어떤 사람의 관점에 귀속되지 않음)

□ 고든브라운 세션

- 고든브라운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해법이 필요한 전세계적인 문제임
- 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방향(은행붕괴저지, 금융·재정정책 추진, 사업과 저당자금의 회복, 수출촉진과 투자선행 성장)으로 노력
- 국제적으로 G-20은 은행자금재구성, 재정 및 금융자극, 개도국의 금융공급의 재개 등의 문제에 직면, 보호주의에 대한 위험을 상기
- 국제기구들은 철저한 개혁이 필요, IMF 및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은 역할강화
- 현재 4가지(전세계적 수준에서 금융감독, 환경, 에너지, 불평등)커다란 도전에 직면, G-20은 가장넓은 가능한 그룹임,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지적

□ 거시 주제 - G-20 정상회담은 다섯가지 주요이슈를 다루어야함

- 선진국과 선진개도국(surplus EMEs)에서 협조적인 재정·금융정책 등
- 위기방지와 신뢰정착을 위한 국가·국제금융시스템의 규제·감독의 도입
- 커져가는 보호주의자의 위협에 대응
- 개도국에서의 급격한 경기위축, 해고 등을 저지
- 국제적인 금융제도 개혁과정 시작
- 새로운 미국정부의 입장의 미공지

□ 세션1 : IMF 자원과 협치개혁

- IMF가 직면한 주요문제의 공유된 이해
 - 불충분한 자원, IMF에 출자하지 않으려하며 장래에도 자기보험을 위해 초과수입금을 운영하려는 개도국의 증후, 감독능력 및 신뢰의 결핍
- 제안
 - 개도국과 빈국들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타협안 개발, 2500억불에 달하는 일반적 특별인출권 할당을 가난한 국가에 제공, IMF(세계은행)의 리더쉽 성출개혁의 발표, IMF 이사회와 관리책임증대

□ 세션2 : 금융 감독, 규제, 감시 개혁

- 2008년 11월 G-20 정상회담의 워싱턴 액션플랜에 나타난 47개 활동은 방향설정이 올바름을 이사회 합의. 토론은 남은 과제에 초점이 맞춰짐
 -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국가들을 어떻게 세계감시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 현존하는 기구의 규제역량 강화, 금융안정포럼(FSF)의 대표성 확대와 IMF와의 관계를 공고히, 감독대학의 아이디어 착수
 - 규제경계선의 한정, 인센티브관리 개혁, 금융보호주의 성향의 저지

□ 세션3 : 월드뱅크 개혁

- 이사회합의 내용
 -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는 2009년 동안 거대한 세계경제위기에 직면
 -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의 세계경제후퇴 영향을 완충
 -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은 빠른 반응이 필요, 세계은행의 운영개혁이 더욱 필요
- 특별한 제안과 관심
 - 아시아개발은행은 자본금의 확충필요
 - 선지불과 추가자금 없는 대출의 확대의 위험성 고려필요
 - 세계은행 경영개혁을 위한 중대한 제안은 토의에 붙임, 유럽연합, UN 등의 역할 고려

□ 세션4 : G's 회원국의 역할 및 미래

- G7-8으로는 세계를 조정할 수 없고, 어떤 통치체제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합의가 없으며, 금번 런던 정상회담은 G-20에 기초하였고, 미국의 지위는 중요하나 현재 알려지지 않음
- 다음 이슈가 논의됨
 - G-20은 정상회담 개혁을 위한 좋은 중간단계
 - 경제이슈에 집중된 반면 환경 및 다른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어야 함
 - G-20 사무국은 지술적인 지원제공
 - 2010년은 g중요한 도전이자 기회임

□ 세션5 : 이슈, 요구, 격차의 결론적 개관

- 광범위한 범위의 토론
 - 경제위기시 국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수행
 - IMF의 자원을 확장, 개발국가의 경기후퇴 충격 완화
 - 세계경제의 중심이동을 반영하는 국제기구 경영의 변화필요

6) 매일 캐나다 통계

2008.12.16. 발행

□ 월간 제조업조사 (2008.10. 보도)

- 10월 제조업판매는 전월보다 0.5% 감소한 \$515억, 3개월 연속하락
- 주로 석유류제품 가격하락(13.5%) 및 미달러 환율하락에 기인
 - 가격하락으로 인해 석유류제품 판매액은 7.3% 감소
 - 지역별로는 Alberta주(6.8%)의 감소폭이 최대로 나타남
 - 한편, 운송장비업은 항공기 및 부품(23.7%)의 호조로 2.3% 증가

□ 국민 대차대조계정(2008. 3분기중)

- 주식폭락으로 가계순자산의 3.2%(\$1,910억) 감소
 - 아시아 금융위기 때인 1998년 3분기 이래 최대낙폭 기록
 - * 같은 기간 미국의 가계순자산은 4.7% 감소
 - 주로 가계 보유주식의 손실과 연금보험 자산가치 하락에 기인
 - * 3분기중 캐나다 주식시장은 18% 이상 하락
- 개인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채무 대 자기자본 비율도 증가
- GDP 대비 정부순채무는 소폭 감소한 35% 수준
- 견조한 해외직접투자(FDI)로 인해 대외순채무 감소
 - 국가순자산은 3.3% 증가

7) 네덜란드 가구의 금융자산 손실

□ 2008. 1~3분기중 네덜란드 가구 유례없는 자산손실 겪음

- 주로 주식 및 채권가격 폭락, 연기금 및 보험사의 투자가치 하락에 기 인하여 가계자산 가치가 1,520억 유로 감소
 - 2007년말 대비 주식은 430억 유로, 채권은 30억 유로 하락
 - 연기금 및 보험 평가액도 940억 유로 감소

8) 호주국민계정: 금융계정(2008년 3/4분기)

□ 비금융회사

- (요약) 사적비금융회사는 8658억불 차용, 10,513억불어치의 증권 발행, 국가 공적부문 비금융회사의 총부채는 8억불 감소
- (사적부문비금융회사의 채무 대 자기자본비율) 원 채무 대 자기자본비 율은 0.82에서 1.02로 증가

□ 금융회사

- (요약) 강화된 원칙에 기반하여 금융회사는 418억불 부채거래 실시
- (은행) 금융자산거래는 순566억불, 부채거래는 753억불
- (기타예금회사)순부채거래는 11억불
- (생명보험회사)금융자산은 2346억불(전기대비 75억불감소)
- (연기금)보유주식은 10,285억불(전기대비 474억불감소)
- (기타보험회사)금융자산은 2억불
- (*Central borrowing authorities)총부채는 1596억불, 부채증권발행을 28억불 의 채권과 채무 확인서 51억불 발행
 - * 공공 및 준공공기관 등에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정부에 의해 설립

- (*Financial intermediaries not elsewhere classified(n.e.c))순부채 4248억불, 순채권이행 147억불과 채무 확인서 26억불 발행
* 금융사업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기구들로 구성
- (순 통화량(flow)과 은행예금)은행의 통화부채와 예금부채의 거래는 494억달러
- (연기금과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생명보험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1504억불 보유, 연기금은 5073억불 보유
- (금융청구)가구는 연기금에 10,285억불과 생명보험회사에 589억불을 청구

□ 일반정부

- (요약)연결된 일반정부의 거래는 순금융자금 38억불의 과부족하고 국가정부의 순 자금과부족은 60억불이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금융자산의 거래는 2억불
- (국가정부의 부채증권발행) 그래프는 순만기채권이 30억불

□ 가구

- (요약)금융자금의 과부족 상태가 105억불이고 주식41억불을 팔았으며, 가계금융자산은 22,173억불
- (가구의 유동자산대 부채비율)115억달러 차입, 전분기대비 3%상승 (2008년 3/4분기 146.9%)
- (보험과 연금청구)가구의 연기금에 저축된 증권 순474억불 감소

□ 기타

- (요약) 비거주자는 호주금융자산을 354억불 순거래 하였고, 호주거주자는 외국금융자산 247억불을 순거래
- (증권 및 채권 순구입)비거주자는 145억불의 주식을 구입, 179억불의 채권을 팔았음

호주 국민계정에 대한 의견

- As the global economy has fallen into a recession, the real economy has been shrinking faster than expected. Economic forecasts such as growth and employment down; refer to the table

| | 2009 Forecast |
|---------------------------|-----------------|
| Economic Growth (%) | Around -2 |
| Employment (thousand) | Around -200 |
| Current Account (billion) | Around 13 |
| Consumer Prices (%) | Upper half of 2 |

- 우리나라와 호주의 제도적 차이로 금융기관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으나,
 - Asset of banks were \$1103b during the September quarter('07년 12월 보다 17.95%증가), Capital adequacy were \$72.4b('07년 12월보다 0.05%감소), current net income were 5.7억불('07년 3/4분기보다 37.38% 감소), Capital adequacy ratio were 10.98('07년 12월보다 12.37)
 - The total asset of life insurance corporations were 224.2b(전기대비 1.49%증가), The total debt were 210.9b(전기대비 2.25%증가)
- Guarantees for viable corporations suffering from temporary liquidity shortages will be largely expanded. Foreign currency liquidity will continuously be provided to support export/import financing and to stabilize foreign currency markets. Banks will be provided with sufficient liquidity, and non performing loans will be purchased. Restructuring regulations including taxation will be revised to facilitate restructuring.
- 2009년 6월까지 국내은행의 신규 및 차환용 외화차입을 3년간 지급보증 실시

9) 금융 거시건전성 분석 지표

“유럽중앙은행과 IMF의 금융 거시건전성 지표와 두 방법론 비교”

□ 개요

-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금융안정성 측정을 위한 정량적 틀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틀은 과거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분석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분석에 이용
- ECB/BSC(유럽중앙은행/은행감독위원회)의 MPI 및 IMF의 FSI는 대표적인 금융건전성측정치표로 2008년 IMF가 FSI 작성가이드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두 지표간 격차가 줄어들

*MPI macro-prudential indicator, FSI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

- 많은 국가들이 금융안정성 지표 작성시에 IMF 작성가이드 또는 MPI 사례 (특히 유럽의 경우)를 참조하고 있어, 두 지표의 개념과 방법론, 목적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국가 상황에 적합한 지표와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ECB/BSC 금융 거시건전성 지표(MPI)

○ 개요

- 금융 안정성 정의 : 금융중개기관, 시장, 시장인프라로 구성된 금융시스템이 금융 충격과 불균형을 극복하고, 금융중개과정의 붕괴와 같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
- ECB/BSC 금융안정성 분석에서 은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국가수준의 총계 작성을 위한 개별은행 감독 데이터도 포함
- 지리적 범위, 통합접근법, 감독기준과의 부합측면에서 본MPI

▪ **지리적 범위 :**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 대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 국가 차원의 단일 EU시장에 관한 금융안정성 분석이 주를 이룸

▪ **통합접근법 :**

모든 부문이 대칭적, 개별적으로 취급되는 거시경제 분석과는 달리, (예를 들어, 금융중개기관간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는 양 기관 대차대조표에 모두 기재) 금융안정성 분석에서는 금융시스템 간 연결고리 파악이 가장 중요. 이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금융부문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에 기인하며 이러한 위험기반의 통합적 접근법은 개별 금융그룹과 관련된 모든 위험 확인과 측정이 필요하나, 금융시스템 각 부문의 취약성과 위험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

▪ **감독기준(Basel II)과 부합 측면 :**

이는 국경과 금융 부문을 초월한 데이터간 연계가 필요하며, ECB/BSC는 Basel II를 적용하여 금융부문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금융 데이터간 유사성 향상으로 EU 혹은 유로지역 MPI 총계 신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는 후행적인 MPI-현재와 과거 금융여건 진단-를 개선하여 미래 금융 상황 추계가 가능한 선행적 지표 개발로 나아가고 있음

○ **후행적 MPI**

- 금융부문 MPIs; BSSR(금융부문 안정성 보고서) 통계부록에서 상세 내용 참조가 가능하며, 금융부문 대차대조표, 수익성, 규제자본 등 연결금융 자료(CBD) 포함
- 초기에는 은행 규모별로 분류- 소/중/대- 하여 MPI 공표하였으나 (2004), 이후 국제회계기준-IAS, IFRS, Basel II-을데이터 정의와 총계 절차에 적용
- 유럽은행감독관위원회(CEBS)는 2005년 IAS/IFRS에 상응하는 연결금융계정 표준금융보고체계(FINREP)을 공표하여 은행감독 보고체계 합리성 증가

- IAS/IFRS 적용으로 금융기관 데이터의 비교성과 통일성을 향상시킴을 인식함과 동시에 계정 개발이 은행 규제자본의 품질과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인지 (계정 데이터가 건전성 분석의 기본이 되므로, IAS/IFRS 이행으로 인해 은행 자금 및 지급능력비율과 같은 수치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CEBS는 국가별 관리감독기관이 IAS/IFRS 적용 시에 적절한 여과 (filtering) 절차를 취하도록 권고

□ IMF 금융건전성 지표(FSI) 작성 가이드

○ 방법론과 정의

- 분석 틀
 - 방법론 틀 : SNA93, MFSM(IMF 경제통계 매뉴얼), IAS/IFRS, Basel I
 - 범위 : 전체 경제부문 대상
 - 구성 : 개념 틀(금융기관과 시장 정의, 회계원칙, 부문별 재무제표, 총계작성 등) FSI 산출방법(예금기관/금융/부동산 등 부문별) FSI 공표방법, FSI 분석기법 등
 - * FSI는 국가경제를 예금기관/기타금융회사/비금융회사/가구 등 4대 부문으로 구분하며 금융 건전성 측정 시 금융부문 뿐 아니라 기업과 가구부문도 포함
- 핵심 FSI :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된 12개 지표
- 권장 FSI : 예금기관/비예금 기관/시장 관련 부가지표

□ 두 방법론 비교

○ MPI/FSI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목적: 금융부문의 탄력성 분석을 위한 정량적 지표 산출
 - 측정범위 : 자기자본,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등
 - 회계기준, 기관범위, 지표산출 등 기타 작성방법론

- 차이점

- 유럽국가의 경우, 보고 부담경감을 위해 은행부문 MPI/FSI간 간극을 좁히는 것에 중점을 둠
- 개념 격차

| IMF FSI | ECB/BSC MPI |
|---|---|
| 감독 및 회계기준(Basel I&II, IAS/IFRS)-통계기준 순으로 적용 | 통계와 지표작성을 우선시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회계원칙 및 Basel I&II 참조 및 적용 |
| 다양한 경제부문 지표 연계 강조 | 금융부문에 집중 |
| IMF FSI 작성가이드- 회원국간 경제 시스템 격차, 금융안정성 분석틀의 취약성을 극복 | FINREP/COREP(금융보고 기본 틀) 유럽은 단일통화 및 경제체제로 격차 극복보다는 통합계정, 지급능력 공시요건 등 자료 통합에 초점 |

▪ 방법론과 통계사례로 본 격차

| | IMF FSI (2008 개정 이후) | ECB/BSC MPI |
|--------------|----------------------------|---|
| 주기 | 분기 | 연간 |
| 적시성 | 기준일로부터 1분기 후 | 기준일로부터 5-7개월 후 |
| 메타데이터 공표 | 있음 | 없음 |
| 지표 산출 | 국가 수준 | EU 및 국가 수준 |
| 회계 기준 | 제한적공표 | EU지침에 따른 감독 실무 및 IAS/IFRS, 공표하지 않음 |
| 연결(또는 통합) 기준 | DCCBS, CBCSDI | DCCBS |
| IAS/IFRS와 일치 | 주요편차 조정 (대손충당금 계정 등) | 주요편차 조정(연결범위 등) |
| 은행 규모별 작성 | FSI 총계만 작성 | 은행 규모별 MPI 작성 |
| 지표 작성 격차 | 유동자산비율의 경우 개정으로 인해 MPI에 근접 | ROE, ROA, 유동자산비율, 총차입금 대비 고객예탁금, 총 수익 중 비이자 수익 비율 등 |

○ 향후 계획

- FSI

- CCE 회원국 모두 FSI 집계
- FSI지표, IMF 세계금융안정성보고서 통계부록으로 수록
- FSI 집계 기관간 관련 개념, 정의, 기본 틀 일치

- MPI

- 은행데이터 통합- 미시 건전성(micro-prudential) 데이터 총계 작성
- FINREP(금융보고 틀) 채택으로 주기적 자료 비교
- 자료수집을 위한 법률적 지원 확보

- 일치(또는 통합) 가이드

- 예금기관의 경우, IMF는 DCCBS/CBCSDI를 권장하는 반면, 국가들은 DCCB/DC 기반을 선호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지침이 필요

- 지표 조정

- . ROE/ROA : 유럽은행은 세금과 특별항목 공제 후 집계하며, IMF는 세금과 특별항목 공제 이전의 소득으로 계산
- 자산건전성지표 : 대출채권 유동화 등 신용과생상품 증가로 미상환 대출금 관련 지표 분석 의미가 미미해져 관련지표의 조정 필요
-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OFC(기타금융회사- 헤지펀드, 보험회사, 연금기금 등) 관련 추가지표 필요
- 기타, 메타 데이터 공표는 IMF에 수렴하여야.(현재, ECB/BSC는 공표하지 않음)

Comments on the ECB and IMF Indicators

< Regarding DCCB approach ; p.23-24 >

1. In the Asian-crisis, the capital inflows were not decided upon by government as a matter of public policy, but rather by the private banks and firms themselves. In this regard, the DCCB approach that encompasses the activity of a parent bank and all its branches and subsidiaries worldwide is useful for monitoring the magnitudes and conditions of the capital inflows.

< Regarding ECB/BSC approach ; p.32-33 >

2. I think that the recent financial crisis of Emerging European countries is similar to that of the Asian crisis of 1997-1998. I heard from news that serious levels of non-performing loans throughout East European countries came from the banks of West European countries. In this regard, from a prudential point of view, I think the ECB/BSC approach, focused on risks developing within the financial system, has the limit itself to take into account all risks facing the financial sector, even though considering the time lag to collect data.

< Regarding derivatives ; p.27 >

3. Many banks deal in derivatives, but the number of senior managers who clearly understand derivatives often is few. Recent financial crisis may come from the risks of derivatives. The risks of derivatives are too serious to leave entirely to the traders. Derivatives, used as an indicators for MPIS and FSIs are too simply indicated. (Please see Table 4, page 27). I think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the category of derivatives in order to monitor the

reality of derivatives markets. Well-understood risks need to be diversify.

< Regarding FSI ; p.22 >

4. As we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financial crisis, a number of opinions have emerged, each differing in what it considers the essential source of the problem. It is some what like the story of the blind men trying to describe an elephant. Each of countries, experienced the crises, was different and had its own mix of problems and opportunities. But statistics shows us some common threads such as currency overvaluation, illiquidity, troubled banks. In this context,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cross-country comparability of FSI, based on statistical and supervisory data has been improved.

< Regarding the indicators of FSIs and MPIS >

5. The common preconditions for financial crises such as crises occurred in South American countries in 1980s and Asian countries in 1990s seem to be following.

- 1)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years before the crisis.
- 2) A fixed or partially fixed exchange rate policy.
- 3) Large, optimistic capital inflows in the years before the crisis, some of which are withdrawn during the crisis.
- 4) Underlying weaknesses in domestic banks and firms that mount in the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crisis.

Many indicators of FSIs and MPIS include items to forecast the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indicators have not properly worked forecast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even though the analysts did not

catch up with the core meaning of the statistics. Therefore I think more accurate warning indicators need to be included in the indicators of FSIs and MPIs.

< Regard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

6. We have learned a great deal from the crises of the late 1990s. Most fundamentally, we have learned that a house built on weak foundations is vulnerable. Storms come and go in financial markets and real economies as they do in nature, but storms usually knock down only those houses that are built on weak foundations. The lessons of the financial crises must be learned because it has become too expensive to ignore them. Those who do not reform their financial systems are likely to have more losses and bank crises in the future. A great deal already has been learned and I think that the world economy will be stronger in the future than it has been in the past.

10) 스티글리츠 보고서

2008. 4. 22-23, 파리

□ 서론

- 프랑스 대통령은 각종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통계적 척도와 체감지표 간 갭이 크며 대안모색을 위해 동 위원회를 결성
 - 프랑스, 미국을 선택하여 대안지표 산출 및 방법론 검증
- 실무그룹의 활동방향은 i) 전통적인 GDP 관련 문제, ii)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 iii) 삶의 질 등에 초점을 맞춤

□ 전통적인 GDP 관련 문제

- GDP는 시장생산과 경제활동의 척도이지, 복지척도가 아님
- 포괄적인 복지척도가 되기 위해 조정 및 고려할 사항
 - 녹색 GDP 또는 NDP(국내순생산) : GDP는 자본재의 감가상각, 천연자원 고갈, 환경악화 등이 미반영되어 과대평가 경향
 - GDP에 해외이전을 보완한 NNI(국민순소득)
 -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대신 가구당 중위소득 권장
 - 정부 서비스(교육, 보건) 등 비시장거래 서비스부문의 물량 및 가격 측정시 투입기반 대신 산출된 품질기반 척도 개발
 - 무임금 가사서비스 및 여가활동을 국민계정 및 소득에 포함
 - 국방 및 사회보장 지출을 가처분소득에 반영

□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

- 경제활동에 따른 자원의 최적사용 및 환경보호
 - Brundtland 보고서(1987) 이후 최근의 OECD 세계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보편화

- '녹색 GDP', '통합 환경-경제계정 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
- 그러나 현재까지 보편적인 지표체계에 대한 합의 미도달
- 현재의 복지와 지속가능성은 다른 개념
 - 현재의 소비와 복지수준이 높다고 미래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비를 줄여야 지속가능성이 달성될 수도 있음
- 환경이 현재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필요
 - 각종 환경변수(공기, 물 등)가 복지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생산비, 건강 등)을 계량화
- 미래의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한 노력
 - World Bank의 NAS : 현재수준의 복지를 미래에 유지하려면 NAS가 양수여야 함
 - * NAS (Net Adjusted Savings 순조정 저축 : 자원소모량과 CO₂배출 손해를 제외한 순저축)
 - 생태학적 발자취 지표(ecological footprint index) : 각국의 소비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 삶의 질 구성요소
 - 주관적 요소 : 긍정적/부정적 감정 및 삶에 대한 가치판단
 - 객관적 요소 : 건강, 영양, 능력 등 삶을 영위하는 기능적 측면
- 삶의 질 결정인자
 - 개인의 일상활동 : 근로, 통근, 수면, 여가 등
 -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인 : 자연, 물리 및 사회·제도적 환경

- 목적 : 삶의 질 구성요소와 인자를 측정할 지표 설계
 - 특정 부문별로 삶의 질 지표 파악(예. 키와 영양의 상관성)
 - 측정방법(예. 행정자료와 주관적 조사를 통한 범죄피해 조사)
 -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 파악(인프라, 작성기법 등)
- 그 외 고려사항
 - 각 분야별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사회전체의 평균상태 보다 개인간 차이를 주목할 필요
 - 상이한 조합의 지표를 통합한 종합 QoL지표 개발

11) 유로지역 국제수지와 국제투자 대조표

- 유로지역의 2008년 3분기 경상수지는 127억 유로 적자 대부분 비유럽 지역과의 교역에서 나타남.
- 자본수지는 670억 유로 흑자, 직접투자는 430억 유로 적자로 대부분 미국과 영국으로의 투자에 주로 기인
- 증권투자는 1,100억 유로 흑자로 유로지역 투자자의 외국증권 매도(640억)와 비거주자의 유로증권 구입(460억)에 주로 기인
- 계절조정전 국제수지는 127억 유로 적자로 경상이전수지 235억 유로, 상품수지 67억 유로 적자에 주로 기인하며 서비스 수지 153억 유로, 소득수지 19억 유로 흑자로 상세
 - 최대 상품수지 적자 상대는 중국(321억), 러시아(95억), 흑자는 영국(152억)과 미국(130억)이며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 상대는 영국(103억)
 - 소득수지는 EU이외 지역(111억), 2004년 이후 EU 가입국(45억) 흑자이며 일본(62억), 영국(42억), 스위스(33억)는 적자
 - 경상이전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 상대는 주로 EU 기구(129억, 38억)
 - 4분기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359억 유로를 기록, 이는 유로지역 GDP의 0.4% 수준으로 전년 동기 491억 유로 흑자와 대비
 - 상품수지 흑자 642억에서 100억 유로로 감소, 소득수지 151억 흑자에서 105억으로 감소, 경상이전수지가 806억에서 879억 유로로 감소한 것에 기인
 - 기타투자는 260억 유로 순유출을 기록, 해외자본센터(450억)와 미국(260억)에 투자
 - 4분기 누적 자본수지 적자는 250억 유로로 전년 동기 166억 유로 흑자와 대비되는데 증권투자수지 흑자가 342억에서 151억 유로로 감소한 것에 기인
- '08년 3분기 국자투자대조표는 1.2조 순 부채를 기록하였는데 유로지역 GDP의 13% 수준으로 -330억 유로의 개정치를 포함

12) ECB (유럽중앙은행) 금융재정 통계생산계획

Werner Bier (ECB 부국장)

○ 배경

- 최선의 경제금융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시의성 있는 일관된 통계자료가 필요
- 세계화 진전에 따라 시의성 있는 세계통계자료의 필요성 증대(예 : 분기GDP)
- 통합통계는 통합된 통계생산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가능

○ ECB통계의 법적 근거 : ECB법률, EU통계국과의 MOU

○ 개발목적 : 금융정책 지원, 자금보증결제 및 재정안정화 도모

○ 유럽회계시스템(ESA)의 틀안에서 금융재정통계가 마련될 것임

○ 중앙보안DB(CSDB)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이중보안장치 마련

○ 중앙은행유럽시스템(ESCB)과 유럽통계시스템(ESS)간 긴밀히 협조

○ EU장관들에 의해 도입된 경제금융노조의 필요정보에 대한 연간보고서 작성

○ 분기별 유럽지역의 통합회계의 공동마련(재무제표, 거래 등)

○ 분기별 국제수지지표(BOP)의 공동작성

○ 빌딩블록(building-block)접근법 사용(또는 주요통계의 수직통합방법)

※ 빌딩블록 : 생체 고분자의 구성단위로 되는 분자 생체 단위체

○ 국가간 공동의 사업체등록증(business register) 개발 등

[No.12] ECB 계획에 대한 의견

- 경기침체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 공동의 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경제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ECB (유럽중앙은행)의 유럽지역의 금융재정 통계생산 계획을 찬성함

(To harmoniously and effectively cope with the worldwide problems such as an economic recession and climate change, I think we need to develop new global economic indicators and therefore I agree with the ECB's initiatives for developing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for the euro area.)

금융위기 대응방향관련 의견(Economic Crisis and Key policies)

□ Current economic situation

- As the global economy has fallen into a recession, the real economy has been shrinking faster than expected. Economic forecasts such as growth and employment revised down; refer to the table.

* A quarter-on-quarter fall of 5.6 percent in GDP in the fourth quarter in 2008

<2009 forecast>

| | Original Forecast | Revised Forecast |
|---------------------------|-------------------|------------------|
| Economic Growth (%) | Around 3 | Around -2 |
| Employment (thousand) | More than 100 | Around -200 |
| Current Account (billion) | More than 10 | Around 13 |
| Consumer Prices (%) | Around 3 | Upper half of 2 |

- A lot of measures will be taken to turn growth into a positive one: earlier planning of supplementary budget,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hich will bring practical results, basic livelihood support for the newly impoverished.
- Supplementary budget for job creation and basic livelihood support
 - The supplementary budget will be large enough to support domestic consumption,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an economic turnaround.
 - The supplementary budget will support projects to create jobs, and to help low income families, SMEs, self employed and exporters. To ensure fiscal soundness in the long term, the budget will support carefully selected temporary projects at earlier dates.
 - The supplementary budget plan will be completed in February,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end of March.

More guarantees to ease credit crunch

- Guarantees for viable corporations suffering from temporary liquidity shortages will be largely expanded. Foreign currency liquidity will continuously be provided to support export/import financing and to stabilize foreign currency markets.

Strengthened efforts to maintain and share jobs

- The feasibility of existing policies aimed at job creation will be secured, and regulations on job markets will be revised: regulations on contract workers and minimum wages, and other labor market related regulations. To encourage current level of employment, labor expenses support will be given to firms through low interest rate loans for a limited period. SMEs will be encouraged to employ young adults, and minorities will have government assistance which helps them employed through employment promotion aid.
- Strengthened social safety net and support for the newly impoverished Social safety nets such as food, housing and education will be strengthened.

Support for the more competitive service sector

- Deregulations on service industries such as those on medical and education services will be pursued: private investment will be allowed in the medical industry to help make the industry more competitive and advanced.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run their businesses in Korea.
- Existing growth engines including 'green growth' will also receive steady support.

□ Effective restructuring in a practical sense

Corporate restructuring will be carried out in a practical manner, and regulations to screen financial risks will be established. Corporate restructuring will be carried out with lender groups. Along with individual corporate restructuring, macroeconomic and strategic restructuring will be pursued in connection with industrial policies. Banks will be provided with sufficient liquidity, and non performing loans will be purchased. Restructuring regulations including taxation will be revised to facilitate restructuring.

금융위기와 공식통계관련 의견

□ 금융위기의 영향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이 필요
 - 한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질 좋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또한 저탄소 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아젠더인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 동참하면서 고효율·친환경의 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통계를 주요 국가통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제도화 및 역량 확보
 - 기후변화 관련 통계는 환경, 에너지, 인구, 거시경제통계 등과 관련된 종합통계로서 여러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됨
 - 이제까지 통계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통계를 수동적으로 대응

□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적극적 동참

- 전 세계적인 식량 및 에너지자원의 부족, 수자원(물)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가통계 구축 필요
 - 국제적인 통계 기준 및 분류 등의 미흡으로 국제비교 및 국내의 근거에 기반한 정책대응에 미흡
 -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통계가 필요
- 각국 통계청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국가통계로서 제도화 필요

□ 제안

-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처하기 위한 대륙별 주요통계기관장 협의체 및 워킹그룹 구성
- 한국통계청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교육,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Financial Crisis and Official Statistics

□ Influencing the financial crisis

- Korea is in need for new paradigms and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lowing economy.
 -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which is being joined by major economic groups including corporations and citizens. These actions will consecutively bring 'high quality growth' and 'new job creation', which will help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take part in efforts to solve climate change through its on-going agenda, of low carbon policy.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s looking to build up a highly-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society.
-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need to institutionalize and secure the capacity for statistics on climate change on both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order for these statistics to position themselves as major official statistics.
 - The statistics on climate change are relat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environment, energy, population and macroeconomic statistics, and therefore, the statistics are connected to a mix of agencies in various fields.

- **Until now, the statistics-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statistics offices have been passively dealing with the statistics on climate change.**

Acting on major global agenda

- We need to develop internationally comparable national statistics to tackle the global food, energy and water shortages.
-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lassifications for these statistics, policy plans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isons as well as national evidence are far from satisfactory.
- In particular, we need structured national statistics on water supplies and demands in order to deal with global water shortage which is occurring due to global warming and earth shock.
-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need to collaborate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institutionalise as national statistics.

Proposal

- To set up, for each continents, working groups and cooperation committees organized of heads of major statistical organisations in order to deal with major global agenda.
-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ill actively take part and do its utmost to cultivate and train human resources and raise the necessary budget.

나.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 의제 요약 및 코멘트

| No | 제 목 |
|----|--------------------------|
| 1 | 프로그램 리뷰 :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
| 2 | 농업통계 |
| 3 | 에너지 통계 |
| 4 | 환경경제계정 |
| 5 | 국민계정 |
| 6 | 사회통계 |
| 7 | 보건통계 |
| 8 | 교육통계 |
| 9 | 고용통계 |
| 10 | 성인지 통계 |
| 11 | 국제비교프로그램(ICP) |
| 12 | 아태지역 통계발전 |
| 13 | 개발지표 |
| 14 | 인구주택총조사 |
| 15 | 사업체등록부 |
| 16 | ICT통계 |
| 17 | 물가통계 |
| 18 | 통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 |
| 19 | 통계역량구축 |
| 20 | PARIS21 |
| 21 | 자료 및 메타자료 공유 및 교환에 관한 표준 |
| 22 | 인간주거통계 |

(세부자료는 <http://unstats.un.org/unsd/statcom/sc2009.htm> 참조)

1) 기후변화와 공식 통계

“기후변화와 공식통계에 관한 호주통계청 리포트”

□ 개요 및 배경

- 기후변화가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를 측정, 분석함이 국가 통계기관의 책임으로 대두. 39차 통계위원회 요청에 따라 호주통계청은 공식통계의 기후변화 기여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
-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회의(2008. 4. 14-16, 노르웨이, 오슬로)
 - 55개국 참석, 기후변화 정책 및 감독을 위한 공식통계 이용 증대 합의
- 기후변화와 발전, 공식통계 회의 (2008. 12. 대한민국, 서울)
 - 관련 권고안 작성 논의

□ 검토 목적

- 기후변화 측정과 분석을 위해 공식통계 이용방법 확인
- 기후변화 통계의 공식통계 편입과 국가통계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권고안, 행동 논의

□ 과학과 정책 프레임워크

- **IPCC(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 기후변화 관련 과학 정보제공
 - 인구, 경제성장, 에너지 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저감 평가 보고서 작성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 국제환경조약으로 192개국 가입. 법적제약 없음
 - 온실가스 배출량추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완화 및 적응 정보 등 보고

○ **Koyto Protocol(교토 의정서)**

-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관해 법적 효력 있음
-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JI) 실시

○ 교토 의정서 이후 기후변화 완화, 적응,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행동계획

□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역할**

- 기후변화 평가, 정책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
- 통계기준 개발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준 공표
-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파악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보통합 틀 개발
- 기존 통계의 효율적 이용, 격차 확인 등 국가통계기관의 적극적 참여 모색
- 기후변화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영향 평가를 위한 공식통계 안팎의 자료 연계

□ **기후변화 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 공식통계 역할강화 권고안**

○ **기후변화 관련 통계의 공식통계 편입**

- 권고안 1 : 관련 국제통계기준 및 분류가 토지이용, 토지피복 및 에너지 통계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충분히 반영

○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공식통계 역할 강화**

- 2 :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시 국가통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식통계 일부로서 온실가스 배출통계 품질을 개선한다. UNFCCC와 공동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배출통계 및 관련 분류를 조사
- 2-1 :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의 유용성, 품질, 적시성은 고품질 공식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선
- 2-2 : 배출량 산출단계에서 공식통계 및 국가통계기관의 역할을 강화
- 2-3 : UNFCCC 공식보고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통계기관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 공표

- 2-4 : 유엔통계위원회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지식기반을 개발하며, 국제분류 기준을 위해 UNFCCC와 협력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매커니즘 지표 개발

- 3 : 완화 매커니즘과 전략 지원을 위해 통계분석 관련 모범사례 공유 및 새로운 통계 개발
- 4 : 핵심 거시경제 통계 작성 시 배출권 거래제도 및 완화 매커니즘 고려
- 4-1 : IWGNA(국민계정 통합실무그룹)은 배출권 거래 및 완화가 국민계정 및 핵심 거시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계정 체계 개정 및 설명자료 필요성 점검
필요할 경우, 이러한 개정작업을 기타 거시 경제로 확대
- 4-2 : 기타, 관련 통계기준 및 분류 검토
- 5 : 기후변화 분석에 활용 등을 포함한 환경경제체계의 발전 및 이행
- 5-1 : 유엔통계청은 환경경제계정체계를 국제통계기준으로 더욱 발전시켜 기후변화 분석 지원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국가환경에 적합한 기준데이터 및 교육훈련 등을 개발전략에 포함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 평가를 위한 공식통계 모범 사례

- 6 : 기후변화 취약성, 영향, 적응전략 관련 통계분석 모범사례 공유
- 6-1 : 기후변화 취약성, 영향, 적응전략 분석을 위해 지식기반 구축 사례 논의/교환 활성화를 위한 전자 플랫폼 구축
- 7 : 기후변화 공간 분석을 위해 공간정보 기반 및 GIS 활용 독려, 개선
- 7-1 : GIS 및 공간정보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식통계의 공간분석에 활용
공간정보 기반 및 관련 코딩시스템 개발
센서스 기반 GIS 활용 및 환경통계와 관련된 워크숍 개최

○ 공통 권고안

- 8 : 기후변화 관련 통계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 8-1 : IPCC 및 UNFCCC의 과학/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존통계, 격차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
국가 상황에 맞는 지표, 자료항목, 통계표 개발
- 9 : 국가차원의 지표이용 장려 및 지표개발을 위한 통계 전문성 제공
- 9-1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 완화노력 등과 관련된 핵심지표 군 개발
- 9-2 : 국제통계사회는 기후변화 지표 선정에 관한 통계 전문지식 제공
- 10 :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공식통계 이용 장려
- 10-1 : 장려 활동 지원을 위한 훈련교재 작성
- 11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거시경제 영향 등 추정
- 11-1 : 기후변화 영향, 완화, 적응정책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추정모델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 공식통계와 IPCC 평가보고서

- 12 : 기후변화 평가 모델 및 개발 계획을 목적으로 한 공식통계 이용에 관해 IPCC와 논의

○ 협력 및 관리체계

- 13 : 유엔환경경제계정 전문가회의 회원 및 업무권한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통계활동 관할
- 13-1 : UNCEEA 및 부로 회원, 업무권한, 회칙, 명칭 등을 확대 개정하여 UNFCCC, IPCC 등 기후변화 관련 통계 활동 주관

□ 시기 및 우선순위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한 공식통계 이용 개선에 초점을 두어 우선순위 선정

○ 단기

-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및 관련 통계 품질개선을 위해 국가통계기관 역할 강화

- UNFCCC와 공동으로 배출 통계 및 관련 분류 실무그룹 설립
- 토지이용/토지피복 통계 전략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모델링에 사용될 공식통계 개선을 위해 IPCC와 대화창구 개설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 분석을 위해 모범사례 교환 및 논의
- 환경경제계정체계를 더욱 개선 이행하여 국제기준화
- 기후변화 관련 통계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 중기

- 환경 및 기후변화 요소 반영을 위해 부문별 통계/기준 개선사항 파악
- IPCC 5차 평가라운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이용될 관련 통계 개발
- 정부 재정통계 분류의 기후변화 분석 지원 여부 검토
- 자료 항목 및 테이블 및 국가차원의 지표 개발
- GIS 및 공간정보 기반 이용 독려 및 개선
- 기후변화 모델링을 지원하는 최적자료 확인

○ 장기

- 국제표준 개정 전략 이행

- 유엔통계청 및 국가통계기관은 자문위원회 설립과 같은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통계 이용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중단기 전략에 교육훈련, 역량구축, 이행전략 등을 포함

□ 논점

- point 1 : 공식통계 범주에서 기후변화 사업 목표
- point 2 : 권고안 및 사업계획(혹은 행동계획) 제안사항
- point 3 : 지배체제 (혹은 관리체제) 제안사항
- point 4 : 사업시기 및 우선순위

기후변화와 국가통계에 관한 의견

「기후변화와 국가통계에 대한 호주통계청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가통계 수요를 반영하고 각 국 통계청 및 국제통계기구의 미래의 역할강화 분야를 잘 정리하였다.

○ 논점 1

-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국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통계청과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조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의 통계청의 역할 강화는 다른 기관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강화된 국제 및 국내적 협력이 역할 강화 과정에서 요구된다.

○ 논점 2, 3, 4

- 또한 보고서에서는 전체 구조를 상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유사한 제안들로 함께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언 III-VI는 “저감 및 적응 측정과 정책평가 관련통계의 개선”이란 하나의 제언으로 묶고 여기에 보고서에서 언급된 상세 제안과 실행사항이 나열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언 및 실천사항은 실행 책임기관 즉, 국제통계기구와 각 국 통계청에 따라 크게 분류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기관간의 역할이 다름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실천 노력들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령 국제통계기구는 UNFCCC와 함께 전문가그룹 결성, IPCC와의 협의 개시, 국제통계 기준 및 분류 설정 등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각 국 통계청은 새로운 통계 작성 및 개선,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참여 강화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언 I의 기후변화통계 개선 사항에 국제통계 기준 및 분류 뿐만 아니라 개념, 방법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선대상통계는 산업공정, 폐기물 등 온실가스인벤토리의 다른 분야 통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 제언 II에서는 온실가스인벤토리 작성에 있어서의 통계청의 역할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은 국가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나인 품질보증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 실행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인벤토리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강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은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수립 및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계로서 추정 과정이 투명하고, 일치되어야 하며, 비교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국가통계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구축된 체계 하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과 협조가 요구된다.

Comments on Climate Change and Official Statistics

The "Report of the Austrian Bureau of Statistics on Climate Change and Official Statistics" provides insight on the needs for official statistics in climate change issues, and it identifies the future role of NSOs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community.

○ **point 1**

- The objective mentioned in the report suggests that NSOs need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climate change issues. Hence, the cooperation between NSOs and other related institutes as well as international entities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enhancing the role of NSOs in this area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support and collaboration from other agencies. Thus, more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is needed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NSOs.

○ **point 2, 3, 4**

- In the report, man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for helping to understand the entire framework in detail. However, in a sense, they could be grouped by similar recommendations. For instance, recommendation III, IV, V, and VI could be combined together: Develop statistics on measures of mitigation, adaptation and on the assessment of related policies. Detailed actions which are mentioned in the report could be listed under this recommendation.
-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recommendations or actions should be broad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for implementing actions, i.e., inter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 and NSOs. This could be helpful to differentiate the efforts required of different organizations.

-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organization could play a major role in establishing a Working Group with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itiating a dialogue with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ensu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lassification. NSOs c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new statistics and improving current statistics, strengthening the engagement in the compilation of GHG(Greenhouse gas) inventories.
- In respect to recommendation I , concepts and survey methods as well as international statistical standard and classification should be included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statistics. In addition, statistics to be developed should include other sectors in GHG inventories such as industrial process, wastes, etc.
- For recommendation II, it is suggested that a more detailed role of NSOs in GHG inventories should be described. For instance, NSOs could engag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national system such as QA(Quality Assessment) / QC(Quality Control) procedure for ensuring the quality of data.
- With regard to the priorities, a precedence should be placed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NSOs in GHG emission inventories. The reasons behind our position are that GHG emissions and removals are key statistics used in policy making and the assessment of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the estimation procedure needs to be transparent, consistent, comparable and accurate.
- Lastly, we must realize that increasing the role of official statistics and NSOs in climate change issues will not be able to be accomplished within a short time period. Thus, a large amount of effort and collaboration on both a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are necessary within a well-established framework.

2) 농업통계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 구상에 관한 리포트”

□ 개요 및 배경

- Eurostat은 2008년 39차 유엔통계위원회 요청에 따라 농업통계 개선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통계를 수집하였으며 세계은행은 본 자료를 토대로 농업통계 전문가 회의(2008. 10.22-23 개최)에 농업통계 개선전략 프레임워크 개발 보고서를 제출
- 농업통계 개선 전략으로 토지이용 통계 작성 필요성, 국가통계체계로의 편입 및 보건/교육/환경 통계와의 일관성 등을 제시하고 인구센서스, 농업생산 및 토지이용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 기타 자료 수집 방법론 및 통계능력 개발 관련 사항 포함 예정
- FAO(세계농업식량기구) 자체 평가에 따르면, 특히 개도국의 경우 통계 원천 및 원조국 지원 부족으로 농업통계 작성 및 기존통계 분석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FAO 데이터베이스 임퓨테이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개도국의 농업통계 투자 제한 요인과 농업 총조사 타당성, 농업통계 작성 기관의 역할 논의 필요성 강조
 - 아프리카 국가의 70%, OECD 회원국 일부, 아시아 10-16개국 임퓨테이션 발생('07)
 - 밀/쌀 생산통계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임퓨테이션은 줄었으나, 적시성 악화
 - 아프리카 뿐 아니라 미국, 유럽국가 역시 분산통계 체계로, 국가통계 시스템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통계체계의 분산 정도 파악해 볼 필요
- 농업통계 개선 전략은 다음과 같은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논의
 - 농업 및 농촌 개발 평가 보고서 (세계은행, FAO, Global Donor Platform)
 - 농촌가구 생계수단과 웰빙 핸드북 (UNECE, Eurostat, FAO, OECD, 세계은행)
 - FAO 통계프로그램 검토보고서

- PARIS21/아프리카 개발은행 국가통계체계 설계 가이드
- 농업통계 검토보고서 (CES 의장단 제출용)
- 세계은행 생활표준 조사 (농업에 관한 포괄적 조사)

□ 전략 계획 범위

- 농업 기본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
 - 현재 많은 국가에서 양식 및 어업 통계를 농업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써 식량안보 및 빈곤 평가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며, 산림업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이므로 농업통계와 연관 될 필요
- 토지 및 물 이용 데이터
 - 물 부족과 오염,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통계로 토지 이용에 대한 데이터, 관개농업과 강우농업 데이터 수집 필요
- 자료 수집소로서 농가
 - 기존 농업조사는 농업을 산업 활동으로 보아, 농지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MDG 달성 측정을 위해 농가단위 수집 또한 필요
- 기타 농촌 범위(rural dimension)에 대한 정의 등

□ 농업통계 핵심사업 결정 전략

- 국가별, 시기별 관심 사항이 상이하나, 공통성 있고 국가간 비교 가능한 핵심 통계지표 군 설정
- 핵심 데이터 정의
 - 개발정책, 국민계정, 식량안보, MDG평가 지표의 기본 데이터이며, 세계 식량수급, 농가복지, 환경,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데이터 (예: 주요 작물별 수확 면적, 산출 및 생산량, 수확 전 재고, 식품 및 사료 소비량, 농산물 수출입 및 연평균 가격 등)

○ 연간 핵심 데이터항목 표

| 핵심자료 | 표본조사, 총조사, 농가조사 | 기업 | 정부 | 원격탐지(향후) |
|---------------------|------------------------------|---------------------------|--------------------|---|
| 주요곡물 및 당류작물, 종자 | 수확면적, 산출, 생산, 자체 소비 | 재고량 및 식품/사료/ 식용유 가공 | 수출입 규모, 보조금 | 곡물 현황 조기경보, 토지이용과 연계 |
| 섬유- 면, 마 | 수확면적, 산출, 연평균 가격 | 생산/가격별 직조가공 | 수출입 규모, 가격, 보조금 | 곡물 현황 조기경보, 토지이용과 연계 |
| 가축- 소, 양, 염소, 돼지 | 육류/우유/모 생산량, 재고 및 평균가격 | 육류, 우유 가공/가격 | 식품검사, 수출입 | 환경 및 지구온난화 감시를 위해 지리정보를 이용한 토지 이용 |
| 가금 | 계육/계란 생산량, 재고 및 자체소비량 | 계육, 계란 가공/가격 | 식품검사, 수출입 | |
| 어업생산 | 어획량 | 가격 | 보조금/소득지원 | |

□ 국가통계시스템과 통합 필요성

- 위와 같은 핵심 자료 수집이 기관 간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분석자료 산출이 어렵고, 농업정책과 농가/농가빈곤/환경영향 간 연계 파악 어려움
- 국가통계시스템과 농업통계 간 연결고리를 먼저 확인한 후 국가통계 체계 내 통합 방법론 셋 제공

□ 방법론 결정 관점

- 표본 틀 정의
 -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결정, 통상 인구총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
 - 농경지/목초지/산림 등 토지이용 틀 결정을 위해 원격탐지 장치 이용
 - 농가조사 및 소규모 농업조사는 지리정보 지역 구분 틀을 기준으로 실시

- 자료 수집
 - 연간 시계열의 연속성에 주안점
 - 농업 총조사 대신 각종 통계조사 및 표본조사 틀에 농업을 포함
 - 핵심 자료 군 수집 주기(월/분기/연간)가 타 통계와 유사해야 함
 - 시의 적절한 공식통계 및 국가 비밀보호정책 범주 내에서 분석용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 자료 관리
 - 장기적 관점에서 '자료참고 방법론'을 이용한 '단일 마스터 파일'로 각 농가 및 기업이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자료참고에 1회만 등재됨을 의미
 - 이 파일은 표본설계 기준일 뿐 아니라 추계절차에도 이용.

□ 거버넌스 결정 전략

- 거버넌스는 각각 자료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국가수준에서 어떻게 국가통계체계 하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통계위원회 (statistical council)과 같은 통합조직이 없을 경우, 국가통계기관 주관으로 이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농업통계를 포함시킬 필요
- 농업의 국가통계체계로의 편입은 다른 부문에서도 유사한 효과 유발
- 조기경보 및 토지이용 확인을 위한 원격탐지 이용, 다중틀 표본조사, 자료참고기법 등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역 센터 설치를 전략 계획 포함을 권고

□ 유엔통계위원회 상정 권고안

- 2010 인구센서스 라운드는 반드시 농업 관련 항목 포함
- 전략계획은 농업/농촌부문, 토지이용, 물, 환경, 어업, 임업 포함
- 연간 핵심지표 군은 기타 주기의 지표를 보충하고 국가통계체계로 편입
- 편입을 위해 표본 틀, 자료 수집/관리 방법론의 조화 필요

- 국가수준의 관리체계와 농업통계를 관할할 국가통계위원회 설립 필요
- 새로운 방법론 이행을 위한 지역 센터 설립 권고
- 국제 농업통계 성과 평가를 통해 각 국가들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 받음
 - FAO에 보고되는 주요농산물 생산 통계 (최신 연간자료)
 - 인구 센서스의 농업부문 포함 여부 및 수확면적, 생산량, 가축두수 등 주요통계
 - 최근 농가조사 자료
 - 표본 틀, 참조기간, 방법론 개정 및 개정 연도
 - 자료제공 및 수집에서 공표까지 기간
 - 국가통계기관 및 농업통계 관리 부처의 역할 및 국가통계개발전략 진행 관련 정보
- 전략계획은 단계별로 진행, 유엔통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구체적 이행 절차 및 전반적인 계획표 작성
- 기타 2009년 8월 ISI 위성회의에서 전략보고서 배포 예정
- 최종 권고안은 2010 유엔통계위원회에 상정
- 2010 유엔통계위원회 행동 및 전략계획 이행사항 등은 2010 국제 농업 통계 회의 핵심 자료로 활용

농업통계에 관한 의견

○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자료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item 7)

-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항목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
- 농작물 주산지 변화 파악 : 주요 농작물별로 수확면적 조사
- 온실가스 배출 관련 항목
 - 메탄(Methane) : 벼 물 관리(Water regimes during the rice cultivation period)
 -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 재배면적, 비료량(화학비료, 유기비료), 잔사 처리방법(수거, 소각) 등
- 우리나라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구조
 - 배출원 : 논 46.3%, 밭 14.7%, 축산 38.9%
 - 발생가스 : 메탄(CH₄) 68.7%, 아산화질소(N₂O) 31.3%, 이산화탄소(CO₂) 0%
*이산화탄소는 저평가

<표1> 우리나라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 Sectors | 1990(a) | 1995 | 2000 | 2005(b) | b/a(%) |
|--------------------|------------------|------------------|------------------|------------------|--------|
| Energy | 247.7 (83.3) | 372.1 (82.4) | 438.5 (83.1) | 498.6 (84.3) | 5.5 |
| Industrial Process | 19.9 (6.7) | 47.1 (10.4) | 58.3 (11.1) | 64.8 (11.0) | 9.9 |
| Agriculture | 13.2 (4.4) | 16.6 (3.7) | 15.3 (2.9) | 14.7 (2.5) | -0.5 |
| Land Use | -23.7 | -21.2 | -37.2 | -32.9 | 3.5 |
| Waste Disposal | 16.6 (5.6) | 16.1 (3.6) | 15.5 (2.9) | 13 (2.2) | -3.8 |
| Total Emission | 297.6 (100.0) | 451.8 (100.0) | 527.5 (100.0) | 591.1 (100.0) | 5.1 |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항목을 지역조사표에 포함
- 난방시설, 식수형태, 통근학 수단, 에너지절약, 교통수단 보유 등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개별가구 수준에서 연계하여 사용

○ **인구센서스와의 통합과 관련하여 (item 8, 45, 54)**

- 2010. 11월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와 연계를 위해 1개월 후인 12월에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할 예정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활용/ 조사원 재채용/ 조사용품 및 시설 공유/ 자료입력 및 조사관리시스템 공유 실시과정 연계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농림어가만 조사
- 조사후에 인구센서스와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료내용을 확충
* 93개 조사, 38개 항목 연계

○ **농업통계의 범위 및 측정 단위와 관련하여 (item 24, 25, 26, 54)**

- 농업통계는 경영체(farm)가 아닌 가구(household) 단위에서 측정
- 농업조사와 어업조사가 금년에 농어촌조사로 통합할 예정
- 농림어가는 물론 비농림어가도 포함하며,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내용을 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사와 사후에 연계하여 38개의 인구 변수를 추가할 예정

Comments on Agriculture and Rural Statistics

- **Agricultural statistics are needed for global warming which is being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s (refer to item 7)**
 - Global warming is one of the major issues being introduced in the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in Korea.
 - The 2010 Census will investigate the changes in chief producing district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 Also, the item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like Methane and Nitrous Oxide emission will be included into the 2010 Census as follows:
 - Methane : water regimes during the rice cultivation period
 - Nitrous Oxide : harvested area, fertilizers (chemical fertilizer, organic fertilizer), disposal of residue (burned, dried)
 -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 Source : rice fields 46.3%, dried fields 14.7%, livestock 38.9%
 - Type of gas : Methane (CH₄) 68.7%, Nitrous Oxide (N₂O) 31.3%, Carbon Dioxide (CO₂) 0%

<Table 1>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ector in Korea

| Sectors | 1990(a) | 1995 | 2000 | 2005(b) | b/a(%) |
|--------------------|------------------|------------------|------------------|------------------|--------|
| Energy | 247.7 (83.3) | 372.1 (82.4) | 438.5 (83.1) | 498.6 (84.3) | 5.5 |
| Industrial Process | 19.9 (6.7) | 47.1 (10.4) | 58.3 (11.1) | 64.8 (11.0) | 9.9 |
| Agriculture | 13.2 (4.4) | 16.6 (3.7) | 15.3 (2.9) | 14.7 (2.5) | -0.5 |
| Land Use | -23.7 | -21.2 | -37.2 | -32.9 | 3.5 |
| Waste Disposal | 16.6 (5.6) | 16.1 (3.6) | 15.5 (2.9) | 13 (2.2) | -3.8 |
| Total Emission | 297.6 (100.0) | 451.8 (100.0) | 527.5 (100.0) | 591.1 (100.0) | 5.1 |

Sourc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 Waste disposal will begin to be surveyed on the community level for the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 Other global warming related items like heating facilities, type of drinking water, mode of commutation, energy saving practice, and vehicles owned will be tapped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rough record matching at the individual level.
- **Agricultural module in population census (refer to items 8, 45, and 54)**
- The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will be taken one month after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Korea.
 - The Population Census holds an item that identifies farm / forestry /fishery households, which turns later to be a roster offarm /forestry/fishery households for the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 Both hardware like survey materials/facilities and software like the system of data capture/survey management would be shared in two consecutive censuses.
 - Variables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would be consolidated into the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by using personal and household matching keys : 38 population and household items will be added to the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 **For the dimension of data collection of agricultural surveys, refer to items 24, 25, 26, and 54**
- Agricultural surveys in Korea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farm household rather than farm.

- The Agriculture Survey and Fisheries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with farm households and fishery households respectively will be combined into a single survey entitled the Rural Survey commencing this year.
- The Rural Survey covers non farm/fishery households together with farm/fishery households and also contains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community level.
- The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will have 38 ad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after census-taking through data matching with the 2010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3) 에너지 통계

“에너지 통계 국제 권고안 준비 리포트”

□ 개요

- 37차 유엔통계위원회
 - 에너지통계의 공식 통계화를 위해 개념, 작성방법론, 국제 분류 개발 권고
- 38차 유엔통계위원회
 - IWGES(오슬로그룹 및 에너지통계 실무 그룹) 경과 보고 검토

□ 에너지통계 권고안 개정 필요성

- 공식통계로서 에너지통계
 - 공식통계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공식 에너지통계 필요
- 에너지통계 범위
 - 에너지통계 범위(생산, 무역, 소비 등), ISIC/HS/CPC 적용에 관한 합의 도출 필요
- 에너지 국제 표준 분류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체계적 분류를 위해 국제 에너지표준분류 작성 필요
 - HS/CPC와 같은 기타 상품분류와 연계를 위한 상관표 개발
- 기존 측정단위 및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점검, 개정
- 유량, 저장 및 관련 개념
 - 에너지 저장, 유량, 개념 정의, 에너지/비 에너지 구분 등
- 통계단위와 자료 항목
 - 현재 에너지 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단위 및 자료 수집용 참조 목록 부재
- 자료 원천 및 자료 집계(편집, 작성, compilation) 전략
 - 자료원천(행정자료, 통계조사) 확인, 에너지 소비 및 이용자료 편집전략, 관련 방법론 및 효율적 제도지원 필요

- 명확한 에너지 수지 작성 필요
- 자료품질과 메타 데이터
 - 관련자료의 체계적 품질관리, 국가 에너지 자료품질 틀 및 품질지표 개발 등
- 공표
 - 에너지통계 제공 매커니즘, 비밀보호, 핵심 테이블, 메타데이터 제공 및 국제, 지역 보고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 필요
- 에너지계정 및 기타 통계 작성에 있어 기초 에너지통계와 에너지수지 활용
 - 기초 에너지 통계, 에너지 수지, 에너지 계정간 개념관계 확립
 - 에너지통계와 환경통계, 배출량 산출,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 확립 필요

□ 유엔통계청 권고안 개정전략

- 에너지통계 국제 권고안 범위
 - 목적 : 공식통계 기본원칙에 근거한 에너지통계 장기발전 전략 기반 조성
 - 범위 : 공식 에너지통계의 특성, 개념, 정의, 에너지 수지, 자료 작성 및 공표 전략, 기타 상세 기술사항 및 에너지 통계 국가별 모범 사례
 - 기타 : 국제 산업통계 권고안, 유통통계 권고안, IEA 에너지통계 매뉴얼, 환경경제 계정 등과 조화
- 개정 원칙
 - 핵심 사용자들의 요청사항 외, 관련 정책, 에너지 생산자/사용자 견해를 폭넓게 반영
 - 에너지통계를 계정체계로의 편입기반 마련과 국가 통계시스템과의 조화
 - 국가통계기관, 에너지 담당부처, 국제기구 견해를 개정에 적극 반영
 - 명확한 자료원천, 자료수집 시 응답부담 경감 및 국가 비교성 개선
 - 기타 상세 기술사항은 에너지통계 작성 매뉴얼에 수록
- 작업완료 및 향후 계획
 - 권고안 범위 및 내용에 관한 1단계 의견 수렴(2008. 5)
 - 오슬로 그룹/IEA 주관 하에 국가별 의견 수렴 결과, 98%가 에너지 통계를 공식 통계로 함에 찬성

- 요청 사항 : 권고안이 에너지통계 작성 절차 전체를 커버하도록 범위 확대
에너지 통계,수지 및 계정간 상관관계 수록
에너지 생산 및 수출입 통계와 일반 생산 및 무역 통계와의 일치
새로운 에너지원의 통계처리 명시, 행정 자료 이용
에너지지표 및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가이드
- 에너지 상품과 에너지 흐름 개념 일치
- 에너지 통계 워크샵 개최 (2008. 12. 2-5, 멕시코)
- 제 4차 오슬로 그룹회의 개최(2009. 2. 2-6, 오타와)
- 국제 권고안 2차 의견 수렴 (2009년 하반기)
- 제 2차 에너지통계 전문가 그룹회의 개최

□ 논점 (토의사항)

- 유엔통계청의 에너지통계 권고안 준비전략 승인
- 에너지통계 개념틀 개정, 관련자료 수집과 공표 가이드에 관한 조언
- 권고안 개정 시 국가통계기관 및 에너지부처와 협의 중요성 강조
- 에너지통계 작성 상세 기술사항, 국가별 모범사례를 에너지통계 작성 매뉴얼에 수록
- 개정 권고안 평가를 위해 유엔 에너지통계 전문가그룹에 상정 요청

에너지통계에 관한 의견

- **point a** : 유엔통계국의 에너지통계 권고안 준비전략 승인
 - 아국은 유엔통계국의 에너지통계 권고안 준비전략 승인에 동의

- **point b** : 에너지통계 개념들 개정, 관련자료 수집과 공표 가이드에 관한 조언
 - 개념과 관련하여 에너지와 비에너지 구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 필요
 -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최근 통계조사에 비하여 각국에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관한 행정자료 범위 및 수집 방법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 필요
 - 공표와 관련하여 에너지통계와 환경통계, 배출량 산출, 특히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 확립에 관한 명확한 상관관계 확립 필요

- **point c** : 권고안 개정 시 국가통계기관 및 에너지 부처와 협의 중요성 강조
 - 아국의 경우 에너지통계는 에너지관련 부처에서 작성하므로 권고안 개정시 우선적으로 통계관련 국제기구에서 공식통계로서 국가통계기관(NSO)과의 협력 중요성 강조
 - 왜냐하면, 에너지통계는 경제통계(산업 및 상품)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통계수집 및 작성에 관한 전문성에서 국가통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임

- **point d, e** - no comments
 - 코멘트 사항 없음

Comments on Energy Statistics

○ **point a**

- Korea has endorsed the Statistics Division to prepar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

○ **point b**

- A draft recommendation is required and should provide a specific and distinct conceptual framework to distinguish energy from non-energy.
- In many countries, increases in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data collection is becoming a trend, compared with the past when statistical surveys were the dominant data collection method. Therefore, active discussions as to the range and the method of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data are needed.
- Before the release of the draft recommendation, it should establish solid relations among energy statistics, environment statistics, the emissions calculation, and particularly, climate change.

○ **point c**

- In Korea, energy statistics are compil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First, for the revision of the recommendations, it is important to consult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which represents official statistics.
-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energy statistics are closely related with economy statistics(eg. industry or commodities), and particularly, the NSO specializes in collecting and composing statistics.

○ **point d, e** - no comment

4) 에너지통계

“에너지 통계에 대한 오슬로그룹 리포트”

□ 배경

오슬로 그룹은 2005년 유엔통계위원회와 노르웨이 통계청 주도로 설립된 에너지통계 시티그룹으로 국가별 연간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통계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다목적 공식 에너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2007-2008 오슬로 그룹 활동

○ 오슬로 그룹 회의 개최

- 제 2차 오슬로 그룹 회의 (2007. 2. 5-7, 뉴델리)

주관 : 인도 통계청

주제 : 유엔 에너지통계 매뉴얼 개정 논의, 공식 에너지통계 범위 및 환경경제 통계와 연계, 에너지통계 핸드북, 모범 사례 등

- 제 3차 오슬로 그룹 회의 (2008. 2. 4-6, 비엔나)

주관 : 오스트리아 통계청

주제 : 에너지통계 매뉴얼 개정 현황 및 국제협력 논의

○ 쌍방향 웹사이트 구축 (2008. 9)

- 에너지통계 국제권고안, 관련 매뉴얼 수록, 에너지 통계 전자 포럼 등

관련 페이지: <http://og.ssb.no/>

○ 에너지통계 국제 권고안 및 작성 매뉴얼

- 웹사이트에 권고안 최종선별 계획 및 이슈 목록 게재

□ 상호 협력

○ 런던 그룹

- 에너지통계와 연관된 환경경제 계정,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관해 상호협력

- 환경경제계정 전문가 회의
 - 용어 사용 및 정의 일치
- 에너지통계 범부처 실무 그룹
 - 에너지 전환계수, 공통정의, 단위 일치
- 기타 UNECE, OECD, SOEC 등과 협력

□ 향후 계획 (2009-2010)

- 에너지통계 국제권고안 개정
 - 에너지통계 작성 매뉴얼에 수록 될 항목 선정
- 2009 에너지통계 범 부처 실무 그룹 회의 참가
- 에너지통계 국제 워크숍 참가 (2008. 12)
- 오슬로 그룹 4차 회의 개최 (2009. 2)
 - 오타와, 캐나다 통계청 주관

5) 에너지통계

“IWGES(에너지통계 실무그룹) 리포트”

□ 개요

에너지통계 품질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관간 에너지 상품과 흐름에 대한 공통 정의 작성을 위해 2005년 설립

□ 2차 InterEnerStat 워크숍 (2007. 11. 19-20, 파리)

-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웹사이트(<http://www.interenerstat.org>) 수정
공통 정의(harmonized definition) 발표 등

□ 3차 InterEnerStat 회의 (2008. 10. 28-30, 파리)

- 주제 : 에너지 상품과 흐름(또는 유량, flows) 공통 정의
에너지 상품(석탄, 재생 에너지, 전기, 가스, 오일 등)
에너지 흐름(공급, 변환, 소비) 정의 원칙 등 논의

□ 향후 계획

- 에너지 상품 및 흐름 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 (2009 상반기)
- 정의 일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공동 교재 준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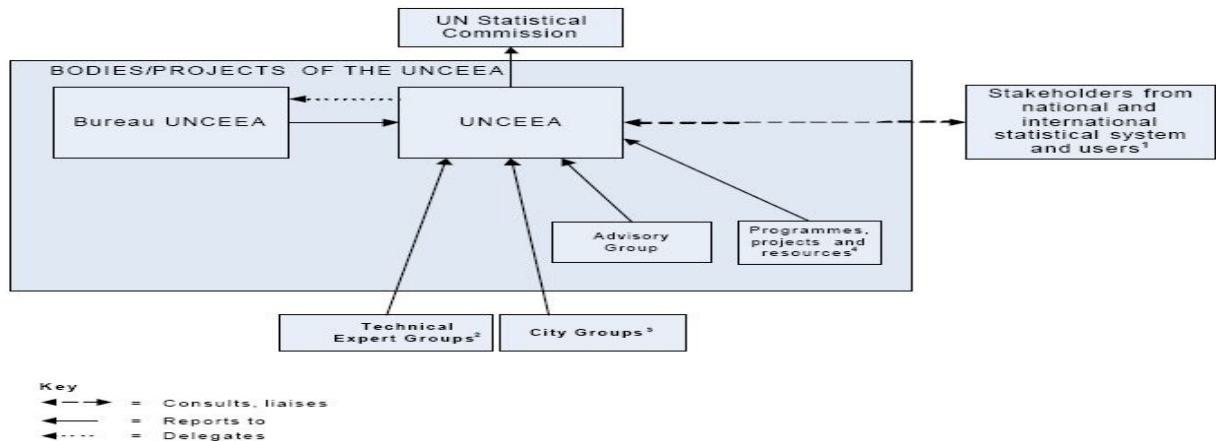
6) 환경경제계정

“환경경제계정 전문가회의(UNCEEEA) 보고서”

□ UNCEEA 소개

- 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의 공식통계체계 편입을 위한 전략적 비전 및 방향 제시
- 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국제표준 및 방법론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 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국제표준의 국가별 이행 독려
- 정책집단의 공식통계 활용 독려

□ 관리체계



- 유엔통계위원회 : UNCEEA 설립, 업무범위 및 사업 승인/감독 등
- UNCEEA(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전문가회의) : 사업별 전략계획 수립/이행/감독, 유엔통계위원회 사업보고, 사업별 자원마련 등
- AGEEA(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자문단) : 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기후변화 통계 관련 방법론 및 표준 개발
- 시티그룹 및 기술 전문가그룹 : 환경계정 런던그룹, 에너지통계 오슬로그룹, OECD-WGEIO-MFA, WGSSD(지속가능발전통계 실무그룹), 기타 전자 토론 그룹 등

□ 환경경제계정 전문가회의 사업 경과

○ SEEA(환경경제계정 체계) 개정

- 현재 UNCEEA는 2012년 개정 완료를 목표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38차 유엔통계위원회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 SEEA 개정안은 Vol.1(국제통계기준), Vol. 2(합의된 바 없으나, 정책 관련성이 높은 계정들), Vol. 3(Vol. 1,2에서 제시한 계정의 적용)으로 구성
- 에너지 계정과 통계는 런던그룹, 오슬로그룹, 에너지통계 실무그룹 간 긴밀한 협력 하에 SEEA-E(에너지 환경경제계정 체계) 및 에너지통계 국제 권고안 논의
- SEEA-MFA(물류 환경경제 계정 체계) 작성 논의

○ 협력

- 환경계정 런던그룹(2009. 4월, 캔버라 회의) : 재생, 비재생 자원 고갈, 물류 에너지 계정, 환경부담금, 보조금, 배출 허가권 등 논의
- 에너지통계 오슬로그룹(2009. 2월 오타와) : IRES(에너지통계 국제권고안) 작성 논의
- OECD 환경정보와 전망 실무 그룹 : 물류 및 자원생산성 측정 가이드 발간 자원이용 비용과 환경적 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계획 논의
- IWG-Env(환경통계 범 부처 실무그룹) : 제 5차 UNSD/UNEP 환경통계조사 실시, 환경통계 메타데이터 개발, 토지이용 통계 소그룹 설치 (2009년 한시)
- WGSSD(지속가능발전 통계 공동 실무 그룹) : 지속가능발전 지표 셋 개발 지원, 국제비교를 위한 핵심 지표군 선정 및 지속가능발전 측정 보고서 발간 예정 (2009. 3월)

○ 홍보 및 이행

- UNCEEA는 환경경제계정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웹사이트 개선/확장
- 환경통계 및 환경경제 계정 글로벌 평가 사업
 - 1단계 : 38차 유엔통계위원회 결과 보고
 - 2단계 : 에너지통계/수지 평가(제 39차 유엔통계위원회)
물 통계/계정, 에너지계정 평가(제 40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 예정)
- 물 통계 및 계정 글로벌 평가 결과 물 부족 및 오염이 최우선 과제이며, 물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통계체계 내 물 통계 및 계정 포함 필요

- 에너지 계정 글로벌 평가 결과 99개국이 에너지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38개 응답국가 중 22개국은 현재 에너지 자산/흐름 계정을 주기적으로 작성, 기타 18개 국은 향후 2년 내 에너지계정 작성 계획
- SEEAW(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이행 전략
 - IRWS(물 통계 국제 권고안) 개발, 및 국가별 이행지원 사항 수록
 - ECLAC/ESCWA와 같은 지역별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워크숍 개최
 - 물 계정 이행 지원, 환경통계, 지표 및 계정 작성 실무그룹 설립

□ IRWS

- IRWS 개발은 유엔통계청 정규 사업 가운데 하나로 IRWS는 국제비교 가능한 물통계 수집, 작성, 제공 지원
- SEEAW 이행 지원, 시기별, 국가별 일관성 있는 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 IRWS 체계
 - I 장 : 국제 권고안, 물 관리체계, SEEAW, 주요 통계개념, 물통계 자료 항목, 단위, 정의
 - II 장 : 자료 원천, 품질, 자료 수집 전략, 추가자료 항목, SEEAW와 자료 연계표, 일반적인 물 지표 등
- IRWS 개발 현황
 - 유엔통계청은 IRWS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준거집단에 평가를 의뢰, 이들 견해를 반영한 2차 개정안을 지난 2008년 11월 전문가 회의에 상정
 - 향후 유엔통계청은 IRWS의 이행가능성 및 연관성 판단을 위해 최종안을 국가별로 배포하여 그 견해를 반영하고 이후 UNCEEA에 상정 계획.

□ 논점

- UNCEEA 명칭 변경, 관리 체계, 업무권한에 관한 의견 교환
- SEEA 개정 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재정 조달(충당)에 관한 의견 교환
- UNCEEA 사업 진행 상황

환경경제계정에 관한 의견

- **Point a** : UNCEEA 명칭변경, 관리체계, 업무체계에 관한 의견 교환
 - UNCEEA(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전문가회의) 및 AGEEA(환경경제계정 및 환경통계 자문단)에 환경경제계정 작성 능력이 미흡한 대륙(예: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국가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기술전문가그룹 및 시티그룹의 운영이 환경경제계정 작성 능력이 갖추어진 국가 중심으로 폐쇄적으로(closed) 운영되고 있어 향후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타 국가에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UNCEEA의 노력이 필요
 - 환경경제계정은 계정의 특성상 통계청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 아국의 경우, 환경경제계정 작업은 환경부와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환경경제계정 매뉴얼(SEEA)이 통계 작성 능력이 갖추어진 국가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환경통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정 작성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존재
- **Point b** : SEEA 계정 프로젝트 관리체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의견 교환
 - UNCEEA의 프로젝트 범위(예: 환경경제계정 구축사례 및 환경관련통계 제공 능력 등)를 환경경제계정 작성능력이 미흡한 국가까지 넓히고, 이와 관련된 재원(프로젝트 비용)도 공동 부담하는 방안 고려
 - 이러한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아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검토를 고려하겠음
- **Point c** : UNCEEA 사업진행사항
 - 수자원(물) 및 에너지 관련계정(accounting) 작업이 사업의 우선과제로 진행되기를 희망

Commen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Point a

- It is important that countries with a weak capacity to compil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example, some Asian or South American countries) take part in the discussions of the UNCEEA (UN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and AGEEA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al - Economic Accounting).
- In particular, the operation of city groups and other technical expert groups are being conducted exclusively centered on countries with an advanced capacity to compil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Therefore,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UNCEEA attempt to open the boundaries of those groups so as to activel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rest of the countries.
- As for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a limit in compiling this material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counting. Thus, cooperation with the environment-related organizations are inevitable.
- In Korea, projects concerning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are in the beginning stages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other related research centers. However, problems exist as the manuals of the 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which are composed based on countries with an advanced capacity to compile statistics, and do not present specific guidelines for compiling environmental accounting.

○ **Point b**

- The UNCEEA should expand the range of the SEEA revision projects to include those countries with a weak capacity to compil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and co-fund projects with them.
- After this issue is reviewed, Korea will examine the issue with related ministries.

○ **Point c**

- We believe that water and energy accounts should proceed as a matter of priority.

7) 국민계정

“국민계정 범부처 실무그룹 보고서”

□ 개요

2008 국민계정체계 진행상황 및 Vol. 2 채택이후 공표까지 사업 계획, 국민계정체계 개정안 이행전략 등 수록

□ 국민계정체계

○ Vol 1 (미 교정 원본)

- 제목 'SNA93 1차 개정안' 과 '2008 SNA' 가운데 '2008 SNA' 채택
- 온라인 발간 완료
- 유통거래 및 일반정부 개정코드, 부록1/2에 수록 등

○ Vol 1 필요 변경사항

- 정부지급보증 금융수단(차입 포함) 수록범위 확대
- '연금수급권 변경에 따른 소득계정 처리(transaction, 또는 거래)'를 '연금수급권 변경에 따른 조정(adjustment)'으로 용어 변경
- 금융계정 내에서 '연금수급권 변경'은 '연금수급권 변경에 따른 조정'과 다름을 명시
- 연금지급에 따른 가구 순가치(순자산, net worth) 변동 없음을 명시
- 연금제도 실시기관(initiator)과 관리집행기관(administrator)이 상이하거나 동일할 수 있음을 명시
- 연금제도의 기장 기준(핵심계정, 부속표간) 명시
- 손해보험금의 경상이전/자본 분류기준 명시
- 기타 수정/변경사항 반영

○ Vol 2

- 18장 계정 설명
- 19장 인구 및 노동
- 20장 자본서비스 및 국민계정
- 21장 기업활동 측정
- 22장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 23장 비영리기관
- 24장 가구부문
- 25장 비공식 경제
- 26장 나머지 세계계정과 국제수지 연계
- 27장 금융통계와 자금흐름 연계
- 28장 투입/산출 및 기타 매트릭스 기반 분석
- 29장 위성계정 및 기타 확장 개념
- 부록 3. SNA 93/ SNA2008 간 차이점 상세 설명
- 부록 4. 연구과제 설명

○ 마무리 작업

- SNA2008과 IMF 국제수지 및 국제직접투자 매뉴얼 6차 개정안(BPM6), 정부재정통계 매뉴얼(GFSM2001), 금융재정통계 작성가이드 등과 일치 및 조정

□ 2008 국민계정체계(SNA 2008 또는 2008 SNA) 이행전략

○ 목적

- 거시경제 관리지원
- 지속 가능한 국민계정 작성 및 보고를 통한 증거기반 정책 지원

○ 계획

- PARIS21 국가통계발전전략(NSDS) 매뉴얼 활용
- 유엔지역위원회와 지역개발 기구간 협력
- 국제기구, 개발은행 등과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

○ 협력 및 보고

- 이행 점검을 위해 UNECE 통계활동분류 활용
- 성과 보고 및 평가를 위해 IMF 자료품질평가 기본틀(DQAF) 활용

○ 통계체계 개선

- 기초자료 수집과 처리 등 통계산출 단계별 역량 집중
- 2008 SNA 웹사이트 확대 개편을 통한 경제통계 및 거시경제 지식기반 구축
- 관련 교육훈련 개발과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활용
- 2008 SNA 이행을 국가통계발전전략에 포함시키도록 독려

○ 이행 감독 및 협력증진

- 범 기구 혹은 정부간 자문그룹을 설립하여 국제 및 지역수준의 이행경과 감독, 보고하는 정보공유 체계 확립 필요

□ 국민계정체계 발전방향과 고위급 포럼 (2008. 11. 17-18, 워싱턴)

○ SNA 발전 방향

○ 기초자료 수집과 국민계정체계 관리 및 기타 거시경제통계와의 조화

○ 안정적인 핵심계정 확보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국민계정통계 작성

○ 국제비교 및 국가우선순위를 고려한 국민계정 개선 과제

○ 금융자산 분류 및 기관부문 세분화(구조적 금융상품, 유동성 및 위험 관리, 소유경영과 장부 외 거래와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개념 조명 필요)

○ GDP와 같은 성장지표와 가구부문을 연계할 사회계정, 웰빙과 빈곤을 측정할 다양한 지표 개발연구

○ 공식통계 연구개발을 위해 학계, 규제당국, 기업간 소통전략 구축

○ 2-3년 간격으로 SNA 발전방향 지속 논의

□ 논점

○ 논점 a. 2008 SNA Vol. 2 채택 및 2008 SNA 이행전략 가이드 제공

○ 논점 b. 2008 SNA 이행의 권장

○ 논점 c. 2008 SNA 이행전략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논점 d. High- Level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국민계정에 관한 의견

전반적으로 volume 2의 내용에 동의하며 우리나라의 comment는 다음과 같음

○ 논점 a

- 19장(인구와 노동투입)

- 노동자들의 다양한 숙련도를 반영한 품질조정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가중평균할 것을 권고
- 그러나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신 노동자의 단위시간당 임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고급 노동자는 비숙련 노동자 보다 월급 또는 연봉이 훨씬 높지만 노동시간은 오히려 짧은 것이 일반적

- 20장(자본서비스)

- 자본서비스의 개념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본서비스 개념이 영업 잉여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할 필요
-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자본이 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영업잉여라는 통계에 의존

- 22장(일반정부와 공공부문) :

- 22장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중앙은행과 정부정책의 일부를 수행하는 은행들이 공공부문으로 분류되나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경제력 측면 재고 필요
- 첫째, 중앙은행에서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뚜렷이 다른 경제적 의미를 가짐
- 둘째, 일부 은행들이 정부 역할을 위임받아 기업의 수출 또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의 주된 업무가 금융 중개기능이라면 이들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 따라서 공공부문 분류기준을 금융부문에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

○ **논점 b**

- 이행 권장을 위하여 2008 SNA를 UN의 5개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필요

○ **논점 c**

- 개발도상국 등의 이행전략 수립을 위하여 선진국의 이행 사례 특히 이행 방법 뿐만 아니라 조직, 인력 및 비용 등을 수시로 발표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편제 인력을 파견 받아 실무 훈련을 제공할 필요
- 검토된 이슈 관련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배포하거나 이를 2008 SNA의 웹사이트에 연결시킬 필요. 동 자료는 실무적으로 통계편제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각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

Comments o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We have generally agreed to adopt the draft of Volume 2 of the 2008 SNA and our comments on the related issues for Volume 2 are as follows.

○ **point a**

- Chapter 19 (Population and labour inputs)

- Chapter 19 suggests that quality-adjusted indicators for different grades of workers be weighted together using the average wages for a worker (19.56).
- It would, however, be more desirable to use the average wage per hour for a worker instead of the average wages for a worker. A skilled worker tends to work less hours than an unskilled one even though his/her monthly or yearly average wages are often much higher than an unskilled worker's.

- Chapter 20 (Capital services and the national accounts) :

- We agree with Chapter 20 of Volume 2 in general. It is, nevertheless, necessary to ad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xplicit usefulness of the capital service concept that is not provided by operating surplus.
- Until this capital service concept is introduced, most analysts have been accustomed to relying on the operating surplu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capital to production.

- Chapter 22 (The general government and public sectors) :

- Chapter 22 classifies the central bank and some government-related banks in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decision tree. But we believe two economic aspects of the financial sector need to be considered here.

- Firstly, the monetary policy of the central bank has a different economic meaning from public policy in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cy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 Secondly, there are some banks that support corporate exports or investme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but whose main function is that of financial intermediaries in the market. It seems to be inappropriate to classify these banks into the public sector.
- Consequently, the criteria of the decision tree need to be adjusted when they are applied to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 **point b**

-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UN officially declare that it is not a copyright violation to translate the 2008 SNA in languages other than the fiv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recommendation.

○ **point c**

- The ISWGNA(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has proposed a programme information structure. It would be helpful for implementation to circulate the detailed experiences of leading countries' in terms of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cost as well as practical implementation. It would also be desirable if opportunities for on-the-job training were made available in advanced countries for dispatched staff from developing countries.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t out references and to link them with an SNA-related website of the UN. 'The set of references' would provide good guidance for national accountants involved in the compilation of statistics in that the references need to be flexible in order to perform with the particular 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8) 사회통계

□ 개요

본 보고서는 사회통계와 관련하여 제 39차 유엔통계위원회 결정 및 요청 사항에 대해 유엔통계청 활동내용에 대한 요약 자료

□ 전문가그룹 회의(2008.9. 9-12 , 뉴욕)

- 주관 : 유엔통계청 인구사회통계국 사회주택통계과
- 배경 : 사회통계 신규동향(new direction) 세미나 (2008. 2. 22) 및 2003 사회통계 전문가 회의 (2003. 5. 6-9) 후속 회의
- 목적 : 국제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현대 사회통계 범위와 내용 확인, 국가 및 국제 기관간 협력사항, 필요한 국제 가이드라인 점검 시티그룹, 태스크포스, 의장자문단 구성이 필요할 경우, 권한 및 위임사항 등 업무범위 논의
- 참가국 :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멕시코, 모잠비크,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미국, 등 20개국 외 Eurostat, OECD, ILO, UNESCO 참가

□ 전문가그룹 권고안

-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
 - 인구, 가족과 공동체, 보건, 교육훈련, 직업, 경제적 자원, 주거, 범죄 및 문화 레저 등 구체적으로 정의된 개별 사회항목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의 프레임워크 필요
 - 개별 항목에 대해 통계 데이터 수집 체계 확립
 - 사회적 관심사안(보건, 주거, 학습교육)별, 통계원천(행정기록, 인구 주택 총조사, 가구 및 기타 통계조사)별, 통계수집 및 구성요소(방법론, 정의, 개념 주제, 표, 분류, 주기와 관련된 국제표준 유무)별, 인구집단(연령, 성별, 사회경제, 인종, 장애 등)별, 통계제공 지역별로 그 구성요소를 명확히 기술

- 따라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란 공통 방법론 하에 인구,가족 및 공동체, 보건, 교육훈련, 직업, 경제적 자원, 주거, 범죄, 문화레저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사회통계 군으로 설명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와 기존의 국제표준 및 분류를 접목함으로써, 격차 확인 및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전달방법 발굴 가능
 - 사회통계 구축의 핵심 사항인 지표는 자료제공 단계에서 특히 중요 신뢰성 있고 시의 적절한 지표 제공으로 수집 통계의 연관성과 분석 기능 향상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웰빙 통계작성은 국가수준에서 이러한 접근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프레임워크 개발, 공통 개념, 정의 및 분류 설정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으며 국가통계기관이 사회통계 틀을 개발할 경우, 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사회구조 격차 및 현대 사회 복잡성으로 국제 수준에서의 공통 틀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 개발 접근법은 사회통계 또는 관심사안의 집합체를 바탕으로
- 국가, 지역, 국제수준에서 사회통계 협력
- 사회통계는 개별 집계 및 여러 통계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료 수집/처리/제공/분석 과정의 협력은 매우 중요
 - 이러한 협력은 표준 및 방법론 개발, 개념과 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 핵심사안 확인, 분류 및 방법론 채택에도 영향
 - 효율적인 지역간 협력을 통해 국가통계기관은 수많은 긍정적 성과 도출
- 사회통계 국제행동계획
- 국제 행동계획 우선 사업
 - 기존의 각 사회통계 관련 국제 방법론 기준 및 지침 확인
 - 사회통계의 국제 적용가능성(품질측정 기준 등) 확인
 - 현재 진행중인 국제, 지역, 소 지역, 국가별 사회통계 및 방법론 사업 점검
 -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 그룹은 유엔통계청이 ILO, WHO, UNESCO, OECD 및 UNESCAP과 같은 지역별 유엔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광범위한 통계 공동체 구축을 요청
 - 후속 사업
 - 국제 핸드북 및 매뉴얼 개발, 국가별 사회통계 수집/처리 능력향상

훈련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국제 기준간 격차 제거

- 품질 측정, 주거, 생활시간사용, 인구이동, 장애, 범죄피해 등과 같이 국제기준 적용에 국가별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 다른 사회통계 군에서 자료수집 실시
- 여러 기관의 사회통계 집계 도구 개발 사업 지원
- 어린이 빈곤, 범죄분류, (사회적) 박탈, 경제적 약자(또는 불이익), 인구이동, 인신매매, 교육품질, 사회배제, 여성에 대한 폭력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현안 논의
- 위와 같은 활동 점검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승인
- 기타, 전문가집단은 글로벌 통계체계 내에서 사회통계를 주관, 감독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나, 기존 사업 및 국제기준 점검, 격차 확인 등 현안이 산적함에 따라 이는 시기상조로 결론

□ 논점

- 유엔통계위원회는 사회통계 범위와 내용 전문가 회의 권고안 및 국제 행동계획 제안사항 검토 및 채택
- 유엔통계청이 권고안 이행 및 사회통계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요청

사회통계에 관한 의견

○ 기본방향

- 한국 통계청에서는 사회통계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권고 사항과 국제적 실천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천계획의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임

○ 세부내용

- 한국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UN통계위원회 제 17차 회의 의결, 1972)의 권고에 따라 1978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고 있으며, 「사회조사」를 시행하여 경제지표는 물론, 인구, 가족,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사회적 관심영역에 대한 통계를 제공
- 그러나 다양한 지표수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며 국제적 기준에 의한 사회통계조사와 사회지표의 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주요 사회적 관심분야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영향, 정보와 통신(정보화의 격차),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사회통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여겨지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희망함
- 한국의 경우 「사회조사」를 1979년부터 국가주도로 실시하였으나, 최근 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통계의 각 관심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세부통계를 작성
- 그러나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사회조사」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지는 못하며, 공표수준도 전국단위만 가능한 실정
- 그 결과 전국단위의 통계에서는 다른 부처의 사회통계조사와 중복이 있음에도 지역단위의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사」를 없애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중복통계가 있는 경우 조정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방법론이 공유되기를 희망함
- 실천계획 부분에서 결핍,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이슈를 언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범죄관련기관을 통한 수집방법 외에 가구를 통하여 사회통계를 기록하고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경험이나 방법론이 공유되기를 희망함

Comments on Social Statistics

○ General Comments

- We,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feel the necessity of producing a general framework for social statistics which would be universally pertinent. Also, we strongly support the activities of building an international action plan for social statistics.

○ Specific Comments

- The KNSO has issued 「Social Indicators in Korea」 annually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at its 17th Session on Social Indicators to provide social statistics as well as economic statistics conveying various social concerns such as population, family, work, health, environment, and safety. In addition, the KNSO has conducted the 「Social Survey」 since 1977 to collect basic data essential for 「Social Indicators in Korea」 but is unavailable from other surveys or administrative data. In spite of the various(about 500) indicators of Korea, there is a lack of data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ctually the scope of social indicators vary depending on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core indicator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 The scope & contents of social statistics should be harmoniz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a recommended framework of social statistics, more topics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social statistics; for exampl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climatic changes,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concerning digital dividend), and the role of government. We would like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to review and make guidelines for which contents and scope should be applied to those topics.

9) 보건통계

“보건통계 범부처 실무그룹 리포트”

□ 개요

- ISWG-HS(보건통계 범부처 실무그룹)은 보건통계의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을 39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안하여 상하이 회의(2008.10. 13 - 17)에서 잠정안 검토
-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로 인해 통계기관, 보건당국, 개도국과 기금 지원국 간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관심있는 모든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실무그룹 가입 요망
- ISWG-HS는 2009 Durbin ISI 대회와 연계하여 관련 회의 개최 예정

□ 보건통계 기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 복잡한 보건체계 및 상호협력 부족으로 신뢰성 있고 국제 비교 가능한 보건통계가 미비하였던 바, 명확한 보건통계 기준 및 기본 프레임워크 작성으로 이를 해결

○ 목적

- 보건통계 항목 및 보건 자료 원천과의 상관 관계 명시
 - 보건통계 항목 : 사망 원인, 사망 및 질병률, 기능별 건강상태, 위험 요인 및 건강 결정 요인, 보건 서비스 이용 및 지출 비용 등
 - 보건 자료 원천 주민등록, 인구 및 기관 조사, 질병감시 및 진료, 행정기록 등
- 각 항목별 정보체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민보건 측정 혹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특정 생리요건 및 인자에 대한 측정 수요 확인
-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체계 확립
- 자료 수집을 위해 혁신적 접근법이 필요한 분야 확인
- 국가통계기관, 보건당국(또는 담당부처)간 연대 제도화 추진

□ 보건의 범위와 구성요소

- 보건(health)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와 연관된 사항을 모두 일컫는 것이나, 본 논의는 보건통계 범주 내로 한정
- 기본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대여명에 초점을 맞춘 통상적인 생명통계 대신, 생존 기간 중 '완전 건강상태', '불완전 건강상태' 측정 기준에 대해 다루고, 주제 혹은 구성요소별 표준화된 보고를 통해 국내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아래와 같이 보건을 6대 구성요소로 나누며 각 구성요소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교육, 민족, 지리별로 각각 집계
 - 사망률 : 특히 유아사망률 및 기대여명
 - 보건 상태 : 개별 그룹 및 공동체 보건 현황
 - 신체, 정신적 기능과 장애 : 장애 정도 및 기간, 독립 정도, 보조 지원 수요
 - 위험요인과 예방 :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행동적 장애 유발에 대한 위험 요인과 효율적 예방 등
 - 보건체계와 서비스 : 1/2차 진료체계, 건강중재, 진료, 처방 및 관련 비용, 환자안전, 건강 표준, 보건의료 인력, 필수 의약품 및 장비 등
 - 보건(건강) 지출비용 : 보건 관련 공공/민간/해외 지출 비용, 지출 패턴, 단위 비용, 의료보험 체계, 보조금 및 비용예측 등

□ 보건 자료 원천

- 일관성 있는 자료원천 확보 및 관련정보 품질개선을 위해 자료 핵심 원천에 초점
- 통계원천의 기본요건
 - 보건통계는 보건자료 표준 없이, 유엔 공식통계 기본원칙, 유럽통계시행 지침 및 통계품질기준 외 현재 진행 중인 HMN(보건매트릭스 네트워크), NHA(국민보건계정) 기본 프레임워크에 따름
 - 국제비교를 위해 ICD(기타 국제질병분류), ICFDH(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등 활용
- 센서스
 - 핵심 자료원천으로 출생 시 기대여명, 유아, 성인 사망 및 질병, 보건 인력 수급 및 규모 등

○ 표본조사

- 증상, 장애, 위험요인별 유병률, 보건 서비스 잠재수요 및 만족도 등

○ 질병보고서

○ 행정 자료

- 낮은 응답부담, 비용, 자료 보안 등의 이유로 이용 증가
- 구분단위(개인, 병원 등)별 자료 항목(병원직원 수, 출생, 사망 등)이 분명하고 갱신빈도가 높음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한 행정자료, 출생, 사망 및 사망원인 기록부 등
- 일부국가의 경우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음

○ 보건 기관 기록 관련 행정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건 기관 보고자료를 통해 병상수, 의약품 사용, 입원일 수, 질병진단 기록, 환자특성, 입원절차 및 생존률 등 자료 수집 가능

○ 정부, 병원, 보험회사 계정정보

- 국가 수준 : 연간, 월, 분기별 보건 비용 및 예산 등
- 국제 수준 : SHA(OECD 보건계정체계)를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비용, 수(세)입 등

□ 기본 프레임워크 구조

○ 일반적인 보건지표

- 국민보건 상태 점검을 위한 핵심 지표들로 기대여명(수명), 유아 사망률, 주관적 건강평가
- 그 외 건강보정 및 기대여명과 같은 참고지표는 사망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유용

○ 기능측정

- 감각, 운동, 인식, 심리, 의사소통 및 신체 기능

○ 생리적 특성, 병리 및 질병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측정

- 유전적 기형, 소인, 사망원인 등

○ 위험인자

- 영양섭취상태, 흡연, 신체활동 등

○ 관련인자

- 보건체계 접근성, 활용도, 지출비용, 수급, 공공보건 특성 및 중재 등

○ 지표군간 연관성

- 일반적인 보건, 수명 지표의 경우 생존기간 중 건강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만성질환 및 전염병 측정지표를 함께 고려
- 질병 단위별 위험요인, 예방대책과 위생수준, 신체활동 여건을 연관 지어 기본 프레임워크 구성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WHO-FIC, 워싱턴 그룹, 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 질병별 실무그룹, HMN(보건매트릭스 네트워크), Eurostat 등 주관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수록 예정

보건통계에 관한 의견

○ 보건통계 구조의 개발 필요성

- 보건통계 구조는 무엇보다도 보건통계 기획에서부터 작성과 활용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당분야의 효율성을 제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자료 수집과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건통계의 비교 측면에서도 진일보할 수 있는 호의적인 여건을 마련

○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

-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가나 관계 기관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고 구조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물론 그 정보는 각 국의 행정자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국의 보건 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

- 기본적인 조건의 충족

- 첫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개념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둘째, 구성 요소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셋째, 보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구성 요소 간 철저한 논리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는 최종적으로 보건 상태의 측정이라는 목표 하에 배치되어야 하며 구성 요소의 배치는 다소 계층적인 형태를 띌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접근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

Comment on Health Statistics

○ **Suggestion for developing the framework**

- A framework for health statistics will assis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romoting efficiency and focus on what they do best in each field by giving the guidelines of planning,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statistics. Furthermore, a framework will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comparing health statistics by facilitating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health data.

○ **The coordination of the opinion and sharing of the information**

-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framework can be achieved through standardizing institutional procedures, advancing opinions, which allows related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and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is shared. Of course, administrative data would also be included in this information. Specially, the health authorities of countries need to work closely with the ISWG-HS.

- **The satisfaction with the fundamental conditions**

- **First**, the concept of elements need to be clear and concrete.
- **Second**, the difficult problem of overlapping elements included in a large variety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need to be addressed.
- **Third**, the elements should be the essential determinants which measure health status logical connections between the elements.
- **Finally**, the arrangement of the elements must be aimed at measuring health status. Accordingly, the arrangement may be a stratified structure, and the approach to the arrangement must be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functional.

○ **International Standards & Guidelines**

- The KNSO agrees with the Report which focuses on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health statistics. The KNSO believes that the optimum way to achieve the comparability of health data at an international level is to select a core set of topics in health statistics and harmoniz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 For example, the Report defined three general health measures as life expectancy, infant mortality and self-rated health. Specifically self-rated health is a very simple and popular measure of assess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but the way of asking is quite different from survey to survey. Two examples might be "How do you regard your health? Or "How would you assess your general health status compared to that of others of the same age?". Self-rated health can be answered in a four point-scale from "low" to "high", or a five point-scale from "excellent" to "poor". Because of this, the internal guideline of health statistics should present not only the framework and content of health data but create universal definitions of core topics in health and data collection methods.
- Finally, the KNSO recommends that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f health statistics should present new methodology and utmost practices of health statistics. The objective of the methodology section would be to display various approaches with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guide countries in making the best choice to accommodate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10) 교육통계

“교육 통계 태스크포스 리포트”

□ 개요

- 38차 유엔통계위원회 - 교육통계 태스크포스 구성 논의
- 39차 유엔통계위원회 - 태스크포스 경과 보고

□ 기본 프레임워크

- 개념 모델은 입력 항목, 처리과정, 산출 데이터 및 성과물 등의 구성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캐나다/OECD 기본 프레임워크 차용
- 자료수집, 개념 및 지표 의존도, 자료 관리, 벤치마크, 분석/평가 등 기본 프레임워크 적용에 있어 국가별 격차 확인
- 자료수집 시 양립 가능한 정의와 분류 필요로 인해, 공통 기본 프레임워크 확립 절실

□ 협력 매커니즘

- 중복보고 방지 및 국가별 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UIS(유네스코 통계연구소)/OECD/Eurostat : 교육 참가/종료 비율, 교육비, 자원 데이터 수집 협력
- 협력 필요성 및 활동
 - 자료 공표 시간차로 인한 공표 통계 및 지표간 모순 이해
 - ISCEP(국제교육표준분류)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패널 구성
 - UIS : OECD 비회원국의 국제 학생평가 자료분석 지원, OECD 분석 보고서 공동 출간 ,자료수집 관련 국가별 기술지원 및 보고 사례 검증
 - UIS, 유엔통계청 : 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교육 데이터(교육수준 및 문맹률 등) 교환 및 상호 검토
 - UIS, UNICEF : UNICEF가 사용하는 학교출석 지표 및 통계는 행정자료 및 국가 추계와 격차 등의 자료 불일치 극복을 위해 자료원천 결합 방법론 논의

- 유엔통계청 인구국 : 국가별 교육지표 작성 시, 유엔통계청 인구국의 인구추계를 사용하므로 학교 등록률 지표 작성시 현실과 격차 상존하므로 국가별 인구추계 개선
- OECD, IAEEA ; 국제 학생평가를 위한 국가별 교육성과 순위 비교 및 토의

□ 국가별 자료수집 부담

- 조사 결과, 각 국은 OECD 교육체계지표 프로젝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추계 산출 등 국제 권고안 이행시, 중복 보고 등으로 부담 가중
- 자료 게시를 위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중복 보고 제거, 기관간 협력 증진 및 보고 부담 경감 효과

□ 결론 및 권고사항

- 통계 기본 프레임워크
 - 비교성 있는 자료 산출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의, 개념, 방법론 도출을 위해 노력
 - 교육통계 개선을 위해 국가 및 국제수준의 개념 프레임워크 필요성 인식 단, 단일 개념 틀을 모든 기관에 적용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제 기구간 협력
 - 자료공유, 공표일정 조정 및 ISCEP(교육표준분류), 교육통계 패널 설립
 - 교육자료 수집을 위한 전문가그룹 설립
 - 협력체계 공식화를 위해 UIS 주도의 교육통계 통합 실무그룹 설립 권고

□ 논의사항

- 국제교육표준분류 이행을 위한 전문가그룹 설립
- 국제협력 개선, 보고부담 경감, 국제표준 개발 증진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교육통계에 관한 의견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통계는 정책수립과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UOE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 국제지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교육체제와 제도의 변화를 국제표준과 방법론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는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단계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이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유형을 기존의 국제교육분류체제 (ISCED)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교육기관 역시 그 목적이나 기능, 성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빠른 속도로 진행될 뿐 아니라 그 방향이나 정도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ISCED와 같은 국제표준이 어느 정도로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만큼, 국내 통계를 어느 정도로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 간의 간격이 클수록 통계 사용자나 생산자는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신뢰도나 활용도 차원에서 위협받을 것이다.

Comments on Education Statistics

- In the process of making and evaluating policies, a key component in the process has been internationally comparable educational statistics. As a member of the OECD, Korea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in UOE data collection for the past two decades. In conducting OECD educational indicators like the UOE, the biggest difficulty arises in reflecting the fast domestic changes in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on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thodology. For instance, in 2008, under a new government, various new types of schools were initiated at the level of upper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s a result, deciding where these new types of schools should be placed on the ISCED-97 classification has become a great challenge.
- Moreover, the objectives,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xist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evolved along with the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values and labor-market conditions. Such changes are not only rapid in their procession, but are also unpredictable in their direction and rate. In this cas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issue of how well the domestic statistics are reflect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just as essential as the extent to which the ISCED allows for comparisons between nations. Greater disagreements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will cause greater confusion for the users of the data, and will, therefore, result in threatening the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data.

11) 고용통계

“ILO 노동통계 및 18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 결과 리포트”

□ 개요

- 제 39차 유엔통계위원회
 - 영국통계청 노동통계 프로그램 보고서 논의
 - 제 18차 ICLS(노동통계 국제 컨퍼런스) 결과 및 검토 보고서의 권고안 이행 성과 보고 요청
- 제 18차 ICLS
 - 2008.11.28~12.5 , 스위스 제네바 / 112개국 250명 참가
 - 어린이 노동과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국제통계기준 채택, ILO 노동통계 방법론 개발 사업 등 논의

□ 향후 사업

- 노동력의 구조변화
 - 고령화
 - 근로인구 고령화 및 고령자 근로 참여율 추계
 - 비경제활동 고령인구의 잠재 노동력, 기술이전과 개발
 - 고령 노동력 활용/미 활용 통계 산출
 - 실업과 고용 간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설계
 - 고령자의 퇴직 행태 변화 측정 등
 - 근로 연관성 관련
 - 고용대책과 고용인구, 경제활동 청년인구와 퇴직 고령인구 등 다양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횡적 자료 수집/작성
 - 고용/실업과 직업통계의 새로운 구분
 - 근로인구 구조변화를 사회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자리(직업), 자원봉사 및 가사 근로자가 갖는 국민생산성/소득 증대 기여도를 고용/실업 통계에 포함
 - 경제활동과 가사 생산간 근로 이동,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규명
 - 'ICSE-93(93 국제표준고용지위분류) 개정
 - 경제활동인구통계/고용통계/실업통계 관련 국제기준 개정 검토

○ 노동통계 기본 틀과 근로 인구 변화

- 근로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통계 기본 틀 확대 및 통계 개발 등

○ 비공식 고용

- 향후 비관측 경제 및 비공식 고용 관련 통계 개선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 델리 그룹의 비공식 부문 및 비공식 고용조사 매뉴얼 작성
- 국민계정체계(vol. 2)에 비공식 고용 포함

○ 생산성 측정

- 노동통계 생산자 및 국민계정 작성자간 노동통계 개념, 정의, 방법론에 관한 공통의 이해 도출
- 노동 생산성 등 국민계정 지표 산출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 기타

- 양질의 일자리, 노동력 저 활용 지표 개발
- 실업률 지표를 보완하는 잠재 지표군(고용 침체, 저소득, 기능 불일치 등) 개발

□ 제 18차 ICLS 결과

- 개최주기: 3년 , 회의기간: 5일 , 회원국별 1인 이상 참가 등 결의
- 노동통계 관련 기술 자문역할 지속 및 2011년 제 19차 회의개최 결정 등

□ 고품질 노동통계 산출을 위한 기술지원

ILO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조사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과 기술지원 논의를 착수하고 이를 2010-2015년 전략 정책 주요 사안에 포함

□ 결론

2009-2014 사업 계획에 노동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국가통계기관과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와 국가통계기관 및 지역기관의 회의 참가, 실무 그룹 활동 독려

□ 논의사항

- 향후 사업 제안사항 검토
- 파리그룹(또는 파리 시티그룹) 위상 점검
- 국가 통계기관 및 범 국가차원 통계기관들의 실무그룹 사업주도 독려
- ILO 및 기타기관 사업지원
- 제 18차 ICLS에서 채택된 근로시간과 어린이 노동 결의안 및 행동계획 논의

노동통계에 관한 의견

- 18차 ICLS(국제노동통계인 총회, 08.11.24-12.5, 제네바)에서 논의된 ILO의 향후 주요작업 방향을 지지하며,
 - 특히, 실업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과 노동력 저활용 지표 개발은 매우 필요한 것이므로, 많은 나라가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함
 - 근로시간, 임금, 구직단념자 등 국가간 상이한 조사방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ILO 주관으로 개념과 방법론을 표준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ILO 향후 주요작업 분야 >

- ①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고용, 청년고용(학교→직장 전환), 활동상태간 이동(취업, 실업, 비경)에 관한 조사 및 지표 강화
- ②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 ③ 고용통계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
 - i) 일자리 부족(labor slack)의 측정: 실업자,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구직단념자 등으로 구성
 - ii) 노동력 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지표 개발
 - '일'의 개념을 확장하여 단순히 직장이 있다는 것을 넘어 ①적정임금, ②충분한 근로시간, ③교육수준과 기술의 매치를 고려해야함
 - 이를 반영하여 저임금 근로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기술 미스매치를 모두 측정하여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

Comments on Labor Statistics

- Korea would like to express full support to the priority areas of the ILO's future work as indicated in the discussion at the 18th ICLS(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Of special note is the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measurement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articularly, in the spirit of enhancing the fit between a statistical measure designed to describe the reality and the real world people observe in everyday life.
- Many labor statisticians agree that as far as unemployment is concerned, one indicator cannot do all. It is too insufficient to capture myriads of unemployment situations. There are discouraged workers, there are involuntary part-timers. In Korea, there is a unique group of people who are classified as economically inactive but actually, very close to unemployment: young college graduates studying in private institutes to prepare for job exams, to get job certificates, to learn foreign languages, et cetera. The number reaches over 300,000 people. This shows that unemployment rate alone cannot give us a full picture of labor market inadequacy.
- This issue is of great interest to Korea, as my Office is under constant pressure from policy maker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to bring unemployment statistics up to reality, to remove the gap between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and the perceived one.
- We hope that under the ILO Statistics Bureau's leadership, fruitful outcomes come out, so that many countries adopt the new guidelines to assess labor market conditions more accurately and more realistically. Thank you very much.

12) 성인지 통계

“여성폭력 측정지수에 대한 유엔통계위원회 FOC리포트”

□ 머리말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유엔의회는 유엔통계국에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위, 유포정도, 빈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지표들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39회 유엔위원회에서 의장단(Friends of the Chair group)이 설립

□ 배경

지표는 국가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와 폭력 자체의 심각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작성

- 물리적 폭력(Physical violence)
 - 지난 1년 동안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퍼센트
 - 일생동안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퍼센트
-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 지난 1년 동안 강간/성적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퍼센트
 - 일생동안 강간/성적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퍼센트
- 일상적인 파트너에 의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 지난 1년 동안 현재 혹은 과거 일상적인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퍼센트
 - 일생동안 현재 혹은 과거 일상적인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퍼센트
- 유해행위(Harmful practices)
 - 여성 생식기의 손상/절단을 당한 여성의 퍼센트
 -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퍼센트

□ 기술적인 평가

○ 기준(Criteria)

- 의장단은 각 지표들의 측정과 해석, 적절성과 정확성, 일반적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이러한 지표들을 평가
- 통계정보에 대한 해석가능성 : 통계정보를 해석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보충 정보와 메타데이터의 사용가능성
- 통계정보의 적절성 : 이 정보가 수요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정보 제공
- 통계정보의 정확성 :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정도
- 그 외에, 의장단은 국가통계시스템에서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지표들의 실행가능성을 지적

○ 개념, 정의 및 분류(Concept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 물리적 폭력
 -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해를 가하는 행동
 - 물리적 폭력의 심각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에서 측정
- 성적 폭력
 -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여성에게 성적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하는데 목적이 있는 행위
 - 두 가지 주된 분류는 강간(rape)과 강간의 시도(attempted rape)
- 가해자와의 관계
 - 일상적인 파트너(현재, 최근, 과거), 친척, 아는 사람, 회사동료, 정부 또는 낯선 사람,
 - 특히 여성이 공식적(결혼)이든 동의하의 동거관계에 의한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현재의 또는 최근의 일상적인 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혹은 성적 폭력이 강조

○ 통계정보의 원천(Sources of statistics)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 국가차원에서의 특화된 조사, 일반 조사나 다른 목적에 의한 조사에서 잘 디자인된 모듈 또는 행정정보 존재
- 통계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조사의 내용, 심사방법, 표본추출, 조사의

종류, 조사원교육, 응답자들에 대하여 안전 보장, 다른 사회조사와의 연계, 분석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음

- 결국, 의장단은 유엔통계위원회가 유엔통계국에 현존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경험들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통계생산 가이드 (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작성하여, 핵심이슈 및 부차적인 주제들, 자료의 원천, 적절한 통계적 분류, 결과물, 질문사항 및 모든 다른 적절한 이슈들에 대하여 완결된 방법론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기위한 기본적 지표들

- 폭력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및 빈도에 의한, 지난 12개월간 물리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총 여성의 비율과 특정한 연령층에 고유한 비율
- 폭력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및 빈도에 의한, 일생동안 물리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총 여성의 비율과 특정한 연령층에 고유한 비율
- 가해자와의 관계 및 빈도에 의한, 지난 12개월간 성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총 여성 비율과 특정한 연령층에 고유한 비율
- 가해자와의 관계 및 빈도에 의한, 일생동안 성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총 여성 비율과 특정한 연령층에 고유한 비율
- 빈도에 의한, 지난 12개월간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적인 파트너에 의하여 성적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총 여성 비율과 특정한 연령층에 고유한 비율
- 빈도에 의한, 일생동안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적인 파트너에 의하여 성적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총 여성의 비율과 특정한 연령층에 고유한 비율
- 또한,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조혼과 여성에게 극도의 위해를 가하는 여성생식기절단을 추천 목록에 추가
- 의장단은 “연간 femicides 비율”을 제안된 지표들에 추가할 것을 제안, 이 지표는 1년간 총 여성 살해를 말하며, 가해자, 성적 학대와의 관계,

피해자가 성매매여성인지여부에 따라 자세히 작성

- 이외에도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폭력, 스토킹, 어린이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성적 폭력, 강제 결혼, 일에 있어서의 차별과 경제적 폭력, 여성인신매매, 성적 폭력의 영향으로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는 것,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하부국가수준, 국가수준, 국제수준에서의 측정이 필요

□ 통계국에서 제안하는 활동

- 이 보고서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를 개발하는 첫 걸음으로서 인식
-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잠정 조치로서 받아들임
- 의장단이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의 연장선에서 지표들을 개발하고, 통계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유엔통계국이 핵심주제 및 부수적인 주제를 선별하고, 정보의 원천, 적절한 통계적 분류, 결과물, 질문지 작성 및 다른 모든 적절한 이슈들을 제공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통계 작성 가이드」를 작성하도록 촉구

성인지 통계에 관한 의견

○ 자료수집방법의 공유

- 세부적인 여성 폭력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죄수사기관 또는 병원보고 등에 의한 공식 통계가 아닌 미신고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제적 경험 공유를 원함

○ 성인지 교육의 선행 필요성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뿐 아니라 가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의 선행임
- 이는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조사결과가 현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국가별 성인식 수준 차이로 인하여, 인식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성폭력이 높게 나타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여성폭력에 대한 간접적 지표 개발 병행

- 여성폭력에 대한 지표의 개발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응답을 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지표의 경우, 간접적인 질문 개발 필요

Comments on Gender Statistics

○ Sharing method of collecting data

-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is concerned with the fractionated indica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our experience, most of the data concerning violence against women are from administrative sources; primarily police, judicial and health records.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quire information concerning unreported violence. We would like the UN committee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methods of gathering inform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 Precedence of gender education over gender survey

- Every woman and man who has been a victim, potential victim, perpetrator or potential perpetrator need to be educated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If a victim of violence does not recognize what she has suffered, the results of a gender survey could underestimate the actual violence. It can distort information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among nations by the level of recognition of violence; where recognition of violence is higher, the reports of violence against women may increase.

○ Developing proxy indica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y are necessary in developing proxy indica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especially in the cases in which a victim refuses to be surveyed as well as in other delicate situations.

13) ICP(국제비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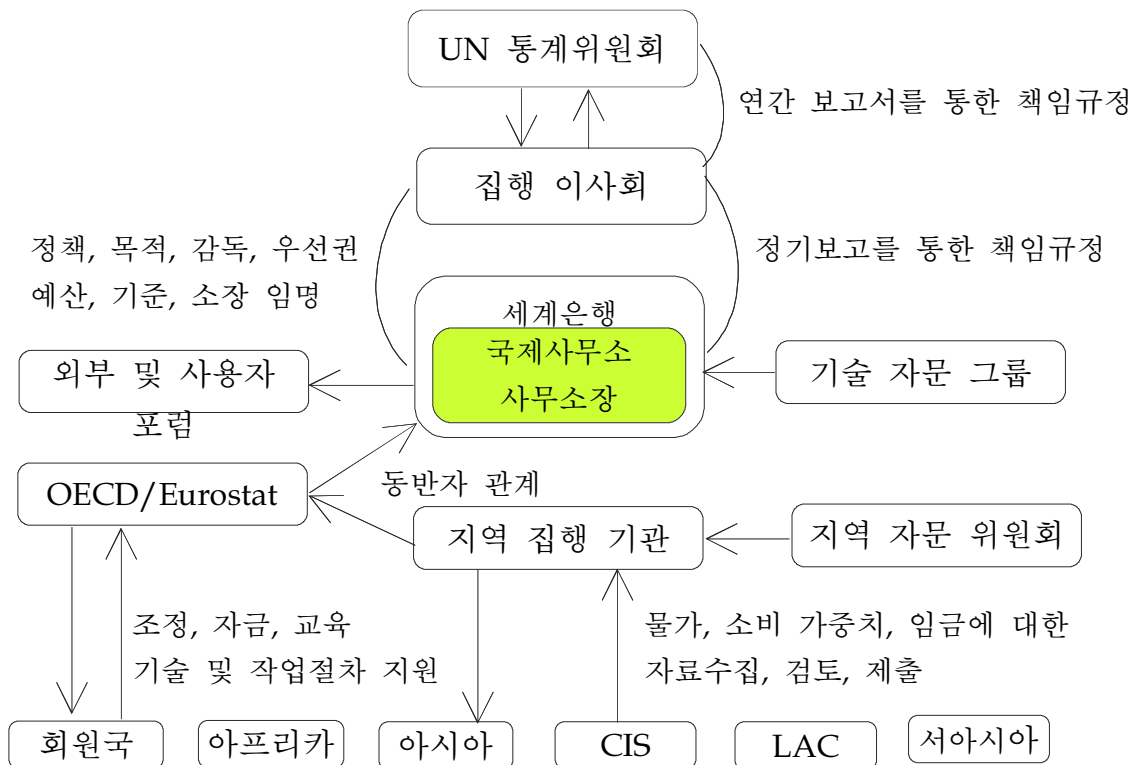
“국제비교 프로그램(ICP)에 관한 세계은행 보고서”

□ 개요

- 2005 라운드 146개국으로부터 수집한 가격과 기타 자료에 기초한 구매력 평가표(PPP, Purchasing Power Parity) 출간으로 종료. 2005 라운드는 국제기구, 지역기구, 회원국간 광범위한 동반자 관계 형성
- 2011 라운드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필요한 사항은 명백하고도 광범위하게 합의된 지배 구조 개발과 명확한 작업 프로그램 출범

□ 2011 라운드를 위한 지배 구조

- 2011라운드를 위해 제안된 지배구조



- 2011 라운드를 위한 의장단(FOC) 권고
 - 집행 이사회 : 윤번제 회원 지명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 필요
 - 국제 사무소 : 상위 조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명시화하고
물가 통계와 국민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국
통계청과 협력체 설립
 - 사무소장 : 사무소장 권한을 강화하고 집행 이사회 회원의 소속 위원회
에서 임명 권고
 - 협력체 : 차기 라운드 초기부터 OECD, Eurostat과 협력 강화

□ ICP 기본 원칙

- ICP성공은 PPP 측정에 사용되는 가격과 국민계정 자료의 품질에 의해 좌우
- 모든 참가자가 동의한 방법론, 사업 계획, 일정에 집행부는 기술적으로
좋은 자료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지역, 국제기구 간 효율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ICP의 법적 지위

- ICP는 많은 기관이 연관되어 전문적인 협력을 하는 국제 통계 협력체로
국가, 지역, 세계 단위 기관이 비용을 공동 분담
- 국제조정업무는 국제사무소가 수행하며 2005 라운드 비용은 세계은행이
관리하며 운영 및 재정상 책임은 분권형으로 기관의 행정 및 재정 규칙에
따라 수행
- ICP는 독립된 법적 실체를 가지지 못하여 2011 라운드에는 특정 프로
그램별로 관련 상태를 정형화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
- MOU는 UN통계위원회와 세계은행을 대신하여 UN 통계국에서 작성
여기에는 주최 기관의 역할과 책임, 통계위원회에 대한 보고 관계 등을
명기하고 집행 이사회와 그 회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정형화, 기록 유지와
의사결정의 문서화 절차 설치

□ 2011 라운드 사업 프로그램

○ 지배 구조 정착

- 통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8년 2월 제39차 회의에서 ICP 임시 집행위원회(IEB)가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FOC 그룹의 의장이 수행
- 회원은 FOC 그룹과 2005 집행위원회의 관심 있는 회원을 포함. 2011 라운드 준비와 조직 형성을 위해 2008년 6월과 10월 회합하여 6월 회합에서 선정된 회원으로 구성된 소속 위원회가 운영 관련 사항을 처리
- 집행 이사회 구성과 의장 선임, 최소한 두 번의 회합
- 지역 집행기관 선정 및 지역사무소 설치
- 5~7명의 핵심 회원을 포함하는 기술 자문그룹 구성 및 의장 선임
- UNSD와 세계은행간, 국제 사무소와 지역집행기관간 MOU 체결

○ 국제 사무소 설치

- 사무소장 임명 및 협력관계 확립과 MOU 체결
- 첫 번째 사업계획 작성과 이사회의 추인
- 보고 시스템 확립과 분기 및 연간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2005 라운드의 잔여 활동

- 자료 이용자 지원 제공
- Metadata를 포함한 DB 갱신과 문서화
- 특별 보고서 준비 및 배포 및 ICP 홈페이지와 게시판 지속 운영

○ 자료 이용자에 대한 홍보

- FOC 평가는 2011 라운드에는 공식적인 사용자 홍보 그룹 설치를 포함하는 자료 이용자와 상호교류 증가를 권고
- 국제사무소는 홍보전략 및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추인
- 계획은 2010년 개최 예정인 제1차 사용자 회의를 목표로 하여야 함
- Website 개설, 초기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 각 지역의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모든 지역 집행기관과 토의

○ 2011 라운드 제정

- 사업비용은 이해관계자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자금은 사업 수행뿐 아니라 통계 개도국의 능력 형성 지원에도 사용
- 2005 라운드를 통해 비용이 과소 계상의 문제점을 인식
- 2011 사업을 위한 자금 요구서 작성 및 기금 증가 프로그램 준비
- 자금 수요 파악과 기금 증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집행기관과 토론

○ 지역 사무소 설치

- 모든 지역 집행기관 설치 및 최소한 2번의 지역 조정관 회의 개최
- 국제사무소와 MOU 체결 및 지역 사업계획 작성 및 합의

○ 기술적 사항 보고

- 기술 자문그룹 재설치 및 의장 임명
- 기술 및 연구 우선순위를 보고하기 위한 연구 아젠다 개발

□ 논점

- 제안된 지배구조, 2009년 사업계획, 자료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홍보 방안 등을 검토, 토론하여 의견 개진
- 2011 라운드 준비 진행사항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코멘트

14) 아태지역 통계발전

“ESCAP 리포트”

□ 요약

- 아태지역 국가들의 최근 통계발전 현황을 개괄하고 앞으로 이 지역의 통계역량 구축을 위한 현안과제를 파악하고자 함
 - 주요한 제도부문 및 기술역량의 발전 추이를 살펴봄
 - 양자 및 다자간 통계협력 관계의 중요성 강조

□ 괄목할 만한 통계발전

- 아태지역의 다양성
 - 경제발전 정도, 인구특성, 지리적 분포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이 지역 국가의 통계발전 수준 및 역량구축 필요성도 상이
- 한국 포함 통계 선진국들은 통계시스템 개선에 선도적 역할 담당
 - 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DB 구축으로 자료이용도 극대화
- 개도국들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통계발전에 큰 진전 보임
 - 통계관련 법규 제·개정 노력, 자료수집 및 배포 기법개선 등
- 통계역량지표(SCI)에 의한 평가
 - 아태지역은 라틴아메리카 보다 낮고 아프리카 보다 높게 평가
 - ※ SCI : 국가통계역량 평가를 위한 종합지표로서 세가지 요소로 구성
 - i) 필요통계 유무 및 국제기준의 준수여부
 - ii) 자료수집 능력(센서스, 각종 가계조사, 인구등록시스템 등)
 - iii) MDGs, GDP 등 중요 사회경제지표의 이용가능성 여부
- 세계 프로그램에 아태지역의 높은 참여는 통계발전 정도를 반영
 - 2005 ICP(국제비교 프로그램)에 23개국 참가 ('93년 13개국)
 - 태평양 도시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이 2010 인구센서스 추진
 - ※ ICP : GDP, 물가지수, 통화 구매력 등의 기준 사용하여 국가간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프로그램. 한국과 일본은 OECD/Eurostat 지역 ICP에 참가

□ 법규 및 제도정비 강화

- 국가통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관련법규, 정치적 안정, 정부의 노력(관련 타부처와 공조) 등임
 - 통계법은 NSO의 독립성과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통계품질 향상, 행정자료 활용촉진, 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 통계발전 Road Map으로서 국가통계 발전전략(NSDS) 수립
 - NSDS는 국가 전반의 발전계획과 연계될 때 효과적

□ 기술적 역량 개선

- 지속가능한 자료수집
 - 정기적 센서스(인구, 경제, 농업 등) 실시
 - 가구조사는 특히 사회통계(보건, 교육, 빈곤 등)의 중요 자료원
 - 행정자료 및 인구등록통계의 개선도 중요. 대부분 개도국은 완전한 인구등록시스템 미비
- 통계 통합시스템 개발은 모든 국가의 공통과제
 - 다양한 자료원의 통합으로 응답부담, 조사비용, 자료지속성 개선
- 국제기준의 이행 : GDDS에서 SDDS로 이행
 - 경제통계는 사회통계 보다 통일된 국제기준이 발전됨
 - 경제통계의 국가역량을 SNA, GDSS, SDDS를 사용하여 평가
 - 아태지역에서 15국이 SDDS, 18국이 GDDS에 가입
- 국민계정 통계 작성
 - UNSD는 '93 SNA 이행을 촉구. 최소요구자료(MRDS)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국민계정 내용을 모니터링
 -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고려, 경제통계작성 능력은 시급한 현안

□ 통계발전의 장애요인

- 정치적 지원 부족에 따른 예산 및 인적자원 부족
- 통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NSO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으며 공식통계에 대한 신뢰상실 우려 상존

□ 향후 발전방향

- 효율적인 통합 통계시스템 개발
 - 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의 통합
 - 통계기준 설정, 통계조정 등 NSO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자료의 불일치 감소 및 응답부담 경감
- 경제통계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능력 제고 필요
 - 사회·환경통계 분야의 국제기준 개선이 시급
- 핵심 사회·경제통계 생산능력 확보
- 품질평가 메카니즘 구축
- 편리하고 효과적인 자료이용의 촉진
- 상시 통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국과의 공제체제가 필요한 부분
-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wldurgusds에 고위급의 적극 참여
 - ESCAP 통계위, SIAP 집행이사회 및 관리세미나 등

□ ESCAP의 전략

- ESCAP은 지역통계발전이 구심점으로서 SIAP과 상호보완 역할
 - ESCAP은 국제기준 및 방법론 분야의 기술협력에 중점
 - SIAP은 기준과 방법의 실제적용을 위한 통계연수에 중점
- ESCAP의 통계역량 구축을 위한 지도원리
 - a) 국제기준 개발 및 이행의 촉진하면서 지역입장도 고려
 - b) 새로운 통계수요가 제기되는 분야에 우선순위
 - c) 국제, 지역, 소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d) 다양한 활동과 병행하여 지역통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e) 개별국가의 우선사업 추진 후 성공사례를 전체로 확대

아태지역 통계발전에 대한 의견

- (21-25 항목 관련) 통계법 개정은 한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여타 통계작성기관과의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계품질 향상, 행정 자료 활용, 편리한 자료이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8-50 항목 관련) 대규모 조사에서 응답률 저하 등 문제 직면
 - 한국통계청은 IC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구총조사에서 인터넷 조사방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등록기반 센서스를 추진할 예정

- (65-66 항목 관련) 한국 통계청은 통계역량 구축을 위한 국가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기술협력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 양자협력, 스터디투어, KOICA와 공동의 연수프로그램 등이 그것임.

- (58, 74 항목 관련) 한국은 아·태통계연수소(SIAP)가 지역 내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함.

Comments on reg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 The revision of statistics law in 2007 was intende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leading role of the KNSO in functioning its national statistical system. Among the salient features of the revision is strengthening the coordinating power of the KNSO with other statistics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involved in statistics production.
 -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I firmly believe that this movement will bring dramatic change in building statistical capacity in the near future by promoting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calling for regular quality assessment of official statistics, and providing one-stop service of national statistical data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users.
- As is mentioned in the report, we are increasingly facing common challenges such as low response rate among others when conducting large-scale census.
 - In this regard, KNSO made attempt to take full advantage of ICT tools in 2005 population census and we intend to enhance the coverage up to 30% in 2010 round census, which will help reduce response burden and improve data quality as well. Further, we plan to move towards register-based census for the first time in 2015.
- I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echnical cooperation with nations across the world and we are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cooperation.
 - KNSO has built bilateral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Mongolia, Vietnam, Thailand, Iran, China and Japan to discuss statistical issues facing each agency and explore effective solutions to their issues collectively.

- Regarding the study visits, KNSO invited study tour delegations from several countries that requested for training courses on statistics. Last year three delegations from Mongolia and Malaysia visited our office to receive training in the field of Housing Price Index, IT and Agricultural statistics.
- In addition, KNSO has conducted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close cooperation with KOICA. Last year, four projects were conducted including one for Asian-African statisticians and three for Iraqi officials. This year, KNSO is planning to open two courses including one for Asian-African statisticians and one for Mongolian statisticians.

※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I believe that the training courses provided by SIAP have contributed a lot to building statistical capability in many developing nations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and that this effort need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for those who still heavily rely on SIAP programmes.
- In this regard, I feel obliged to contribute more to the operation of SIAP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SCAP. Thank you!

15) 개발지표

□ 개요

- 2005년 36차 유엔통계위원회 이래 국제적 기준과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논의 되었고 이에 대한 데이터 및 보고 시스템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 MDG 지표에 대한 공동 권고안 이행을 위한 특별 단계 착수
- 게다가 39차 위원회에서는 IAEG에 대해 MDG관련 지표에 대한 각국의 통계 생산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권고안을 더욱 발전시켜 40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 데이터의 질과 조사방법의 투명성 개선

- 2007.11월 제 12차 세션에서 IAEG는 국제 비교 증진을 위해 각국과 국제간 통계 데이터 격차 및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가통계 시스템과 국제기구에의 보고 절차에 대한 조율 기능 개선 권고안에 동의 하고 조율자로서 UNSD의 역할을 강조
- 우간다 통계국 주관 첫 번째 워크숍 개최
 - 국가 통계의 조율자로서 통계청의 역할과 각 국 상황에 맞는 MDG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지원 강조
 - 국제기구는 각국과 국제간 통계 데이터 불일치 해소를 위한 개념과 정의, 방법론에 대한 개발과 MDG지표 생산을 위해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각 국이 국제권고안과 일치하는 개념 정의를 만들기 위한 역량 구축 노력
 - 이를 위해 UNSD는 MDG 데이터의 수집, 이용가능성, 보급 개선을 위해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시험조사 중
 - 행정자료 등록과 인구동태통계시스템 발전, 통합 가구조사 프로그램 이용 홍보
- MDG 지표 데이터 향상을 위한 IAEG 활동
 - MDG 지표생산을 위한 메타데이터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훈련 기법 및 프로그램 제공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NSO의 가구, 개인 조사시 ICT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매뉴얼을 완성, 2009년 초 초판 발행 예정

- FAO : 식량 부족에 대해 MDG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식량안보 통계 생산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 2008년 코스타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기반 훈련 워크숍 개최
- Geneva MDG Trade Group : 2008년 무역 지표 생산과 사용을 위한 메타데이터와 통계작성 방법 노트 업데이트
- 그 밖에 UIS(UNESCO 통계위원회), ILO 등 : 정기적 자문활동, 지역 기반 워크숍 개최, 기술 지원 활동

□ MDG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및 조사방법 검토

- 각국의 통계역량 구축 향상에 대한 권고안 발전
 -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발전 평가 기법 개발
 - 하부 국가적 차원에서 MDG와 사회발전 모니터링 관련 정책 홍보
 - 다양한 지역의 산출물을 이해하기 위한 공식 통계 보완
 - 국제간 차원에서 현재 지표에 대한 명백한 개념 정의
- 2008.10.28~30(14차 세션) : 빈곤 측정에 대한 데이터와 조사방법 검토
 - 데이터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간 데이터 불일치를 감소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보고 시스템 및 MDG핸드북을 전파, 각 국 통계청의 메타데이터 이용과의 조화 촉구
 - 지역별 수준에서 분석과 모니터링을 이미 수행한 나라들과의 경험 공유 기회 제공을 UNSD에 요구
 - 행정자료 이용 확대 권고
- ICT를 활용한 조사
 - 무역 발전과 영향을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무역센터 활동 검토
 - 금융 통계 생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재무부의 통계역량 강화
- 국가, 국제간 합의 사항
 - 국가, 국제간 모니터링 조정,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 도출
 - 새로운 매뉴얼과 이용 가능한 훈련 기법 강화

□ MDG지표의 데이터 유용성 평가

- 7년 전 MDG를 향한 사회발전 정기 평가 시작
 - 2006년 이후 UNSD는 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데이터 생산을 위한 역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글로벌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역 총계의 현실반영정도 판단
- MDG 사회발전의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유용성 향상
 - 2000년 이전에 비해 개도국의 절반이상이 30개 이상 MDG 지표에 대한 추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 2005.11월과 2007.7월 두 시점에 30개 이상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한 나라에서 70개국으로 증가
- 여전히 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 격차 존재

□ 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이해와 해결

- UNSD 지역 위원회는 최근 국제간 데이터 유용성과 가치 차이에 대한 종합 평가 수행

□ 2008 IAEG 활동 결과

- MDG2008리포트 발간(2008.9월)
- MDG 2008 차트 (1990~최근) 웹사이트 게재
- UNSD는 DevInfo Group과 협력하여 MDG Info 40판 발행(2008.9월)

□ 결론 및 향후 과제

- 국가, 국제간 모니터링 조장 활동 지속
- 새로운 MDG 핸드북 배포를 포함한 훈련 도구 강화
- 하부국가차원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한 훈련 제공

16) 인구주택총조사

□ 2010 센서스 라운드 개요

- 2008년 말 기준, 전세계 인구의 21%에 대한 센서스 완료
- 리베리아, 수단, 부탄, 나이지리아, 북한을 포함한 64개국이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하는 등 이전 라운드(1994-2004)보다 개선되었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센서스 실시를 연기하기도 함

□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활동

- 센서스 국제 가이드라인
 - 인구주택 센서스 원칙과 권고안 2차 개정안 출간
 - 수치지도 및 GIS 핸드북 수정 (최신기법, 틀, 모범사례 등 수록)
- 전문가그룹 회의
 - 수치지도 및 GIS 핸드북(2000라운드) 검토 회의(2008. 4. 7-19, 뉴욕)
- 훈련 워크숍 센서스
 - 자료처리 기준, GIS 최신기법, 센서스 지도 활용 교육
 - 아시아지역 워크숍 (2008. 9. 15-19, 태국) 등
- 웹사이트 <http://unstats.un.org/unsd/census2010.htm>
 - 2010 센서스 라운드 소식, 워크숍, 교육훈련 공지, 2010 라운드 뉴스레터 수록
- CensusInfo 2010
 - DevInfo, UNICEF, UNFPA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국가별 센서스 결과 공표 지원
- 2010 라운드 국가별 필요사항 파악을 위해
 - 국가별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소요예산, 자금지원 국가, 기술지원 필요 등)
 - 위 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국가별 센서스 총비용 및 1인 당 비용, 총 소요비용과 국가지원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 향후 사업

○ 국가별 센서스 실시 점검

- 국가별 센서스 실시 현황을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 국가별 센서스 기간 공지 (<http://unstats.un.org/unsd/census2010.htm>)
- 센서스 단계별 국가 요청사항 확인 및 지원 실시
- 이행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기술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 발간

- 센서스 사후조사 등 센서스 평가 기법들과 장단점 비교
- 표본조사 설계, 이중체계추정방식, 도표기법 등
-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품질 가이드라인

○ 훈련 워크샵

- 품질 확보와 센서스 평가 워크샵 (2009년)
- 센서스 기반 장애 및 경제활동 측정 워크샵 실시(2009년)

○ 센서스 정보 제공용 소프트웨어 CensusInfo 2010 개선 (2009년)

○ 센서스 대체 방안 논의

- 순환센서스, 가상센서스, 개량센서스(reengineered census), 등록기반센서스

○ 온라인 자원센터 관리

- 2009 센서스 관련 활동을 웹사이트에 지속 게재하며, 지식기반에 축적

○ 기술지원 및 기타

- 국가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술지원 노력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의견

- 현장조사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을 도입하여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인 센서스를 등록 센서스(**Register-Based Census**)로 대체
- 한국 통계청도 센서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0년 센서스에서는 인터넷조사 참여율 30%, 우편조사 참여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5년 센서스에서는 인구 주택에 관한 기본항목인 전수항목은 주민등록, 건축물 대장 등 행정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 행정자료로 얻기 어려운 표본항목은 현장조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Comments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Because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interview respondents,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adopt internet survey and mail survey, and some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replaced a traditional census with a register-based census.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has also tried to make a census more cost-efficient, and to reduce the burden of respondents.
 - For the upcoming 2010 Census, we expect the participation rates of internet survey and mail survey to be 30% and 20% respectively.
 - For 2015 Census, KNSO is reviewing to introduce a register-based census for the short form, using the registers of population, housing and family relationship.
 - However, we will maintain the traditional field survey for the long form,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llect data from the administrative sources for it.

17) 사업체등록부

“사업체등록부 비스바덴 그룹 보고서”

□ 21차 비스바덴 그룹 회의 개요

- 2008. 11. 24-27, OECD 주관, 39개 국 85명 참가
- 세계화에 따른 사업체등록체계논의
- 사업체 조사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on BSF)을 비스바덴 시티그룹으로 확대개편

□ 회의 내용

- 세션 1 : 32개국 국가 보고서
- 세션 2 : 생산자 및 사용자 관점에서 본 통합 통계시스템의 필요성, 기업 통계 근간으로서 사업체등록부, 구조적 기업통계의 필요성, 서비스업 분야로 자료수집 확대 등 논의
- 세션 3 : 다국적 기업의 역할, 역동적 기업구조 관리, IT 역할과 자료공유 등
- 세션 4 : 정보와 자료 공유 개념 및 기법
- 세션 5 : 사업체등록부 개선 프로젝트, 사업체등록부 ID 표준화와 품질, 자료공유 부족 문제 해결 등 논의
- 세션 6 : 새로운 연구과제로서 기업가정신 지표, 기업현황통계, 중소기업 통계, 다국적 기업 측정 등 제시
- 세션 7 : OECD 신규가입국 및 BIICS, 개발도상국 사례 및 해법

□ 향후 계획

- 비스바덴 그룹 회의 개최 (2010. 9. 27-30, 에스토니아)

18) 정보통신기술(ICT)통계

“ICT 측정을 위한 연대 리포트”

□ 개요

- 2007년 제 38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ICT 핵심지표 목록 승인 및 관련 자료 수집능력 구축을 위해 개별국가에 지원 요청
- 교육분야 ICT 집계, 개정 지표 목록, 2007-8 MICTD 사업 내용 수록(부록)

□ MICTD(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측정 연대)

○ 방법론

- ICT 통계 기준 개발
- ICT 핵심지표 군 수정 (교육, 정부 관련 ICT 추가 등)
- ICT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 능력 구축

- 태스크 그룹, 개도국 능력구축과 기술지원 사업 실시
- UNCTAD(국제무역개발협의회), ITU(세계전기통신연합) 제공 교육훈련 실시, 국가 기술자문 등

○ 자료수집과 공표

- '통계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 정보사회' 발간 (2008. 5)
- 핵심지표 목록과 메타 데이터를 유엔통계청 자료 포털에 수록 (2008. 10)

○ 협력 및 거버넌스(또는 관리체계)

- MICTD 회원간 MOU 체결 (2007)
- 운영위원회 선출(2008. 5. 30, ITU, UNCTAD, ECLAC로 구성)

□ 정보통신기술(ICT) 지표

- 핵심 ICT 지표 군 개발 (2004-05년)

- 38차 유엔통계위원회, 핵심 ICT 지표 승인 (2007년)
 - ICT 인프라, 접근성, 기업/가구/개인 이 용정 도, 정보통신기술 부문, 정보통신기술 상품 무역 등
- 핵심 ICT 지표 개정
 - 근거 정보경제 통계산출 매뉴얼, 통신지표 핸드북, Eurostat 조사, 유엔 통계청 및 ILO 국제기준 변경 등
 - 개정안: http://new.unctad.org/templates/Event___888.aspx
(교육분야 8개 지표 추가 등)

□ 향후 계획

- 국제비교 가능한 ICT 통계 개발
- 전자정부 관련 지표 개발 등 핵심지표 군 개정
- 전자정부 태스크 그룹, 정부 내 정보통신기술 이용 측정 방법론 개발
- ICT 영향 측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 설립
- MICTD 회원간 의사소통 수단 개선
- WSIS(정보사회정상회의) 목표 및 M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정보통신기술(ICT)통계에 대한 의견

□ 목적

- 제40차 UN통계위원회 회의 중 논의 될 정보통신기술통계 분야 의제 중 'ICT 핵심 지표(개정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대응방안 마련

□ 경과

- '05년 2월 ITU, OECD, UNCTAD, UN 지역위원회 등 10개 국제 기구는 제2차 WSIS(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05년 11월, 튀니지)를 준비하며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Thematic Meeting'을 개최
 - 제1차 WSIS('03년 12월) 실행계획에 의하면, 새천년 목표 중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ICT를 활용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지표를 작성
 - 동 회의를 통해 기초 인프라 및 접속 지표(ITU), 가구 및 개인의 ICT 이용 지표(OECD), 사업체의 ICT 이용 지표(OECD, UNCTAD) 등 ICT 분야 핵심지표가 선정
 - 우리나라는 정통부 담당자 및 산하기관 전문가를 파견하여 '라디오 보급대수'와 '국제인터넷대역폭'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
 - ※ 우리나라 대표단의 의견 미반영
- '08년 5월 ITU, OECD, UNCTAD, UN 지역위원회 등 10개 국제 기구는 '05년 선정한 ICT 핵심지표를 개정하기 위해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파트너십 회의'(UN 유럽본부, 제네바)를 개최
 - 방통위 담당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구 당 이동전화가입자'와 '인구 당 국제인터넷대역폭'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트너십이 제안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
 - '인구 **100명 당 이동전화 가입자**' 지표의 경우 선불카드 구입자가 포함되어 국가 간 비교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고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목표치를 도입할 것을 주장**
 - ※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우리나라 의견에 동의를 표명

- '인구 당 국제인터넷대역폭' 지표의 경우 비영어권 국가 및 자국 인터넷 콘텐츠가 풍부한 국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 지표로 대체 또는 병행측정 필요성 제기
 - ※ 대표단은 공식회의와 별도로 UNCTAD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결정문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ITU 실무자에게 '국내 인터넷 트래픽' 지표를 ITU 회원국 통계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 동 회의 결과, 인프라 부문에서는 기존 지표 중 '인구 당 컴퓨터 수', '인구 당 라디오 수' 및 '인구 당 TV 수'를 삭제하고 '인구 당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를 추가
 - ※ 이동전화가입자에는 3G 가입자를 포함하도록 정의 수정
- 가가와 기업 부문은 일부 지표의 정의 수정 및 범례 추가 이외에는 대부분 기존 지표를 유지
 - ※ 단, '기업의 이동전화 보유율'을 신규지표로 제안
- 파트너십에서는 '08년 7월까지 국가별 의견을 수렴 후 '09년 2월 UN통계위원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공고

□ 주요 의제분석

○ ICT 인프라 및 접속 지표 분야 수정 사항

- '05년 지표 안에서 기초 핵심지표와 확장된 핵심지표로 구분한 분류를 삭제
- 기존 지표 중 '인구 100명당 컴퓨터 수', '인구 100명당 라디오 수', '인구 100명 당 TV 수' 삭제
-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지표의 경우, 선불카드 구매자 중 최근 3개월 간 이용경험이 없는 비활성 이용자를 제외하도록 지표 정의를 수정
-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지표는 유·무선을 구분하여 2개의 지표로 세분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중 fibre은 2009년 초 ITU의 WTI(세계정보통신지표회의) 회의에서 별도 분류 예정
- 그 외 지표는 '08년 파트너십 회의 시 제출된 개정안에서 추가

수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

○ 개인 및 가구의 ICT 이용 지표 분야 수정 사항

- '05년 지표 안에서 기초 핵심지표와 확장된 핵심지표로 구분한 분류를 삭제
- 기존 지표 중 '라디오 보유 가구 비율'과 'TV 보유 가구 비율'에서 라디오와 TV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
 - ※ 라디오: 자동차 및 알람시계에 부착된 라디오는 포함하되 이동전화, MP3 및 이동전화와 컴퓨터에 통합된 라디오는 제외
 - TV: 케이블과 위성방송 TV는 포함하되 컴퓨터와 이동전화에 통합된 TV는 제외
- '가정의 인터넷 접속형태별 비율' 지표의 범주를 기존 '아날로그 모뎀, ISDN, DSL, 케이블모뎀, 기타 협대역, 기타 광대역'에서 '협대역, 유선 광대역, 무선 광대역'으로 구분
 - ※ 협대역: 전화모뎀, ISDN, 256Kbit/s 미만의 DSL과 이동전화(CDMA 1x;Release 0, GPRS, WAP과 I-mode 포함)
 - 유선 광대역: 256Kbit/s 이상의 DSL, 케이블 모뎀, FTH, 전력선, 위성, 고정형 무선, 무선LAN, WIMAX
 - 무선 광대역: 256Kbit/s 이상의 W-CDMA, UMTS, HSDPA, HSUPA, CDMA2000 1xEV-DO, CDMA2000 1xEV-DV
- 그 외 지표는 '08년 파트너십 회의 시 제출된 개정안에서 추가 수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사업체(기업)의 ICT 이용 지표 분야 수정 사항

- '05년 지표 안에서 기초 핵심지표와 확장된 핵심지표로 구분한 분류를 삭제
- ICT 부문 기초 핵심 지표를 별도 분야로 구분
- '08년 개정안 대비 추가 수정 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

○ ICT 부문 지표 분야 수정 사항

- '05년 지표 안에서 사업체 분야에 속하던 것을 별도 영역으로 분류
- '08년 개정안 대비 추가 수정 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

○ 교육 분야 ICT 지표

- '05년 지표 안 대비 신규로 추가로 분야 및 지표

< 교육 분야 ICT 지표 >

| | |
|----------------------------|--|
| ED1 | Proportion of schools with a radio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by ISCED level 1 to 3) |
| ED2 | Proportion of schools with a TV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by ISCED level 1 to 3) |
| ED3 | Proportion of schools with a telephone communication facility (by ISCED level 1 to 3) |
| ED4 | Student-to-computer ratio (by ISCED level 1 to 3) |
| ED5 | Proportion of schools with Internet access, by type (by ISCED level 1 to 3) |
| ED6 |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access to the Internet at school (by ISCED level 1 to 3) |
| ED7 | Proportion of students enrolled by gender at the tertiary level in ICT-related fields (for ISCED levels 5 and 6) |
| ED8 | Proportion of ICT-qualified teacher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
| Reference indicator | |
| EDR1 | Proportion of schools with electricity (by ISCED level 1 to 3) ³³ |

□ 대응방안

○ 표제의 회의에서 결정되는 ICT 핵심지표는 국제기구 작성 통계 포함 및 각종 보고서 인용과 국가경쟁력평가에 이용될 것이므로 파급효과가 지대

- ITU의 세계정보통신지표 DB, OECD의 Key ICT Indicators, World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추가

- OECD의 ICT 이용에 관한 사업체, 개인 및 가구 설문지(안)에 반영되어 OECD 회원국의 국내 통계조사 항목에 추가

※ 우리나라는 정부승인 지정통계인 '정보회통계조사(행안부)'와 '인터넷실태조사(방통위)'에 국제기구 제공 목적으로 반영(매년 OECD, UNCTAD 제공)

-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와 ITU의 ICT 발전지수('09년 3월3일 최초 발표 예정), UN의 전자정부준비지수에 지표로 포함 예상

- 실용정부에서도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가경쟁력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부처별 긴밀한 대응을 요구

○ 표제의 회의 참가 시 우리나라 정부(정통부, 방통위)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호국가의 동의를 유도하는 전략 필요

-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국가경쟁력평가에 이용되는 ICT 부문 지표 중 몇몇 지표가 우리나라 실제 수준을 왜곡하는 것에 주목하여

정통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에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 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 36위(2008년 IMD 국가경쟁력지수)

- 특히, '이동전화 가입자 수'와 '국제인터넷대역폭'에 대해서는 '05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ITU가 개발 중인 'ICT 발전지수'에 대응하여 상기 지표의 제외를 강력 주장

※ '07년 ITU의 WPI 회의 시 우리나라 대체(안) 제안 및 '08년 파트너십 회의 시 문제제기 ('09년 ICT 발전지수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 검토의견 제출 및 방통위 담당의 ITU 방문 등)

- 그간 유관회의를 통해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우리나라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지지하였으므로 사전 접촉 등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참고 1> ICT 핵심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기존 입장(정통부/방통위)

o 인구 100명 당 이동전화가입자 수 : 집계방식 수정

- 후불식 가입자와 선불카드 구입자를 합계함으로 인해 현실 왜곡 야기
-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목표치(인구대비 100%)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Adoption of 'goal post' methodology

Adoption of 'goal post' will enhance credibility of measuring mobile subscribers per capita. In some countries, mobile subscription rate exceed 100%, however, mobile subscription rate exceeding 100 per cent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high ICT opportunity since the universal access condition for mobile service is 100 per cent. More than 100 per cent in mobile subscription rate are happening in countries which use prepaid card based subscription and lots of foreign residents are living. For instance, as prepaid cards bought by temporary foreigners are counted as subscription resulting those countries exceeding the rate of 100 per cent since subscription rate is calculated based the number of citizen. A solution to this shortcoming can be setting a 'goal post' of 100 per cent whereby, all cases exceeding 100 per cent will be assigned as 100 per cent. Indeed, a survey method which is collecting data by asking each individuals whether they subscribed mobile service or not, will eliminate such mis-counting and employing a goal post will be not necessary. However, when using data provided by service operators, a 'goal post' method must be adopted.

o 인구 당 국제인터넷대역폭 : 타 지표로 대체

- 자국의 인터넷 콘텐츠가 풍부한 국가나 비영어권 국가 저평가
- 자국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인터넷 트래픽으로 대체 필요

Inappropriateness of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indicator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indicator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nation's main goal for ICT development is to facilit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its people and enhance social development. Thus, emphasis must be on

measuring interaction between people within the nation rather than international traffic. Therefore, eliminating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will be more appropriate. Furthermore, in terms of the updated situation, telecommunication channels are transferring from voice calls via PSTN to VoIP over IP network, and various ways of data transition such as emails and messengers are being used. However, VoIP is not yet included in the voice call measurements. Therefore, we suggest to use only domestic Internet traffic as a indicator for measuring of ICT utilization.

Traffic is the best indicator to measure volume of information exchange. Yet, this remains a difficult task and thus, we suggest to use bandwidth as a proxy measure. While the Background Paper agrees with the importance of domestic Internet bandwidth, the Paper indicates the difficulty to measure domestic Internet bandwidth. Korea, however, has successfully collected domestic Internet bandwidth data through a simple survey on local ISPs. Such Korean methodology could be shared with other ITU member states in order to yield domestic bandwidth indicator in an efficient way.

'08년 정보사회 측정 파트너십 ICT 핵심지표 개정초안

□ 기초 인프라와 접속 핵심지표

| 기초 핵심(Basic Core) | | 비 고 |
|-----------------------|---|---------|
| A-1 |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 현행 유지 |
| A-2 |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 정의 수정 |
| A-3 | 인구 100명당 컴퓨터 수 | 삭제 |
| A-4 |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 | 정의 수정 |
| A-5 |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유·무선) | 유·무선 분리 |
| A-6 | 인구 당 국제인터넷 대역폭 | 측정단위 수정 |
| A-7 | 이동전화에 의해 커버되는 영역의 주민 비율 | 현행 유지 |
| A-8 | 월수입 대비 인터넷접속 요금 비율(1개월 당 20시간, US \$) | 정의 수정 |
| A-9 | 월수입 대비 이동전화 요금 비율(1개월 당 100분 이용, US \$) | 정의 수정 |
| A-10 | 주민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IAC(공공접속센터)의 비율 | 현행 유지 |
| 확장된 핵심(Extended Core) | | 비 고 |
| A-11 | 인구 100명당 라디오 수 | 삭제 |
| A-12 | 인구 100명당 TV 수 | 삭제 |

□ 개인 및 가구의 ICT 이용

| 기초 핵심(Basic Core) | | 비 고 |
|-------------------|-----------------------------|-------|
| HH-1 | 라디오 보유가구 비율 | 정의 수정 |
| HH-2 | TV 보유가구 비율 | 현행 유지 |
| HH-3 | 유선전화 보유가구 비율 | 현행 유지 |
| HH-4 | 이동전화 보유가구 비율 | 정의 수정 |
| HH-5 |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 현행 유지 |
| HH-6 |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의 비율(12월 기준) | 현행 유지 |
| HH-7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비율 | 현행 유지 |
| HH-8 |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비율(12월 기준) | 정의 수정 |

| 기초 핵심(Basic Core) | | 비 고 |
|-----------------------------|---|---|
| HH-9 | <p>개인의 인터넷 이용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 직장 ○ 교육기관 ○ 다른 사람의 가정 ○ 무료의 인터넷 접속장소 ○ 이동전화를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 기타 무선 접속기기를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인터넷접속 항목 추가 ○ 기타장소 삭제 |
| HH-10 | <p>개인의 인터넷 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정보 획득 ○ 건강 및 건강관련 정보 획득 ○ 웹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획득 ○ 커뮤니케이션 ○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주문 ○ 인터넷 बैं킹 ○ 교육 또는 학습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컴퓨터 게임 ○ 영화, TV, 라디오, 이미지 또는 음악의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온라인 신문 또는 잡지, 전자책 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획득, 여가 활동 등 상위 범주 통합 ○ 기타 여가활동 범주 삭제 |
| 확장된 핵심(Extended Core) | | 비 고 |
| HH-11 |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개인의 비율 | ○ 정의 수정 |
| HH-12 | <p>가정의 인터넷 접속형태별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모뎀 ○ ISDN ○ DSL ○ 케이블모뎀 ○ 기타 협대역 ○ 기타 광대역 | ○ 범주 통합검토 |
| HH-13 | <p>인터넷 접속 빈도(12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1번 이상 ○ 매일은 아니지만 주 1회 이상 ○ 주 1회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을 ‘사용’으로 대체 ○ ‘1달에 1번미만’과 ‘매달 최소 1회 이상’을 ‘주1회 미만’으로 통합 |
| 참고 지표 (Reference indicator) | | 비 고 |
| HH-14 | 전력이용 가구 비율 | ○ 현행 유지 |

□ 사업체(기업)의 ICT 이용

| 기초 핵심(Basic Core) | | 비 고 |
|-------------------------------------|--|---|
| B-1 |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 | 현행 유지 |
| B-2 |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종사자 비율 | 제목 및 정의 일부 수정 |
| B-3 |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 | 정의 수정 |
| B-4 |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종사자 비율 | 제목 및 정의 일부 수정 |
| B-5 | 웹 사이트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 | 현행 유지 |
| B-6 | 인트라넷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 | 정의 수정 |
| B-7 |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는 기업의 비율 | 현행 유지 |
| B-8 |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하는 기업의 비율 | 현행 유지 |
| 확장된 핵심(Extended Core) | | 비 고 |
| B-9 | 기업의 인터넷 접속 유형별 비율 ○ 아날로그 모뎀, 기타 협대역, DSL, 기타 광대역 | ISDN 삭제(기타 협대역 범주로 통합) |
| B-10 | LAN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 | 현행 유지 |
| B-11 | extranet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 | extranet 범위 확대 |
| B-12 | 기업의 인터넷 이용 목적별 비율 ○ 커뮤니케이션 ○ 상품 및 서비스 정보 획득 ○ 웹 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정보 획득 ○ 기타 금융서비스 기관과의 인터넷 banking 또는 접속 ○ 전부 및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 고객 서비스 제공 ○ 온라인을 통한 제품 배달 ○ 내·외부 인력 채용 ○ 직원 교육 | ○ 범위 확대 및 정의 수정 ○ 범위 추가 - 내·외부 인력 채용, 직원 교육 |
| B-13 | ○ 기업의 이동전화 보유 비율 | ○ 신규 지표 |
| ICT 부문 기초 핵심(ICT sector basic core) | | 비 고 |
| ICT-1 | ICT부문의 전 종업원의 비율 | ○ 현행 유지 |
| ICT-2 | ICT부문의 부가가치 | ○ 현행 유지 |
| ICT-3 | 전체 수입에서 ICT 상품 수입의 비율 | ○ 현행 유지 |
| ICT-4 | 전체 수출에서 ICT 상품 수출의 비율 | ○ 현행 유지 |

19) 물가통계

"물가통계 실무그룹 보고서"

□ IWGPS(물가통계 실무그룹) 목적

- 물가통계 국제협력 증진
- 물가 표준 및 방법론 이행 및 개발 지원
-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매뉴얼 개발

□ IWGPS 조직 및 회의

- 국제기구 ECE, IMF, OECD, Eurostat,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등 참여
- ECE/ILO & IWGPS 공동 소비자물가지수 회의 개최 (2008. 5. 8-9, 제네바)
- 오타와그룹 & IWGPS 공동 물가통계 회의 개최 예정 (2009. 5. 27-29)

□ 38차 유엔통계위원회(2007) 이후 사업

- XMPI(수출입물가지수) 매뉴얼 초안 작성
 - 수출입 단가지수, 교역조건지수, 이전가격 등 추가 수록 (2009년 최종 발간)
-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보충 가이드 발간 (2009년, 영국통계청 주관)
- 주택가격지수 핸드북 발간(2010년, Eurostat 주관)
- ECE/ILO CPI 회의, 물가통계 오타와 그룹 회의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20) 통계활동 조율

□ 개요

통계 활동 조율을 위한 39차 UN통계위원회 11,12차 세션과 2008년 9월 튀니지 회의 주요 결과 요약

□ 통계활동조정을 위한 위원회 역할

○ 위원회 참조 사항 개정

- 참조 사항 구조 변경 : 미션과 주요 활동, 기능, 업무양식의 명확화
- 공동의 글로벌 통계시스템을 위한 위원회 멤버들의 역할 강조

○ 데이터 품질에 관한 컨퍼런스 (2008.7.7~8 , 로마)

- 주관 : Eurostat, UNSD
- 주요 논의 사항
 - 조사 사용자 체크리스트 품질 진단, 품질관리 국제협력, 자료 접근성 및 해석 향상을 위한 자료 보급 기반, 무응답자료처리를 위한 임putation의 최적방안

○ 통계 역량 구축 활동의 조율(4개 태스크팀 활동)

- 보고 메커니즘 : 통계역량구축 관점에서 통계 영역 분류
- 역량 구축 지역트레이닝
- 기술협력프로그램 조율 양식 검토

○ 국제기구에 의한 인구 추정 사용

○ 국제기구간 자료 공유 양식

○ 향후 SDMX에 있어 국가, 국제기관의 개입

□ 첨부 : 통계활동 조율을 위한 위원회 개정 사항(2008.9월)

21) 통계역량구축

□ 개요

-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통계역량강화를 위해 회원 국가들과 유엔통계위원회 등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결의한 "결정 2006/6"을 채택(2006.7.24)
- 국가통계역량강화를 위하여 2006년 UNSD(통계처)가 MDG(새천년목표)에 초점이 맞춰 수행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38회 통계총회에 제출(2007.3.14)
- 본 보고서는 통계역량구축 실행전략에 대한 국제기구간 조정 및 통계처의 활동을 기술
 - 특히, MDG 지표와 관련된 역량구축 추가한 3개분야의 통계처 프로그램 구분, '06~'08년동안 역량구축활동에 대한 고찰, 진전의 윤곽을 기술

□ 통계역량구축 전략

- 전체목적에 맞도록 역량구축프로그램은 자문서비스제공, 워크숍실시, 연수여행, MDG 지표관련 활동에 의해 보충되는 *3개분야에서 이용가능한 통계툴킷(Toolkit:프로그램작성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 * 국가통계시스템, 인구센서스 및 사회통계, 국민계정·기초경제통계·환경통계·환경-경제계정구조
- 국가통계시스템 분야는 보다 나은 제도정비, 개선된 법적인 틀, 개선된 조직구조와 인적자원관리 및 효과적인 자료수집 및 배포프로그램
- 인구센서스 및 사회통계의 분야에 주요임무는 2005~2011 동안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2010 세계프로그램의 수행하는 회원국가 조력
- 또하나의 관심분야는 개발도상국가의 역량구축을 통한 성인지통계의 개발이며, 특히 비공식분야와 여성에 대한 폭력분야에 대한 측정
- 국민계정, 기초경제통계, 환경통계, 환경-경제계정 구조에서 우선순위는 2008 SNA(국민계정)체계이행, 기초통계분야의 수정된 권고사항이행, 환경-경제계정체계 이행

- 2008 SNA 이행을 위한 통계총회의 요구에 따라 통계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협조에 대한 컨퍼런스 구성('08.5, 룩셈부르크)
 - 통계처는 개발도상국가의 역량강화 지원노력 강화하고, 지식이전 가이드라인 제시, 경제통계에 대한 웹기반 지식자원개발
 - 정기적 프로그램, donor-funded project를 통하여 통계처는 개발도상국이 MDG 지표 분야의 역량강화 훈련지원 지속
 - 확장된 역량구축 프로그램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엔통계처는 역량개발을 위한 개관한 감독사무소에 한 섹션을 2008년 설립
 - 통계처는 지속적으로 다른 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술적지원 접근은 자문서비스, 워크숍, 개발도상국각간의 연계강화 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동일
 - 통계처는 각국의 교육기관간의 국제적 연계와 소지역의 선도센터의 설립을 지원
- 2006-2008 프로그램의 이행과 향후계획
- 2006-2008 동안 통계처는 100개의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145번의 자문서비스 제공 등
- 통계 역량구축 조정
- 통계처는 국가수준에서 수요자위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통계역량 활동의 조정을 지원하고 통계활동조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이일을 시작
 - 위원회는 이슈의 조정을 검토하고 향후 작업에 대한 권고를 위한 4개 팀 구성
- 결론
- 통계처는 성공적으로 통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난 3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향후에서 지속적 개선 및 프로그램 확장

22) 통계역량구축

“21세기 발전을 위한 연대 리포트”

□ 개 요

증거기반 정책결정 문화 확산과 빈곤경감, MDG달성을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PARIS21(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은 개발도상국의 통계발전국가전략 설계, 점검, 이행 지원에 역량 집중

□ 2008 PARIS21 사업현황

○ 지역 프로그램

- 12개국의 국가전략 직접 지원 (카메룬, 기나아, 리소토, 토고, 탄자니아 등)
- 카리브지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세미나 개최(2008. 6)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통계위원회 회의 지원 (2008.9)
- 유네스코 교육통계 세미나 지원 (2008. 10)

○ 통계옹호 툴 개발과 통계옹호

- 10개국의 통계옹호 활동 지원 (카메룬,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등)
- 여성과 통계 옹호를 위한 홍보 비디오 제작

○ 지원국 협력 증진

- 저소득국가 및 개발원조 대상국가의 통계능력 구축지원을 위한 태스크 구성(PRESS : Partner Report on Support to Statistics)
- PRESS 보고 결과 : 2006-2008년간 550만 달러의 통계개발 지원, 이 가운데 3/4은 EC, 세계은행, 영국이 지원 등
- 상세 결과는 통계활동협력위원회(2009. 2. 뉴욕)에 상정
- 개발원조 성과 고위급 포럼 공동 주관 (2008. 9)

○ 통계발전국가전략 방법론 개발

- 통계와 모니터링, 평가간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 국가전략 모범사례 보고서 발간
- 국가전략 이행 재정지원 및 예산 보고서 발간
- 자료 축적(또는 관리) 절차와 국가전략 통합 연구보고서 발간
- 최근의 대규모 통계능력구축 평가 교훈 등

○ 위성 프로그램

- 2개의 위성 프로그램인 국제가구조사 네트워크, APD(Accelerated Data Program) 감독
- 국제가구조사 네트워크 (IHSN)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및 조사품질 개선 목적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툴, 문제은행, 조사 카탈로그 등 개발
- ADP : 기존 마이크로데이터 문서화, 보관, 제공, 통계조사 데이터 분석, 과거 조사 프로그램 평가, 조사 프로그램 및 자료수집 개선 목적의 사업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지역에서 실시
- 메타고라 프로젝트 : PARIS21 사무국 주관의 인권 및 거버넌스 방법론, 기본틀 점검 사업으로 UNDP 오슬로 거버넌스 센터로 업무 이관

□ 향후 계획

- 제 4차 아랍국가를 위한 통계능력 구축 포럼 개최 지원 (2009)
- 제 4차 아프리카 통계발전 심포지엄 지원
- 2009 PRESS 라운드 실시
- 2009 PARIS21 컨소시엄 개최 (2009. 11. 16-18)

23) SDMX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교환 표준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리포트”

□ 개요

- 2001년 IMF, UNSD, OECD SDMX의 발전방향 논의, 2003년 월드뱅크가 스폰서로 합류
- SDMX 발의안의 목적 : 최신기술을 활용한 SDMX 중복 방지, 효율성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표준 및 가이드라인 조성
- 2002년 33차 유엔통계위원회에 SDMX 발의안 보고, 2008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SDMX가 자료교환의 우선적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이행 촉구

□ 최근의 발전

- SDMX 표준 및 가이드라인의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 SDMX의 기술적 표준 Ver.2의 승인에 따른 ISO(국제표준기구) 범위 내 작업
 - SDMX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내용에 대한 스폰서 위원회 승인
 - 39차 유엔통계위원회, 특히 교차 도메인 개념 개발 영역 논의
- 실천계획
 - SDMX 사용자 가이드 업그레이드
 - 역량 구축을 위한 지역 기구 참여 동기부여
 - 자율 학습 훈련 툴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
- 글로벌 컨퍼런스(2009.1월, 파리 OECD 본부)
- SDMX 정보 및 협력에 중점을 둔 Website 업그레이드

□ 결론 및 향후 방향

- SDMX 기술적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내용은 SDMX 향상 촉진
- 주제중심 도메인 작업이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모니터링 가능, 최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농업, 보건, 노동 등 MDG 지표의 전개사항 수록

24) 인간주거통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리포트”

□ 개요

- 인간주거통계 현황 보고서로 MDG 7조 이행목표 11항에 따르면 2020년까지 100만 도시빈민의 삶의 질 개선 점검
- 해비타트 뉴욕회의(2006.4. 3-6, 뉴욕); 빈민가 주민의 정의 및 관련 지표 논의

□ 뉴욕회의 결과 및 권고사항

- 빈민가 주민(slum dweller) 정의 관련
 - 빈민가 인구추정 시 거주환경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인구도 함께 고려
 - 센서스 및 GIS 자료 통합을 위한 연구지원 필요
 - 빈민가 판단 4대 기준: 식수 및 위생 접근성, 주거 내구성 및 크기
 - 생활불편 정도에 따른 빈민가 주민 분류
 - 2010 자료보고기간 동안 국가별 사례 분석 및 대체 정의 연구 권고
 - 소 지역 빈곤 맵핑(mapping)기법 연구 권고 등
- 자료 격차 관련
 - 국가별 자료원천 활용과 국제 비교성 향상을 위해 개별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 국가집계와 UN-HABITAT 집계간 격차 원인 파악 (방법론 차이 등)
 -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와 자료 격차 논의
- 추계
 - 도시와 빈곤지역(빈민가, 슬럼) 인구추계 방법론 한계 검토
 - “what-if” 시나리오와 같은 단순 외삽법 활용 이점 확인 등
- 국제 비교
 - 통계의 국제 비교는 자료품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유엔 해비타트는 가구통계 개선을 위한 지역 워크숍 개최 및 소 지역 기반 센서스 통계 분석을 위한 국가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옴
 - 2010 센서스 라운드 준비그룹의 회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 통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 결론

인구주거 통계 개선을 위한 UN-HABITAT 노력과 사업 논의 예정

다.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의제 요약 및 코멘트

※ 유엔 통계처 건물 DC2-1949실에서 개최

| No | 제 목 |
|----|-------------------------------|
| 1 | 정규옵저버의 갱신과 관련 임시 옵저버 초청절차 |
| 2 |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 |
| 3 |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지원-통계의 역할 |
| 4 | 한 눈에 본 정부 |
| 5 |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
| 6 | 환경통계 |
| 7 |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 |
| 8 | 인적자본 측정 |
| 9 | 통합 세계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OECD의 역할 |
| 10 | 아동복지측정 |

1) 정규 읍저버의 갱신과 임시 읍저버의 초청에 관한 절차

(통계위원회 읍저버와 임시 초청)

정규 읍저버

통계위원회는 현재 8개 정규 읍저버가 있는 데 즉,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아와 남아프리카(중국은 통계위원회 정규 읍저버로 승인되었으나, 이후에 초청을 거부하고 당분간 임시 읍저버로 통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선호). 이러한 모든 읍저버 자격은 2009년 말에 종료되고 따라서 갱신 심사 필요

전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정규 읍저버 국가 하나하나에 대하여 초청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기초로 갱신이나 혹은 비갱신 추천 필요가 있을 것. 각 읍저버국의 위원회 참석범위와 통계위원회의 확대 전략이나 작업프로그램에 참석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상세히 하는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을 것. 더욱이 읍저버의 견해는 그들이 느끼길 그들의 읍저버 자격으로부터 얻는 이익으로 추구될 것. 이러한 갱신 절차는 이전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7월에 시작되는 이메일로 이루어 질 것

정규 읍저버자격에 대한 새로운 요청

사무국은 2008년 3월 루마니아 통계청장으로부터 위원회가 루마니아 통계청을 위원회 정규 읍저버로 하는 것을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이 요청은 의장단 국가에 회람됨. 의장단은 이후에 다른 정규 읍저버 후보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이 첫단계로 루마니아가 2008년 6월 회의에 임시 읍저버로 초청할 것에 동의. 의장단은 또한 위원회가 그때 만약 상호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통상 절차에 따라 그들의 요청을 심사하기로 동의

대외관계위원회는 루마니아의 정규 읍저버자격에 대한 요청에 대해 통보되었고 통계위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 이것은 루마니아의 통계위원회 참여가 위원회와 그 활동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심사하는 틀의 완성과 연관될 것

의장단 국가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다음 절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받음 즉,

- 사무국은 루마니아를 통계위원회 정규 읍저버로 정하는 것의 상호 이익을 평가하는 틀을 준비할 것
- 공식적 자문이 서면 절차로 수행될 것. 자문 결과는 위원회, OECD대외관계위원회(ERC)에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외관계위원회와 OECD이사회에 의한 루마니아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 한편, 의장단은 루마니아의 2009년 통계위원회에 임시 읍저버로 참석하도록 하는 초청 승인에 초대될 것

임시초청

위원회는 임시 초청장이 비 정규 옵저버인 기타 비회원국에 발부할 지를 심사 할 필요가 있음. 이전 회의 참석과 통계위원회의 확대 전략 특히 나아진 참여에 관한 지속적인 관련성을 토대로 의장단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2009년 통계위원회 회의와 그 산하 기구에 참석에 대한 초청의 연장을 심사하도록 초청됨

2) 공식통계의 신뢰성 측정 : 전자 작업반 창설 제안

개요 및 배경

2008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연례회의 기간중 통계위원회는 공식통계의 신뢰도 모니터 방법 주제에 대한 세션을 구성. 이 세션은 상당한 관심을 일으켰고 활발한 토의가 있었음.

공식통계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 명확하여 통계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통계의 품질과 객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는 통계의 수용과 이용의 전제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식통계의 일반의 신뢰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각 국 통계청장들의 합리적인 동의일 것

OECD 통계국장이 요청한 이 보고서는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대한 권고된 접근법을 작성하기 위한 전자적 작업반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제공

파리에 제출된 논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감시하기 위해 통계청이 현재 사용하는 접근법의 공통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 파리에 제출된 서류를 다시 검토. 제출 국가는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임. 다음은 주요 시사점임.

- 발표자중 캐나다와 핀란드만이 그들 각각의 조사에서 사용되는 조사표를 부록으로 추가
- 캐나다와 핀란드 조사가 다루는 주제 범위는 다름 : 두 나라 모두 신뢰도에 대해 단 순히 질문하는 것 이상이지만 방향은 어느 정도 다름. 그러나 신뢰도 그 자체를 묻는 핵심 질문은 상당히 유사.
- 에스토니아 논문은 다양한 일반여론조사 결과를 연구하고 그 중 3개는 평판 조사라고 명명. 그러나 사용된 조사표는 논문에 추가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조사표가 상응하는 캐나다와 핀란드 것과 유사한 지 여부는 말 할 수 없음
- 독일 논문은 일반 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신뢰도에 대한 그 조사표는 일부분인 것 같음. 질문지는 이 논문에 나타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영국 논문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집중행 대 분산형 조직). 영국은 여론형성자와 영국 대중의 별도 조사가 있는 것 같음. 이러한 조사는 캐나다와 핀란드 논문의 조사 보다는 정부로부터 인지된 간섭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 어느 정도 더 폭이 좁게 의도된 것 같음

이러한 논문을 검토하는 데 있어 통계청과 기타 공식통계 제공자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한 탐구가 있는 것은 확실 : 신뢰되는 정보의 제공자로, 정보의 간편한 출처로, 가능한 민감한 정보의 신뢰되는 수집자로, 잘 관리되는 조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보의 개입의 대상으로 등등. 그런 조사에 대한 적절한 초점은 확실하게 국가적인 환경에 좌우

실제 경제, 사회나 환경통계와 달리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부터 나온 국제비교는 최소한 각 국 사무실 밖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이나 사용자가 거의 없을 것. 그러나 신뢰도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신뢰도를 향상시키거나 그 하락을 피하는 데 성공적으로 보이는 서로의 접근법에서 배우려는 하는 것이 통계청의 관심 사항일 것. 만약 이러한 가설이 입증된다면 감시 수단의 공통정도는 대등한 비교와 국제적인 학습을 촉진하게 될 것

요약과 제안

이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줌 즉

-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서 국가의 우선 순위간 너무 많은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조사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통계청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생산된 통계의 중요성, 신뢰도 그리고 객관성과 신빙성의 평가를 포함하는 통계청에 대한 신뢰도 표준조사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관심을 가진 국가와 함께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대한 권고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 작업반을 설치하자고 제안됨. 제안된 일정표는 다음과 같음.

- 2009. 2 : 작업반 설치에 대한 통계위원회 의장단의 결정
- 2009. 3 : 지원자 파악과 작업반 설치
- 2009. 5 : 2009. 6월 통계위원회에 진척보고서 배부
- 2009. 9 : 승인을 받기 위해 통계위원회에 최종 보고서 제출

이반 펠레기(전임 통계위원회 의장, 전임 캐나다 통계청장)

오타와

2009. 1

3) 어떻게 세계적인 위기에 처한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 [통계의 역할]

2008년의 금융과 경제 위기는 규제적인 틀의 디자인, 정부와 시장의 역할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에서 다른 경제간 균형에 대한 큰 의미를 갖는 엄청난 정치적 후퇴임. 그러나 이 위기는 또한 경제적인 상황을 감시하고 자산과 이행 평가하기 위한 우리의 통계도구의 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이러한 의문의 몇 가지는 주택가격의 측정, 금융시장의 효력, 비은행 중개의 크기와 특징, 장외거래 기구의 확산과 관계. 기타 질의는 가구(예를들어, 자본손실, 빈곤, 고통)와 회사에 대한 위기결과에 시의 적절한 설명을 하는 우리통계의 적절성과 관련.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에 걸쳐 도입된 대규모의 파산은 통계청이 그 활동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킴.

위기의 여파 속에서 국가나 구체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도가 취해졌거나 혹은 고려되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금융 혼란 결과를 설명하는 유럽 통계조직의 실행계획과 금융 통계에 대한 국제기구간 그룹(IMF, UN, OECD, ECB, BIS)의 설치와 같은 시도가 포함. OECD 통계국은 향후 활동의 가능한 방향을 알기 위하여 기구를 통틀어 통계인과 정책 분석이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현재까지 이 위기는 적절한 경제, 화폐 그리고 금융통계 부족의 결과가 아니고 혹은 단지 일부분이라는 데 공감. 위기를 관리하고 정책 입안자로 하여금 회복기에 있는 경제를 모니터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통계위원회에 대한 이슈 논문은 위기의 몇몇 통계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 대표단에게 OECD 차원과 그 이상에서 통계활동의 적응을 위한 가능한 관계에 대하여 의견과 조언을 요청

4) 한눈에 본 정부

한눈에 본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GaaG)는 2009년 10월 말간 예정으로 년 2회 발행할 계획임. 개혁의 영향을 정부가 그 성과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석, 기획,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 작동 원리의 적합한 핵심 지표를 제공할 예정. GaaG는 타국의 활동, 성과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핵심적인 투입과 과정에 초점. 차후 판은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자료도 수집할 계획임.

기대처럼 GaaG 개발은 수 많은 측정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아래와 같음

- **투입** : 일반정부에 대한 투입 자료의 측정은 여전히 어려움. 지출 측면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일반정부 지출의 내부 구조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모든 OECD 회원국은 현재 13개 EU 회원국이 사용하는 정부의 기능적 분류 기준에 맞게 자료를 재 생산하여야 하므로 현금,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집계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OECD 공공부문 및 영토개발과(GOV)에서는 2차 가공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정부 지출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 **고용** : 보다 표준화되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공공부문 고용자료 생산에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OV는 “공공부문 고용” 개념을 개발하여 새로운 조사 체계를 도입, 2005년 첫 조사를 수행하였음.
- **공공 행정 수행 과정 정보** : 인력 관리, 예산, 완성도 등 GOV 자체 조사에서 수집되었음. 응답자는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 GOV는 실제 업무수행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여 공공행정 수행과정의 품질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임.
- **산출 및 성과** : 공공부문의 산출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기준이 그의 없으며 공공 행정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임.

2009년 6월 통계위원회에 제출할 이 보고서는

- 임박한 GaaG 책 간행과 향후 계획에 대한 요약 제공
- 당면한 방법론적 과제 토론
- 보다 나은 공공부문 측정을 위한 통계 사회의 노력으로부터 획득한 뛰어난 이슈 제기를 포함할 것임.

토론으로부터 기대되는 성과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

- GaaG 사업의 확실한 인식
- 자료 수집에 국가별 통계 기구의 보다 많은 참여 보장
- 국가간 자료 비교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도입 가능성 평가

5)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 Stiglitz 위원회의 권고안

1. 성장, 인플레이션, 불평등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던 사회-경제적 변수와 일반의 인식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공식통계와 정부 정책 수행에 자심간 결여를 초래. 이러한 전제하에 프랑스 대통령인 Nicolas Sarkozy가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에 관한 국제 위원회(CMPEPS)를 창설. 저명한 경제학자인 Joseph Stiglitz와 Amartya Sen의 주도하에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에 있어서 GDP의 한계에 대한 토론을 하여 대안을 제시.
2. 위원회 작업은 1) 전통적인 GDP 이슈 재검토 2) 세대간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표 유지 3) 현재의 복지를 다룬 삶의 질 지표의 3개 분야로 조직되어 기술적 및 비기술적 보고서와 관련 문서를 준비. 2009년 4월까지 위원회의 보고서를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임. 1년간의 작업동안 관련 이슈를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나 통계적 작업과 연구의 결과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임.
3. CSTAT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위원회 보고서의 가장 뛰어난 결론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각국 통계청에서 수행한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 Stiglitz 교수를 통계위원회에 초청하는 안건은 의장과 합의되었음. 통계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토론했다. 향후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통계 작업의 방향을 내려주고 OECD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향후 작업을 지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

6) 환경통계(OECD 안건)

이 논문은 환경통계에 대한 OECD 활동의 목적과 위임사항을 설명. 그리고 OECD의 자원, 환경 정보시스템(SIREN) 및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표(SoE)를 발표예정. 특히, 논문은 유효범위와 포괄범위, 역사와 최근 발전, 주요 결과물과 국제 협력 그리고 기타 기관과의 합동작업을 강조할 예정.

논문의 2장은 다음의 중심사항에 기초하여 환경자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OECD의 실행 안을 설명할 예정.

- a) 기존 환경자료의 통합과 품질 향상
- b) 격차를 메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
- c) 자료 품질 노력의 기초가 되는 수단과 과정의 비용효율성 향상

특히, 최근의 발전과 활동계획은 이러한 4개 목적을 특히 강조하면서 토의를 위해 제출될 것

- a)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에 대한 자료 품질 향상(관련성, 시의성, 해석가능성, 시간적 일관성, 국가와 세계지역간의 일관성)
- b) 자료 수집과 관리과정의 비용효율성 증진
 - 자료수집 빈도 검토
 - 환경 상태 조사표를 단순화와 재설계
 - 기타 국제 자료출처의 사용 극대화
- c) 국제 협력과 합동 작업의 비용효율성 증진
- d) 자료 보급 및 접근 증진

OECD 활동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방향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개진요청 예정

7)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

1. 2008년 하반기는 OECD가 동 사업의 추진을 추진한 이래 사업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첫 번째 6개월이었음. 프로젝트 팀이 많은 시간을 사업 설계에 투자하였으며, 새롭고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와 파견자의 관계 형성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음. 그 핵심은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 집행위가 설립되어 9월 회의에서 지배체계와 2009년 사업안을 승인. 또한 이전 수개월간 수명의 보조자와 파견자 임명을 추진하였으며 UNDP, EC, UNESWA, UNESCAP, INTOSAI, WB, IADB 등과 MOU 또는 협력서 체결.
 - OECD 통계위원회는 프로젝트에 OECD 참여를 감독할 조정 그룹을 설치. 그룹 참가자는 의장에 의해 지명되었으며 2명의 부의장이 업무를 수행. 2010-2011 사업계획서는 현재 개발중임.
 - 공식 웹사이트가 7월 개통되어 월 평균 2천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조자, 협력자, 파견자, 조정 그룹 직원은 문서 검색,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음. 홍보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브로슈어도 준비.
 - 회의가 모스크바, 렌,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요르단에서 프로젝트 훈련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발전에 대한 분류의 2차 정밀검토,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핸드북의 1차 정밀검토가 끝나가며 보고서인 “무엇이 성공적인 지표를 만들게 하는가” 를 발간하였으며, 온라인 지식기반 사이트 설치를 완료하였음. 유럽 위원회가 주도하여 웰빙 측정에 대한 핸드북 작업을 수행중이며, “발전에 대해 시민들의 알고 있는 정도” 를 파악하는 2차 조사를 준비 중임.
 - Wiki4Progress 사이트를 개발하여 혁신적인 ICT 도구의 저장고로 사용할 예정
 - 제3차 세계포럼 준비는 잘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2월 최종 아젠다를 결정할 예정임.
2. 2009년 6월 위원회는 활동내역과 2010-2011년 사업 초안에 대해 보고서를 받을 예정임. 기술적 이슈에 대한 CSTAT의 권고와 위원회의 코멘트는 아래와 같음
 - 세계 프로젝트가 현재 까지 수행한 통계활동과 미래 통계활동 방향.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연결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 이슈에 대한 공식 통계 타 사업과 연계하여 중복 방지가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집중할 소수의 분야를 발굴하여야 함. Stiglitz 위원회가 연구 아젠다 설계를 위한 주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임.
 - 여러 국가에서 수행 중인 활동에 통계청을 포함 시켜 고품질 자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식통계 원칙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
 - 제안된 Wiki4Progress 사이트가 전문가 사회에 각자의 domain 개선을 위한 최고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 사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통계사회를 위해 개발된 SW의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하는 활동
3. 위원회에 제공된 보고서는 코멘트와 지도편달을 받기위해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여러 제안을 강조할 것임.

8) 인적자원 측정

1. OECD 통계국은 2008년 11월 3~4일간 이탈리아에서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세계 프로젝트”에 대해 UN, WB, EC와 공동으로 국제 워크숍을 주최. 워크숍의 목적은 인적자원 측정을 위한 표준계정 원칙 확장을 위한 방법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였음.
2. 워크숍에는 여러명의 최고 국제적인 전문가, OECD 15개 회원국과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직원과 Eurostat, UNECE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참가자는 점증하는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법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인적자원 측정을 위한 최선의 관념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합의. 호주, 케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은 이 접근법과 다른 접근법을 사용. 워크숍 이후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 접근법에 대한 관심을 확대
3. 이 분야에 대해 많은 OECD 회원국이 경험을 갖고 있어 OECD는 국가간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OECD가 중앙 조정자 역할을 하면 보다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권고. 컨소시움은 인적 자원 계정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해당 국가에 시행할 것임. OECD 통계국은 OECD가 주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자금 가동할 예정임.
4. 위원회와 회원국은 워크숍의 결론과 통계국의 제안을 토론하고 컨소시움의 구성에 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초대될 예정임.

9) 통합세계 통계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OECD의 역할

1.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SDMX)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자료 공표 및 도표화를 위한 SW 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이 지난 수년동안 수행되었으나 일부 국제기구는 자체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주요 시스템을 아래와 같음

- **SDMX**는 사용자를 포함한 통계 조직간을 연계하여 주는 기능을 포함하여 세계 통계시스템을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임. SDMX는 내용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 정보의 공유를 조직에 허용하여 주나 관리와 관리주체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법.** 공식통계의 공표 능력을 강화시키며 많은 통계이용자와 연계하는 새로운 방법이 대두되고 있음. OECD는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세계 프로젝트 사업의 구성요소로서 이 사업을 강조.
- **OECD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지속적으로 SIS를 개발하여 왔으며 향후 타 기관 통계와의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타 기구가 OECD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중임.
- **국제기구 및 통계기관에서 개발한 통계 SW.** 세계은행, UNICEF 등 국제기구와 스웨덴 통계청은 자료 관리 및 배포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중임.
- **통계 "hubs" 개발.** 일부 국제기구가 타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와 메타자료를 공표하는 솔루션을 개발. 일부 솔루션을 생산기관에서 자료를 갱신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포함. 여러 솔루션은 전반적인 통계의 공급을 확장할 것이나 DB간 불일치를 초래할 수도 있음.

2. 각국 통계청과 통계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한 도전과 기회를 강조할 것임. 위원회가 현 상황에 대하여 토론하고 보다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시스템 개발을 독려하는 OECD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

10) 아동 복지 측정 : OECD 보고서 교훈

1. 세계의 정책 결정자의 관심이 아동 복지로 이동 중임. 아동 소득, 빈곤, 건강 및 교육 지표의 분석은 전체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또는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아동 산출 측정 결과에 의해 보충되어져 왔음.
2. 아동 복지의 이해는 최적의 사회 개발을 위해 필수적임. 성장기는 노년이 되기 전 공공 투자가 최고로 이루어지는 시기임. 아동은 현 세대를 대체할 세대이며 향후 근로자, 납세자, 법률가 등 미래의 직업 세대임. 아동 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모든 시간과 비용은 효과가 있도록 설계되었음. 더욱이 아동 복지 이슈는 오늘날 아동에게 더욱 중요함. 아동은 보편적인 권리와 수요를 가지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3. OECD 아동 복지 보고서는 정책비용과 구조, 불평등의 세대간 이동, 가족구조 분석, 아동 복지 결과의 수정 가능한 지표를 총 망라한 것임. 평등과 효율성 관점에서 정책 노력과 복지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OECD는 금년말 회원국 아동 복지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4. 통계위원회용 보고서에는 OECD 아동복지 지표의 기본구조를 소개할 것이며 아동 복지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아동에 대한 수정가능한 지표의 개념을 탐구할 예정임. 아동복지 지표의 기본구조는 본질적으로 다면적이어서 자료 수집이 불완전하거나 update가 되지 않고 불가능 경우도 종종 발생함. 다면 개념으로서 아동 복지는 보건, 교육, 복지, 고용 등 분야에서 정책 교훈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정책형성자에게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자료 제한과 함께 지표의 수집과 선정도 기본구조가 포괄적이며 굳건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5. 이 보고서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 첫 번째 섹션은 광의의 내용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과거의 국가별 아동복지 지표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검토할 것이며, 두 번째는 특히 문헌에 대한 OECD의 기여를 강조한 OECD 아동복지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의 기본구조를 개관, 세 번째는 회원국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아동복지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기본구조상 나타난 통계능력을 추적, 마지막 요약 섹션은 회원국과 2009년 5월 개최 예정인 아동복지 전문가 회의 결과와 wikichild 프로젝트 진전에 따라 관심을 가질만한 합동 아동복지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임.
6. 통계위원회는 아동복지 지표 기본구조와 관련 프로젝트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위해 초빙될 것임. 향후 프로젝트에 각국 통계청의 긴밀한 관여가 자료의 가용성과 품질을 향상을 이룰 수 있음.

6. 기 타

○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 통계발전전시회 출품 포스터

